

## 각국 정책 및 업무

### 선교국

국내선교부 | 사회선교부 | 국외선교부

### 교육국

교회교육부 | 학교교육부 | 제자교육부 | 교재개발실

### 사회평신도국

평신도부 | 사회봉사부

### 사무국

행정부 | 회계부 | 재산관리부 | 민원부  
회관관리부 | 은급부 | 복지법안부

### 홍보출판국

기독교세계부 | 출판부

### 교육훈련원

연수원 | 교육원

### 비서실

총회행정부 | 기획홍보부 | 역사전산부





선교국





## 총무 인사



총무 이원재 목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5700교회 150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직임을 맡겨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간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신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은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감독교장님의 비전과 장단기발전위원회의 계획을 바탕으로 선교국이 추진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를 이루기 위해 영적대각성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beyond 1907’을 앞세워 영적대각성운동을 펼쳐나가고 이를 말씀과 기도운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5월 전국 임원대회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감독교장이 전국을 돌며 희망을 주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투어’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8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영남선교대회를 통하여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영남선교대회는 봉사와 전도가 조화됨으로 교회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국과 삼남연회가 함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여 ‘1+1’ (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을 전개합니다. 지방마다 전도대가 조직되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적인 전도운동, 전도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미자립교회 문제와 정책적인 개척에 관하여도 힘을 쏟아 체계화하고 법제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상생운동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세상)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위해서는 세계선교 협력의 확대와 종합적인 선교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이후에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지도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선교센터 건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평화통일, 에큐메니칼 지도력 확대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선교국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회와 지방, 그리고 모든 교회가 뜻을 모으고 협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부족한 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국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1. 정책 개요

본부 선교국은 국내선교의 제반 정책과 전도를 총괄하는 국내선교부, 대 사회적 선교를 총괄하는 사회선교부, 해외선교사 파송과 관리 및 세계선교를 책임지는 해외선교부가 협력하여 2007년의 목표를 부흥의 열정과 선교의 지경을 넓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정하였다. 우리는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를 본부와 연회 그리고 각 지방, 또한 5700개 모든 감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며 참여함으로써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대회로 마쳤다. 세계 모든 교회가 한국감리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의 선교 지경은 더욱 확대되어가고 위상은 높아진 것이다. 이제는 영적각성운동을 실천해 나감으로 양적인 성장 못지않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감리교회는 희망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부흥이 핵심이다. 진정한 부흥이 그리운 시대이다. 우선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하고 이 바탕위에서 한국감리교회는 초기 웨슬리안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부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희망을 주는 감리교 '1+1' (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으로 전환시켜서 교회성장의 핵심전략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2005년에 보고에 비하여 2006년부터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 교인 수 성장률이 1% 근처에 있는 것은 감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5% 이상은 성장해야 한다. 2007년 영남선교대회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전도교육과 전도훈련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미자립교회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과 연회 차원에서부터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 연회, 본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기대한다. 발전적 미자립교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M-Project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는 사회선교를 통해서 대사회적 이미지를 감리교 고유의 브랜드화 시켜나갈 때 더욱더 질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를위하여 희망교회운동의 한 축으로서 희망의집 전국 네트 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의 흩어져 있는 사회선교 역량과 각 기관의 느슨한 연대체제를 희망의 집이라는 구심을 가지고 명칭의 단일화와 각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원활한 지원과 연대를 통해 감리교의 사회적 브랜드는 더욱 희망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와 같은 희망교회운동으로서의 사회선교에는 농촌과 환경, 기관선교, 소외자

선교, 교회와 사회 등 여러 분야와 많은 기관, 단체가 있어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를 필요로 한다. 이 전문 인력을 신학대학에서부터 잘 교육하고, 수련목회자 파송을 통하여 훈련시켜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사회선교는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현장 적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에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분들과 그늘진 곳에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에큐메니칼 관련 사역과 평화통일문제는 감리교회가 지도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위원회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감리교회의 대 사회선교 지도력은 강화될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희망의 지경이 교회 밖 구석구석까지 더욱 넓혀져 나갈 것이다.

세계선교와 나눔운동은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적인 개최이후에 한국감리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목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조직과 지원 그리고 관리 시스템 운용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선교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대외선교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심층적인 선교사 교육과 선발 그리고 실제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 선교지를 개발하고 선교사의 정책적 파송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선교사의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계선교센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선교사 지망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게스트 하우스와 복지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선교사들에게도 큰 자부심과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타 교단에 비해서 뒤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체교회도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감리교 본부 차원의 세계선교센터 건립은 특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 중점 실천 목표

- 1)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1' (원 플러스 원) 교회배가 운동을 통한 교회성장 추진 / 영적각성실천운동 및 영남선교대회
- 2) 구체적인 미자립 교회 정책 / 개척 성장학교 운영

- 3) 효율적인 군선교와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파송 및 관리
- 4) 희망교회운동 실천을 위한 희망의 집 네트 구성(감리교회의 사회선교 이미지 개선)
- 5) 희망을 주는 상생목회운동으로서 농촌 및 환경선교를 위한 역량 강화
- 6)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 전도(웨슬리 전도학교의 분야별 전문화 추진)
- 7) 효율적인 선교사 양성과 관리, 복지 시스템 확대
- 8) 세계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 추진
- 9) 에큐메니칼 사역의 활성화와 평화통일 선교를 위한 기반 조성

## 2. 국 위원 및 이사

위원장	한정석 감독		
위원	연회	목사	평신도
	서 울	오도근	신정수
	서울남	정상복	홍기수
	중 부	안승우	장석동
	경 기	이정찬	신은영
	중 앙	장인선	방원섭
	동 부	방 현	이영규
	충 북	강석근	이상구
	남 부	윤석일	주낙천
	충 청	송청광	정재걸
	삼 남	권영화	성인숙

##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 무	1. 선교국 제반 업무 총괄 2. 선교신학 정책 3.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 업무

부서	업무
국내선교부	1. 국내선교정책 수립 2. 감리회 300만 총력전도운동 - 교회성장,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차세대선교 3. 미자립교회 정책 및 교회 개척정책 4. 군선교정책 - 군목후보생, 군목 및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선발, 파송, 교육 및 관리 5. 목회연구 및 신앙과 직제 6. 북한선교 정책 및 탈북자 사역(서부연회와의 협조) 7. 별세목회자 가족 사역 8. 웨슬리 전도학교
사회선교부	1. 사회선교정책 수립 2. 농촌과 환경 - 농어광산촌 선교, 농도생협, 환경선교 3. 기관선교 - 경찰, 교도소, 병원, 직장선교 4. 소외자선교 -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도시빈민, 장애인, 쉼터, 기지촌, 알코올의존자 5. 교회와 사회 - 맞들기운동, 인권 및 사회문제, 스포츠선교, 생명나눔운동 6. 교회일치정책 - 에큐메니칼 및 평화통일 선교
국외선교부	1. 국외선교정책 수립 2. 해외교회와의 선교협력 3. 국외선교 홍보 및 활성화 4. 선교사 교육 및 훈련 - 해외선교센터 건립 추진 5. 선교사 행정관리 6. 선교사 복지

## 4. 발간 자료

### 2006년 발간 자료

구분	제목	내용	비고
영상물	임원대회 영상물	· 대회 전체 프로그램 VIDEO	국내선교부
자료집	WMC 한국준비위원회 활동자료집	· WMC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 및 회의자료	WMC 준비위원회
영상물	제주선교대회 영상물	· 제주선교대회 전체 프로그램 VIDEO	국내선교부



구분	제목	내용	비고
자료집	제주선교대회 자료집, 평가집	· 제주선교대회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 및 평가자료	국내선교부
자료집	2006 미자립교회 현황 및 자료집	· 2006년 기준 미자립교회 현황 및 대책	국내선교부
자료집	감리교회 교세변동 현황 자료집	·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회, 지방별 현황	국내선교부
자료집	2006 선교사백서	· 국외 선교사 현황 및 선교 정책	국외선교부
자료집	21세기 사회선교회 새 패러다임	· 감리교 사회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망하는 자료집	사회선교부
단행본	전세계약서도 못쓰면서 교회개척 하시겠습니까?	· 초기목회자 및 교회개척을 준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책	국내선교부

### 기존 발간 자료

구분	제목	내용	비고
자료집 영상물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회보 Mission, com	·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2002년 사업 보고와 계획, 조직, 국외선교정책 및 업무 등 수록 · 바른 선교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리를 위해 제작	감리교 세계선교 협의회 / 국외선교부
자료집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감리교회” - 9월 총력전도의 달 자료집	· 총력전도의 달 안내, 전도설교, 전도 결단 기도문 등 수록 ·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기초자료	300만 총력전도 운동본부
소식지	선교국 News Letter	· 선교국 각 부서의 소개와 업무, 행사 수록 · 300만 총력전도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해 제작	선교국
자료집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위한 전국지도자대회	· 전국지도자대회 주제설명, 예배 및 특강 순서 300만 총력전도운동 전략과 추진계획 등 수록 · 전국지도자대회 자료집	국내선교부 / 300만 총력전도 운동본부
자료집	2004년도 선교국 정책 자료집	· 선교국 주요 정책 및 업무 수록	선교국

구분	제목	내용	비고
핸드북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감리교회	· 호남선교대회 표어, 목적, 조직, 행사 일정 및 행사 안내, 역할 분담, 준비상황표 등 수록	300만 총력전도 운동본부
영상물	300만 총력전도 운동	· 300만 총력전도운동 소개 CD, VIDEO 제작	
영상물	호남선교대회 주제영상	· CD - “감리교회! 호남선교 도약을 향한 첫 걸음!”	
영상물	호남선교대회 대회기록용 영상	· VIDEO - 행사당일 녹화	
영상물	임원대회 영상물	· 대회 전체 프로그램 VIDEO	
자료집	2005년 임원대회 자료집	· 2005년 임원대회 모든 준비상황, 대회자 료, 주요 결의사항, 선언문, 대회 사진자료	국내선교부
자료집	감리교 교세현황 및 미자립교회 현황	· 감리교 교세현황 및 교세변동 현황 미자립교회 관련 정책, 현황, 자료	국내선교부

## 5. 각부 정책

### 국내선교부

· 부장 태동화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교회성장 정책의 핵심이 곧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전환하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1’ (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이다. 이는 5천교회 100만 신도운동, 7천교회 200만 신도운동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내 교회 부흥을 위한 운동이요, 교인 배가 운동이요, 감리교회 성장과 부흥운동의 중점사업이다. 연회와 지방 중심의 지역 전도대회와 실제적인 전도교육 및 전도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심에 영남선교대회가 있다. 전도와 관련해서는 웨슬리전도학교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대상, 계층에 따른 다양한 전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도되어지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어린이 전도와 관련하여 30만 어린이전도운동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큰 희망입니다.

미자립 교회와 관련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경상비 결산액 2500만원 미만인 교회가 40%가 넘는다. 이를 위하여 미자립 교회의 성장을 위한 부분과 미자립 교회 교역자의 최저생활비 문제로 나누어 접근해 나가고 있다. 미자립 교회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각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교회가 달라졌어요!”라는 주제로 2년 동안에 실험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극복 프로젝트 (M-Project)는 교단 내외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일은 국내선교부와 감리교 선교학연구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저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지방과 연회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을 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물론 정확한 현황과 통계 근거를 가지고 시행할 것이며 지방 및 연회, 본부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교회 개척과 관련한 문제는 분명한 원칙과 대안이 절실하다. 특히 개척이 곧 미자립교회 양산이 되어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척 성장학교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인 초기목회자 교육과 기존목회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CRM Korea(최승호목사)와 신학대학의 전문 교수진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본부 또는 연회 차원에서 전국의 개척 후보지역을 파악하여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신축하여 검증된 목회자를 파송하는 중형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 개척된 중형교회는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순환 개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2 현황

### 1) 감리교 교세 변동현황

자료근거 : 각 년도 별 연회회의록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인수	1,329,439	1,365,444	1,377,954	1,394,515	1,408,253	1,417,213	1,455,539	1,495,887	1,508,434
변동율	0.50% (6,759)	2.70% (36,005)	0.90% (12,510)	1.20% (16,561)	1.00% (13,738)	0.60% (8,960)	2.70% (38,326)	2.80% (40,348)	0.80% (12,547)
교회수	4,666	4,772	5,188	5,262	5,337	5,386	5,489	5,619	5,692
변동율	2.10% (97)	2.30% (106)	8.70% (416)	1.40% (74)	1.40% (75)	0.90% (49)	1.90% (103)	2.40% (130)	1.30% (73)
교역자수	6,114	6,778	미파악	7,298	7,521	7,810	8,225	8,306	8,415
변동율	-1.20% (-73)	10.90% (664)		3.00% (520)	3.10% (223)	3.80% (289)	5.30% (415)	0.90% (81)	1.30% (109)

☞ 2000년도에 미주선교연회 213교회와 교인수 15,352명

## 2) 2006년 교세 현황

자료근거 : 각 년도 별 연회회의록

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선교	합계
지방수	13	16	29	23	20	23	13	20	21	21	14	213
교회수	346	387	878	639	527	604	356	499	573	569	314	5,692
입교인	86,319	86,374	149,028	69,108	50,544	56,899	25,315	51,772	52,523	34,326	12,547	674,755
세례인	67,342	14,288	21,681	10,041	6,396	7,110	3,941	8,800	6,853	9,054	1,864	157,370
세례이동	16,852	10,170	18,948	11,298	6,228	7,086	3,702	5,866	5,978	6,165	1,928	94,221
원입인 (성인)	39,525	98,988	40,979	18,590	18,830	24,203	10,989	23,569	17,851	11,381	2,188	307,093
원입인 (아동)	38,500	17,589	110,257	20,483	16,114	16,093	8,553	15,303	17,720	13,241	1,507	275,360
교인수	248,538	227,409	340,893	129,520	98,112	111,391	52,500	105,310	100,925	74,167	19,669	1,508,434
정회원	584	647	1,190	724	587	598	309	562	586	519	301	6,607
준회원	82	101	139	91	74	80	50	70	43	75	36	841
담임서리	7	11	20	22	7	31	20	20	15	25	6	184
수련서리 (기관포함)	45	19	39	16	15	7	2	12	6	4	2	167
협동회원	2	1	5	0	6	1	1	1	0	0	0	17
원로목사	113	69	121	62	39	58	28	51	65	38	34	678
국외거주	70	11	19	40	38	21	14	49	21	7	0	290
교역자수	903	859	1,533	955	766	796	434	765	736	668	379	8,415
경상수입	130,755,571,696	140,084,481,240	123,042,964,049	118,519,369,914	87,301,374,015	53,423,179,687	21,650,651,081	35,098,732,000	41,968,052,600	33,449,782,702	\$14,752,383,41	785,334,158,984 + \$14,752,383,41

## 3) 2006년도 교세 변동현황

자료근거 : 각 년도 별 연회회의록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인수	1,365,444	1,377,954	1,394,515	1,408,253	1,417,213	1,455,539	1,495,887	1,508,434
변동율	2.70% (36,005)	0.90% (12,510)	1.20% (16,561)	1.00% (13,738)	0.60% (8,960)	2.70% (38,326)	2.80% (40,348)	0.80% (12,547)
교회수	4,772	5,188	5,262	5,337	5,386	5,489	5,620	5,692
변동율	2.30% (106)	8.70% (416)	1.40% (74)	1.40% (75)	0.90% (49)	1.90% (103)	2.40% (130)	1.30% (73)
교역자수	6,778	미파악	7,298	7,521	7,810	8,225	8,306	8,415
변동율	10.90% (664)		3.00% (520)	3.10% (223)	3.80% (289)	5.30% (415)	0.90% (81)	1.30% (109)

☞ 2000년도에 미주선교연회 213교회와 교인수 15,352명



#### 4) 년도별 교회수와 미자립 교회수

2005년 경상비 2500만 미만 기준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①전체교회수	4,238	4,373	4,463	4,569	4,666	4,772	5,188	5,262	5,337	5,386	5,489	5,620	5,692
②미자립교회수	1,897	1,858	1,859	1,773	1,565	1,935	1,910	2,020	2,081	1,961	1,935	2,159	2,152
②/①%	44.8	42.5	41.7	38.8	33.5	40.5	36.8	38.4	39	36.4	38.4	38.4	37.8
전년대비증감수		-39	1	-86	-208	370	-25	110	+61	-120	-26	224	-7
비고									미주연회포함				

#### 5) 교회개척, 폐지, 미자립교회 현황

자료근거 : 2005,6년 연회자료, 각 연회 확인

구분 연회	교회 수		개척 수		폐지 수		미자립교회 수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서 울	344	346	3	6	2	4	93	86
서울남	384	387	14	10	8	7	150	144
중 부	859	878	15	27	14	7	306	308
경 기	627	639	22	18	6	5	261	258
중 양	514	527	10	17	7	7	186	187
동 부	605	604	8	5	2	1	253	240
충 북	351	356	6	6	2	1	191	194
남 부	484	499	12	22	7	8	220	238
충 청	564	573	14	11	2	1	197	199
삼 남	560	569	14	11	1	1	165	161
미주선교연회	328	314	33	21	15	2	137	137
합 계	5,620	5,692	151	154	66	44	2,159	2,152

### 3 주요 업무

1)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300만 총력전도운동 '1+1'(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교회성장정책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추진한 이후 교회 수는 203여 개, 교인 수는 52,895명이나 성장하였다. 이제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교회 '1+1' 배가운동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웨슬리 전도학교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대상, 계층에 따른 다양한 전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연회는 교역자 중심으로 지방은 평신도 중심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며 전문화된 전도교육을 강화한다. (선교사, 군선교사역자, 학원 사역자, 이주노동자선교, 기관사역자 대상)
- ② 개체교회 담임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 고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 ③ 실제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전도운동과 교회성장의 특별한 모범사례와 대안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 ④ 청년 및 청소년, 어린이 전도를 위한 전문팀의 활동을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국과 연합하여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다음 세대를 대비해 나간다.
- ⑤ 2007년 8월 부산에서 영남선교대회를 삼남연회와 함께 추진하여 2007년 교회성장 프로그램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 2) 미자립교회 문제

미자립교회의 성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은 본부에서 목회자의 생활비와 관련한 부분은 연회와 지방에서 해나가도록 추진할 것이다.

- ① 미자립 교회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분한다. 지역과 환경상 자립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건적인 미자립 교회(특별세미나, 수련회 개최), 성장되지 못하고 오랜 시기를 정체상태로 머무는 침체된 미자립 교회(공청회 및 대안 마련), 조금씩 성장되어 나가고 있는 발전적인 미자립 교회 (M-Project)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② 지방, 연회 본부의 관련 위원회를 통한 활동을 실제로 펼쳐나가도록 한다.
- ③ 정확한 현황과 통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회와 지방회의 전담부서 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정착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자료집 발간)

## 3) 교회 개척 문제

개체교회 및 지방 연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척에 대한 원칙과 대안이 절실하다. 특히 미자립교회가 양산되어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척 성장학교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인 초기목회자 교육과 기존목회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수련목회자 및 진급 중인 교역자의 필수과정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연회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개척 후보지역을 파악하여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신축하여 목회자를 파송하는 중형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는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중형교회 개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기금 마련의 방법과 개척지 선정, 반드시 검증된 목회자를 엄선하여 파송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 4) 군선교

군선교는 여전히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황금어장이며 선교의 최전방이다. 현재 감리교회는 어느 교단보다도 군선교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이를 위한 후원교회와 군선교회의 헌신적인 사역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 ① 군종사관후보생 : 우선 매년 7월에 치르고 있는 국방부 주관의 군종사관선발고사를 통하여 많은 후보생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을 잘 교육하고 관리하여 준비된 군목으로 파송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집체교육과 특별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② 군종목사 : 가장 많은 수의 군목이 우수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매년 수련회와 특 별세미나, 군선교대회를 개최하고 3년마다 성지순례 등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장기 선발과 진급을 위한 문제, 전역 후의 임지 문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 ③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 군인교회 지원목회자를 포함하여 인준, 파송, 교육, 관리를 위하여 군선교 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 군선교 현황 및 자료

가. 군종사관 후보생 (2006. 9. 1 현재)

편입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인 원	7	11	4	10	9	9	6	56
임관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나. 현역군목 (2006. 9. 1 현재)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영관	8명 (소령)	3명 (중령2, 소령1)	·	11
위관	32명	5명	4명	41
계	40명	8명	4명	52

다. 군인교회 전담목회자(2006. 9. 1 현재)

소속연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계
특별파송	8	12	4	7	6	4	4	·	2	1	48

5) 북한선교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는 서부연회와의 적극적인 협 조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부연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국내 선교부에서는 탈북자와 자녀교육, 관련 목회사역 중심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6) 목회연구 및 신앙과 직제 정책

현대인의 변화되는 삶의 패턴에 따른 새로운 목회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별히 출산을 저하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문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가는 현실에서 노인선교와 관련한 문제, 주 5일 근무 정착에 따른 교회의 목회 변화 등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목회에 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통한 예배, 예전, 교리 등의 문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7) 별세목회자 가족돕기

예수자랑사모선교회의 활동을 더욱 공식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봄에는 창립 6주년기념 감사예배를 가을에는 영성훈련과 위로회를 겸한 수련회를 기본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당진 된장공장의 자활 활동의 강화와 후원회 조직을 확대하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할 것이다. 은퇴목회자를 위한 원로원(복지재단 관리),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여선교회전국연합회 관리)과 함께 3대 관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 8) 웨슬리전도학교

전도교육과 전도훈련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 ① 상설 웨슬리전도학교 개설: 연회 및 지방 웨슬리전도학교를 개설
- ② 해외지역 웨슬리전도학교 개설
- ③ 노방전도 - 감리교본부 앞에서 웨슬리전도학교 강사들과 강사교회의 교인들이 정례적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하여 전국의 감리교회에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한다.
- ④ 농촌, 어촌, 광산촌의 감리교회에 전도지원 - 전도팀 파견, 전도훈련, 전도집회
- ⑤ 각 연령에 따른 웨슬리전도학교 활동 강화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웨슬리전도학교 활성화- 강사 양성 및 전도학교 개설
- ⑥ 평신도 전도 간증자 발굴 및 전문 훈련
- ⑦ 신학대학교의 신학생 및 대학원생 전도훈련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도학교정책연구	이사장 : 이기우 교 장 : 조재진 교 감 : 박용호	전영배 김상현 유영완 이현식 이영태 홍준기 권정학 태동화
감리교 신앙과 직제정책	신문구	박은규 신문구 황문찬 유승훈 김준형 안희선 한연수 이송관 가홍순 남 호 이보철 나형석 박종천 이원규 김홍수 최성봉
감리교 군선교회	이사장 : 김국도 회 장 : 박경천 총 무 : 백창현	정의선 이기우 박정일 김광덕 전용재 원종국 김양수 오민평 김영호 손호익 태동화 박종규

## “섬김이 전도입니다”

태동화 목사

지금 한국 감리교회는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5천 교회 100만 신도운동과 7천 교회 200만 신도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운동은 내 교회 부흥운동이요, 교인 배가 운동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전도하자는 1+1 운동이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성장이 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라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한다. 감리교회도 통계적으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전도(Personal Evangelism)가 목회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로 등장하였으며 목회자의 지도력(Leadership)과 권위(Authority)도 급락하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섬기는 전도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 1) 섬기는 전도(Servant Evangelism)

미국 신시네티의 쇼그린이 그의 복음전도 사역 속에서 깨달은 것은, “아무도 사랑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사랑의 행위를 만났을 때, 그들은 큰 충격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랑의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그 결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많아진다.

### 2) 왜 섬기는 전도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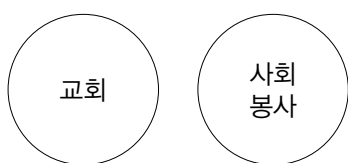
- 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죽어 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그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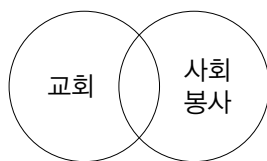
- ② 이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난 친절함 행동은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당신의 친절함 행동을 더 잘 기억할 것이다. 사랑의 행동과 함께 하는 사랑의 말은 강력한 증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③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증거 하는 은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행동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가능하다.
- ④ 섬기는 전도는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 “왜 내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 ⑤ 섬기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 3) 교회 차원의 지역사회 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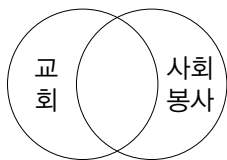
교회는 아래 세 가지 모델로 지역사회(지역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교회의 복지시설 등 운영  
A형 모델 / 초대형교회 형태  
복지관, 양로원, 고아원 등 운영 등



\*교회의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B형 모델 / 중형교회 형태  
경로대학, 어린이집, 아동학습센터 운영 등



\*교회가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봉사활동  
C형 모델 / 소형교회 형태  
독거노인 봉사, 소년소녀 가장 지원프로그램 등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체와 시설을 섬길 수 있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섬기는 전도를 할 수 있다.

- ①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 ② 수용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 ③ 휴식 공간 : 노인정, 노인학교, 노인대학
- ④ 쉼터 : 노숙자 쉼터, 여성쉼터, 청소년 쉼터
- ⑤ 감리교 단체 및 시설 : 외국인 근로자, 교도소선교, 장애인 및 농아교회, 농촌교회
- ⑥ 지역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거택보호대상자
- ⑦ 병원 : 병원, 호스피스활동
- ⑧ 빈민선교 : 공부방, 탁아소

#### 4) 섬기는 전도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

- ① 교회가 위치한 지역(도시)의 실제적인 필요와 만나려고 노력하라.

이러한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참 사랑의 종교의 본질이다. 특히 쇼그린은 “Seeing Beyond Church Walls: Action Plans for Touching Your Community”에서 당신의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사랑의 다리(bridges of love)를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목회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② 섬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 체크 할 사항들

- 그룹이나 개인이 섬기는 전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라.
- 섬기는 전도의 실천시간은 1-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
- 계획을 세우라.
- 편안한 옷을 입어라.
- 이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라.
- 섬기는 전도 카드를 준비하라.
- 행사가 끝난 후에 깨끗한 정리를 위한 청소도구를 준비하라.

나. 개인적 행동에 대한 조언

- 섬기는 전도를 할 때 사용할 용어와 방법을 훈련하라.
- 상대방에게 공손히 말하라.
- 사례를 받지 말라.
- 다른 조건을 달지 말아라.



·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쁨으로 이뤄져야 한다.

③ 구체적으로 시작하라.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라.

가. 경로당에 가서 식사봉사 및 청소를 하라.

나. 무의탁 노인을 찾아가라.

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라.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하라.

마. 지역하천을 청소하라.

바. 거리 또는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라.

사. 무료급식을 준비하라.

아. 교회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요청에 대비하라.

④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 한 달에 한번 현장으로 찾아가서 속회를 가진다.

나. 각 선교회의 월례회도 분기에 한 번은 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다. 교회학교도 참여하게 하여 봉사활동도 하고 섬기는 전도를 한다.

교회와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섬김의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다. 한때 한국감리교회는 맞들기 운동을 시행하였다. 이는 감리교인이 월 4시간 연간 48시간을 봉사하고 이를 통하여 전도하자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섬기는 전도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1 업무 추진 방향

2007년도는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실천적으로는 희망프로젝트를 각 부서별로 구체화하여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실체가 확인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단기 발전위에서 제시한 희망프로젝트를 본부 각 부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활용하여 서로가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희망의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사회선교부는 이와 같은 전제속에서 첫째로는 영적각성 실천운동에 있어서 감리교 사회규약을 이 시대와 사회정신에 맞게 제정 선언함으로 사회적 영성의 주도자로서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 또한 영적각성운동의 실천사업으로 <희망의 집>운동을 전개하여 감리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희망의 집>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그 기관본질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며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시너지를 높이려고한다. 둘째로는 희망목회운동의 실천적 사업으로 건강한녹색교회운동을 전 교단적으로 공포하여 교회가 시대적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처해 가는 성숙하고 수준 높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셋째로는 세계선교와 나눔운동의 실천과업으로서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타교단, NGO단체와 연대를 모색하고, 역량을 키워가며 감리교회인적자원네트 구성과, 기독교 사회선교봉사네트 수립에 참여할 것이다. 특별히 감독회장께서 전국의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방문하는 일을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그 지역 소외계층과의 연대 및 지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감리교 사회선교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것이다.

## 2 현 황

구분	현황	비고
경찰 선교	3	특별파송
교도소 선교	3	특별파송
병원 선교	16	

구분	현황	비고
직장 선교	1	특별파송
외국인 근로자	16교회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장애인 교회	17교회	농아교회 선교연합회
노숙자 쉼터	2교회	·
여성쉼터	8교회	·
빈민선교	3교회	·
특수선교	2곳	·
생명나눔운동	장기기증운동본부	
인권	고난모임(양심수 지원)	
맞들기운동		선교국 주요사업
사회선교협의회		사회선교부 조직
스포츠선교회		사회선교부 조직

### ③ 주요 업무

#### 1) 교회와 대 사회선교

2007년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희망프로젝트의 가동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사회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교단과의 연합 사업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힘찬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선교부에서는 녹색교회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전개해갈 것이고 사회규약 제정을 통한 범 사회운동의 제창을 통하여 교회가 사회속의 희망의 등대가 됨을 알게 될 것이다.

- ① 생명이 움트는 부활절기를 청계천이 살아 흐르는 감리회관 광장에서 감리교 성도와 목회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나눔잔치로 만든다
- ② 천주교의 “내 닻이요” 운동처럼 범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몇가지의 시대적 윤리와 가치를 담아내는 감리교가 제창하는 사회규약을 만든다.
- ③ 〈희망의 집〉운동을 통하여 감리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희망의 집〉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고, 감리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에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는 교회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격려하여 발전시켜나감으로서 사회선교 각 기관이나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연결점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 2) 농촌 및 환경선교

### ① 농촌선교

- 2006년 여름에는 감리교 도시 교회 청년들이 충청도 일원의 농촌교회로 여름성경학교 지원 및 지역봉사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가교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 2007년에는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자매결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선교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 문화일보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사일촌” 운동이 감리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 ② 환경선교

감리교 희망프로젝트에서는 녹색교회 운동을 제창하게 되는데 환경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에 대해 범교회적인 캠페인과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생명밥상빈그릇운동’이 전교회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환경선교주일을 통하여 다시한번 전교회적으로 말씀교안과 학습교안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각 연회별 지방회단위로 환경선교위원회의 설립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아갈 것이다.

## 3) 에큐메니칼운동의 활성화

4년전임제 감독회장의 위상이 에큐메니칼 현장에서 원숙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감리교단이 주관하여 먼저는 형제 교단이라고 하는 성공회와 구세군이 연합하여 일정한 포럼이나 사회봉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에큐메니칼 위원회를 통하여 감리교 에큐메니칼 지도력의 후원 및 발굴 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 4) 평화통일선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민족적인 과제로 보듬어 안아야 할 가장 큰 기도제목이 평화통일 선교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의 긴장된 기류속에서 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일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평화통일위원회를 좀 더 확대 개편하여 그 위원회가 사업구상을 계획하여 각 연회별, 지방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5) 기관선교

감리교 희망프로젝트의 실천과제중에 〈희망의 집〉 만들기 운동이 있는데 이는 사회선교 각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와 축적된 결과들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기관의 실천 과업들은 독립적으로 보장하되 그 명칭은 〈희망의 집〉으로 통일하여 감리교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6) 소외자선교

감리교 희망프로젝트의 중심축은 소외된 자들에게 초기 웨슬리안들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주는 것이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더불어 이주민들의 현실적 적응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 사회적 프로그램이 척박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의 교회들이 연대하여 공동 문화 적응 프로그램이나 한글학교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관한한 비장애인들과의 동정이나 이해심에 의한 일정한 도움을 주는 차원의 선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대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 비장애인들이 일정하게 꾸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델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장애인재활센터)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환경선교 위원회	권중호	문선경 박순웅 김정권 이종명 신석현 정학진 이진현 최만석 김영웅 류자형 김기석 이정배 송규의 박정민 정창석
장애인선교 위원회	추연호	김고광 이상원 김종순 구자경 유홍주 김종훈 지성래 장병호 최대원
에큐메니칼 위원회	황문찬	방원철 진광수 김종구 박만규 이충재 최소영 신복현

## “농촌 도시 사랑나눔 1교1村(일교일촌) 운동”

신복현 목사

### I. 서론

미국의 유명 침대업체인 ‘슬립컨트리 USA’의 최고경영자(CEO) 짐 케일리는 지난해 봄 캘리포니아의 한 고객으로부터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 내용은 “당신네 침대를 사느니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게 더 나을 수 있다(중략). 그러나 당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펼친 봉사활동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당신 회사의 침대를 구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희망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감리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희망의 실체가 되는 범교회적 운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제27회 행정총회에서 통과된 희망프로젝트는 “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회간, 목회자간, 도농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 실천 과제로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교회의 아픔을 도시교회가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과정에서 도시교회는 생명존중과 나눔의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농촌-도시 상생프로젝트를 다루고자 한다.

### II. 본론

최근 한·미 FTA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이 확실한 농촌은 시름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작 18.5%의 인구가 거주한다. 어떤 군에는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다는게 화제가 되는 현실이다. 우리 농촌의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 비해 소득도 적고 고용기회도 부족한 농촌은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범사회적 국민운동이 문화일보사 주관아래 “1社1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 1) 1社1村운동이란?

한 기업체가 농촌의 한 마을과 1村 결연을 맺음으로써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또는 다량 구매하는 것은 물론 그 기업의 사원들이 여름휴가나 때를 따라 가족단위나 회사단위로 농촌 체험을 하는 생명나눔 상생 공동체 운동이다.

### 2) 1社1村운동의 대사회적 파급효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에 따르면 올해까지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LG전자·SK(주) 등 국내 10위권 대기업들이 모두 1사1촌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30대 대기업의 참여율도 86.7%에 달한다. 1사1촌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삼성그룹의 경우 거의 전 계열사가 1사1촌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에 퍼져 있는 사업부와 지점이 농촌마을과 각각 결연하는 ‘1사다촌(一社多村)’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예술·환경·문화·복지 등에 치우쳤다”며 “그러나 문화일보가 농협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1사1촌운동을 계기로 ‘농촌’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선진국 기업들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삼성그룹은 지난 2003년, 2004년 두 해 동안 연평균 3억달러 정도의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미국에서 사회공헌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마트의 1억 1980달러에 비해 3배 수준이다. 월마트의 매출이 삼성의 2배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6배에 달하는 수준. 또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주) 등도 미국 조사기관인 KMM의 ‘세계기업 CSR 평가’에서 평점 80점 이상을 받으면서 유럽 기업의 평점 75점을 추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LG필립스LCD, LG화학, 한화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등은 CSR에 주력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친환경 경영에 주력하면서 ‘CSR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3) 감리교 희망프로젝트로서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敎1村 운동”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敎1村 운동”의 의미

감리교 농촌교회는 대부분이 미자립교회이다. 국내선교부에서는 미자립교회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중이지만 농촌교회는 그나마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여전히 미자립일 수밖에 없는 여건적인 미자립교회가 대다수이다. 결국은 누군가의 형제애적 나눔이 있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이제까지는 개별적 목회자의 목회적 대인

관계의 다소에 따라 그 형편의 정도가 달라왔지만 대다수의 목회자와 농촌교회 및 농촌지역은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범사회적 운동인 일사일촌 운동을 전용하여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일교일촌 운동”으로 일으키고 확산시킨다면 그 파급 효과는 감리교회가 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몇몇할 것이다.

## ② 청년들이 앞장선 농촌교회 살리기

“2006 ‘농촌 - 도시 사랑나눔을 위한 청년 체험수련회’

선교국과 교육국이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와 함께 지난 8월(1일-5일) 공주,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온양, 홍성 등 충남지역에서 “농촌-도시 사랑나눔을 위한 청년 체험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동제일교회(담임:조영준 목사) 젊은이교회(담당:김종구 목사)에서 5년 전부터 청년들의 여름 수련회를 충남 부여,논산 일대의 농촌교회에서 자비량 여름성경학교 진행과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것을 몇몇 도시교회가 더불어 함께 함으로 조금 더 확산된 것이다. 정동제일교회 젊은이교회는 백여명의 청년들이 10여 농촌교회를 10개 팀이 나뉘어 여름수련회를 농촌교회에서 진행함으로써 자비량으로 여름성경학교 개최는 물론이거니와 어르신 영정사진 찍어주기와 각 마을마다의 일손이 부족한 봉사활동을 잘 감당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찬이 수년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회적 여름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동교회와 농촌교회를 매년 번갈아 가며 추수감사절 공동행사도 풍성하게 진행하고 있다. 물론 때를 따라 그 교회들의 농촌 특산물을 정동교회 여선교회와 젊은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수매하기도 한다. 2007년 여름을 위해서 선교국과 교육국 및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와 함께 2006년 당회전에 도시교회가 내년 여름 청년 수련회를 농촌사랑나눔 수련회로 계획해 줄 것을 공문 및 여타의 작업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감리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간에 청년층뿐만 아닌 장년들과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교회차원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교1촌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③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교1촌 운동” 추진 과정

- 가. 희망프로젝트 실천본부에서 총회실행위원회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교1촌 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전국교회 확산을 위한 지원 및 이를 위한 농촌선교주일 제정을 건의한다. 농촌선교주일은 가급적 모내기가 시작되는 상반기중의 한 주일로 한다.
- 나.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전국교회에 발송한다. 이때 타임즈와 기타 교계언론 및 일반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들을 초청하여 자세한 운동내용을 설명하며 홍보한다.



- 다. 10개연회 도시지역 지방회와 10개연회 농촌지역 지방회가 지방회 차원에서의 자매결연을 맺는다.
- 라. 위 지방단위의 자매 결연 이후 그 지방과 지방끼리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1敎1村 운동을 추진해 나간다.
- 마. 신설된 농촌선교주일에 전국교회가 동시에 감리회 본부에서 제작한 예배문에 의해 농촌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농촌교회나 도시교회중 서로가 합의된 한 교회에서 두 교회 교인들이 연합하여 자매결연 선포예식을 축제적으로 진행한다.
- 바. 자매결연 첫해의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중심의 여름수련회나 장년선교회 단위의 수련회를 자매결연 농촌교회나 그 지역으로 가서 여름성경학교및 제반 일손들을 사랑으로 나눈다. 장년들의 여름수련회 장소로 적합하지 않을 때는 남,녀선교회의 특별 윌레회나 선교지 방문 행사등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다. 추수감사절기에는 도시교회가 농촌 교회를 초청하여 농촌교회의 수확물들을 교회 바자회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가칭 “추수감사절 축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 사. 한해 두해 결연의 정이 쌓여가면서 점차적으로는 농촌교회만을 돕는 차원의 도시교회의 나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농도공동체 문화 확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III. 결론

사회운동으로서의 “1社1村 운동”은 2006년 한해 서울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한 사람이 50만명을 넘어섰다는데 그중 공무원 자원 봉사자들의 수는 다른 직종이나 회사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한다.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일 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 또한 이와 같다는 비평들이 이곳 저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도시교회들만의 웰빙 잔치’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현격한 규모의 차이 만큼이나 그 정서적 거리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도시교회가 농촌교회 몇 교회를 월 얼마 정도 선교비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외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社1村 운동”이 교회에서 먼저 주창되고 실천되었다면 굳이 새로운 희망프로젝트를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아도 되

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감리교회의 새로운 희망프로젝트중 상생목회로서의 희망교회운동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교1촌 운동”을 통해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각각의 지역에도 상생하는 생명공동체의 희망찬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세상은 감리교를 향하여 희망을 주는 신앙공동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 국외선교부

· 부장 김영주 목사

### 1 업무추진방향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한국 감리교회의 자부심과 저력이 확인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감리교회는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높아진 선교적 위상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이루어 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희망프로젝트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슬로건 하에 세계교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복음의 세계화와 세계선교의 영향력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리교 국외선교가 바람직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적 선교방식은 지양하고 통일된 선교정책과 구조 속에서 효율적인 국외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선교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선교방식과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상황에 맞는 대외교류 협력과 동반자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는 다음의 3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는 통전적 선교로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행방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모범을 따르는 것과 웨슬리의 영혼구원과 사회적 성화의 총체적 선교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반자적 선교로서 타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선교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점점 다원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선교방식도 다각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교지의 다양한 선교전략을 모색하여 사역의 방향이 선교지에서 새롭게 구현되어야 한다.

국외선교의 중점적 정책은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과 연개된 세계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하며, 내부적으로는 지역선교사대회를 활성화하여 10/40창을 중심으로 미 과송선교지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하여 훈련을 통해 적재적소하게 파송하여 협력선교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사관리, 사역관리, 복지관리, 자녀관리, 비상사태 관리 등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고 가동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선교사관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선교사지원자를 위한 선교훈련 역시 선교사훈련정책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커리큘럼을 통일,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실시 추진과정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양성하는 현장감이 있는 훈련프로그램과 정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선교지에서는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더 현장의 선교사역들은 풍성하고 다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현황

### 1) 지역별 선교사파송현황

(2006년 11월말 현재)

지역	동남 아시아	동북 아시아	필리핀	인도 차이나	서남 아시아	중동	러시아	중앙 아시아	아프 리카	오세 아니아	중남미	북미	동유럽	서유럽	합계
선교사 수	66	208	66	53	83	25	20	25	55	27	19	9	19	1	676
비율	1%	30.7%	1%	7.8%	12.3%	3.7%	3%	3.7%	8.1%	4%	3%	1.3%	3%	0.2%	100%

### 2) 연도별 선교사파송 증감현황

(자료근거 : 2005년 본부 정책자료집 국외선교 약사와 현황 / 단위:가정)

	1903	1961	1965	1967	1970	1971	1972	1977	1980	1982	1983	1984
선교사	1	3	2	1	1	1	2	1	1	1	1	6
증감율		0.5% (2)	2.7% (-1)	0.9% (-1)	1.2% (0)	1.0% (0)	0.6% (1)	2.7% (-1)	2.8% (0)	% (0)	% (0)	0.8% (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선교사	4	6	4	9	9	20	39	47	55	29	30	40
증감율	% (-2)	% (2)	% (-2)	% (5)	% (0)	% (11)	% (19)	% (8)	% (8)	% (-26)	% (1)	% (1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교사	49	26	28	41	29	44	43	46	47	11		
증감율	% (9)	% (-23)	% (2)	% (13)	% (-12)	% (15)	% (-1)	% (3)	% (1)	% (-36)		

### 3) 자격별 선교사 수

(2006년 11월말 현재)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명예선교사	협동선교사	합계
선교사	356	302	8	4	6	676
비율	52.7%	44.7%	1.2%	0.6%	0.9%	100%

### 4. 성별 선교사 수

	남	여	합계
선교사	348	328	676
증감율	51.5%	48.5%	100%

## 3 주요업무

### 1) 국외선교 정책수립

#### ① 주요정책

#### 가. 국외선교 전반에 관한 장단기 기본 정책 수립

향후 4년간의 종합적인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나. 선교권역별선교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

각 선교권과 문화권에 맞는 선교정책 수립을 위해 선교보고와 각 선교지 연구와 정보수립을 강화하고 지역선교사대회를 실시한다.

#### ② 주요 업무 및 행사

#### 가. 선교사대회

격년으로 선교국과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선교사대회가 열린다.

#### 나. 선교정책협의회

- 대상 : 선교후원교회 및 단체 대표, 선교국위원, 지방 감리사 및 선교부 총무
- 시기 : 연2회
- 방법 및 내용 : 1회는 세계선교협의회와 공동으로 세계선교 중심으로 개최하고, 1회는 선교국 정책설명회로 신임 감리사와 지방 선교부 총무 중심으로 개최한다.

### 2) 선교사 훈련과 인준

#### ① 주요정책

#### 가. 선교사 훈련과정의 단계적 통일

현대 7개 선교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통일화하고 훈련원들을 평신도, 문화권별로 세분화하여 전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추진한다.

#### 나. 정책적인 선교사 파송 및 재배치

선교사가 우선 요구되는 지역과 미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파송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선교지 연구와 선교사역을 위한 선교전략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② 주요업무 및 행사

### 가. 선교사 훈련 정책 협의회

- 시기 : 연2회(2월, 8월)
- 참가대상 : 선교사훈련정책협의회(7개 선교훈련원 원장 및 실무자)
- 내용 : 선교훈련원 간의 커리큘럼과 운영정보를 교환하여 기준에 맞게 통일화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정책을 협의한다.
  - 선교 훈련과정 전문화와 통일작업 협의
  - 통신 교육과정 확립
  - 훈련원생 평가제도

### 나. 선교사 지원자 집중훈련

- 시기 : 7월 첫째 주(약7일간)
- 대상 : 선교사 지원자 및 배우자
- 주요내용 : 행정교육, 실기훈련, 영성훈련, 공동체 훈련 중심

### 다. 선교사 인준

- 시기 : 연2회(1월초, 9월초)
- 대상 : 감리교선교사 인준 지원자
- 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준

### 라. 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은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 파송원칙을 세우고 있다.

- 현지교회와의 선교협력에 따라 선교사 파송 요청을 받은 지역
- 미전도 지역 및 선교사 미 파송지역
- 선교사 파송 요청지역(선교사 단독 또는 소수 파송지역)
- 기타 선교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천하는 파송지역
- 선교사 철수 지역

#### A. 선교사 파송시기

- 교역자(정회원) 선교사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 수련선교사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부임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40시간은 수련선교사 기간 동안 이수토록 한다.)

- 평신도, 전문인, 명예, 협동선교사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 B. 선교사 파송예배

- 본부 선교국과 상의하여 파송예배 일정을 정한다.
- 선교사계약서 4부, 선교사 서약서, 상해보험증서 사본, 파송예배순서지등을 선교국에 제출한 후 파송장 발급요청을 한다.

### 3) 선교사 행정관리

#### ① 주요정책

##### 가. 각 나라별 선교사 관리 정착

이미 조직된 각 나라별 선교사회가 활성화를 이루고 선교사들 간의 선교협력과 정보 교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

##### 나. 지역별 선교사대회

지역별(14개지역)선교사대회를 개최하여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선교사들의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하며 선교사 및 선교지 실태조사를 통하여서 현장의 필요에 걸맞는 선교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다. 선교사 관리와 보고의 전산화

선교사 행정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 ② 주요 업무 및 행사

##### 가. 선교사 행정관리 위원회

- 시기 : 2007년 9월 중
- 대상 : 선교사 행정관리 위원장 및 위원, 선교국 해당 직원
- 내용 : 효율적인 선교사관리를 위한 행정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한다. 인가관리, 사역 관리, 자녀관리 그리고 비상사태 관리에 대한 세칙을 결정한다.

##### 나. 지역선교사대회

- 대상 : 각 지역별 선교사 및 가족, 선교국 관계자, 후원교회 대표
- 목적 : 선교정책 수립, 선교사 관리 네트워크 확립, 선교사재교육, 영적 재충전

##### 다. 선교사자녀 수련회

- 목적 : 선교사 자녀들의 재교육과 모국 방문 기회부여
- 시기 : 8월 중
- 내용 : 해외 목회자 자녀 교육프로그램으로 초교파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실시

#### 라. 선교사 자녀(MK) 교육 정책을 위한 소위원회

- 목적 : 선교사 자녀들이 자국민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국제인으로 자라가도록하며, 아울러 차세대 선교사로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질적, 인적 지원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기 : 8월 중
- 내용 : 해외 목회자 자녀 교육프로그램으로 초교파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실시

#### 4) 선교사 복지

##### ① 주요정책

##### 가. 선교사 복지제도 정착

선교사 보험, 건강진단, 안식년과 선교사 재교육 같은 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착을 위해 힘쓴다.

##### 나. 연회와 지방 차원에서의 선교사 복지 지원 홍보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연회와 지방 차원에서 선교사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협의회와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 ② 주요 업무 및 행사

##### 가. 선교사복지위원회

선교사 상해 및 의료보험, 건강진단, 질병 예방지원, 선교사 귀임과 해외보험 전환, 수술 및 고가 치료 시 절차, 복리후생 기금조성, 공동기금 조성에 관한 선교사 복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나. 세계선교센터 마련

장기적으로 선교박물관, 선교훈련센터, 은퇴선교사를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세계선교센터의 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 다. 감리교 잡지 및 선교 소식지 발송

선교사들에게「기독교세계」,「강단과목회」,「신앙과교육」,「기독교타임즈」,「뉴스레터 "Mission.com"」 등을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 라. 선교사 건강진단 및 치료비 지원

연회 시 입국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후원한다. 아울러 선교사역 중, 사고와 수술등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 마. 선교사 성탄 선물

성탄 절기에 카드와 목회수첩, 달력, 선물을 발송하며 격려한다.

## 5) 대외 선교 협력 - 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 ① 주요정책

#### 가. 현지교회와의 협력

선교사들은 현지교회와 한국 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교 역할을 감당하여야한다.

#### 나. 현지 교회나 교단이 있는 경우 협력사역을 적극적으로 수행

- 현지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교회 개척 및 건축
- 선교지 개발 및 자원 확충
- 선교지 정보 수집 및 홍보
- 전략적 선교 정책 수립

### ② 주요 업무 및 행사

#### 가. 선교협약

- 대외 선교협약은 선교국에서 감독회장 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 선교사를 돕는 기구로서 현지교회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의 선교협약이어야 한다.
- 대외 선교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협력 선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교협약이어야 한다.
- 장기적인 선교를 위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교협약이어야 한다.
- 한인 및 현지인 선교를 수용할 수 있는 선교협약이어야 한다.

## 6) 국외선교 홍보 및 활성화

### ① 주요정책

#### 가. 선교홍보 자료의 배포를 통한 국외선교 홍보 강화

국외선교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선교 홍보를 강화하고 선교 정보자료로 활용한다.

#### 나. 국외선교 자원 조기 발굴 정책 추진

우수한 선교사 자원을 조기에 발굴하는 선교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다. 후원교회 및 단체에 대한 선교 홍보와 협력 강화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며, 선교후원 교회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 ② 주요 업무 및 행사

#### 가. 3개 신학대학 선교학회 선교세미나 개최



- 시기 : 4월 중
- 참가자 : 세계선교협의회 임원, 3개 신학대학 선교학회 회원
- 내용 : 선교사 자원의 조기 발굴을 위한 선교정책 설명회와 선교지 소개를 통한 선교 비전을 갖게 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결단케 하는 영성집회도 개최한다.

나. 뉴스레터 “Mission.com” 발간

- 시기 : 11월 중
- 내용 : 국외선교 정책 및 선교사 관기규정, 선교사 보고, 선교단체, 선교하는 교회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세계선교의 종합 뉴스를 통한 격려와 자극이 되게 한다.

다. 2006년도 선교사 자료집 발간

년간 선교지로부터 도착한 선교보고를 나라별로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며 역사자료실에 보관하여 사무 및 행정을 위한 각종 자료로 삼는다.

라. 2007년도 선교사 주소록 작업

매년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선교사 주소록을 재검토하고 변경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주소록을 정리한다.

마. 본부 선교국의 기능 강화

- 교단 산하의 전 교회의 선교 동력화  
해외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의 수를 파악하여 선교를 동력화하고 또 참여하는 교회도 열의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교회도 많이 있다.
- 선교동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 중보기도 운동
  - 출판(국외선교뉴스레터), 영상, 인터넷, 평신도선교훈련, 홍보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교사 인준		
선교사 훈련정책		
선교사 행정관리		
선교사 복지		
대외선교 협력		
해외선교단체		

## 선교사 자녀교육을 통한 희망 나누기

김영주목사

### I. 서론

2005년 11월 16-18일 강화예수마을에서 있었던 제5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기총이 주최한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에서 2030년에는 한국정예선교사 100,000 명 파송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0,000 명 선교사 파송이면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 이하 MK)수도 100,000 여명을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 선교사수는 13,000 명에 이르는데 한국 MK수가 10,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MK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 신앙인으로서 전문적인지식과 리더십과 인격을 갖춘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토록 한다.”라고 1994년 11월 4일 KWMA MK교육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 전 세계 71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2006년 11월 말 현재)하고 있고 교민선교 목회자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선교사의 자녀들의 수도 1,000여 명에 육박한다고 간주할 때 MK사역의 필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MK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좀 살펴보고 세계로 나가는 감리교회의 희망프로젝트를 전개함에 있어서 MK 사역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는 보다 효과적인 선교의 인적자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는 선교사들이 사역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는 자녀교육 때문에 짊어지는 고민을 돕고자함이며, 넷째는 21C의 제2의 선교도약기를 맞아 아직도 남은 미전도 6000종족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 II. 본문

### 1) MK 그들은 누구인가?

데이빗 폴록(David Pollock)은 제3문화 아이들(TCK-Third Culture Kid)이라고 정의한다.

성장기의 대부분을 부모님의 고국 문화 밖에서 보낸 아이들로서 모든 문화에 다 잘 적응하나, 어느 문화에도 전적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갖는 아이들로 정의한다. TCK라고 할 때는 MK외에도 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교민들 자녀들을 포함한다. 이중에서도 MK들은 특히 타문화 생활과 잦은 이동을 경험한다는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기도 하지만, 정체성의 혼돈, 타문화 충격에 의한 상처와 이별의 슬픔에 대한 정서적 필요들과 일관성이 없는 교육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또한 갖게 된다.

한국 MK들은 영어권 내지는 서구권 MK들과는 다른 특징과 여건을 갖고 있다. 한국 MK 전문가의 부족과 현지의 열악한 교육여건, 이중 언어 이슈, 부모교육의 부족 등으로 한국 MK들은 서구권 MK에 비해 더 큰 도전을 안고 있다. MK들의 전체적인 건강 도는 가족의 건강도, 부모의 선교지 적응 정도나 선교지의 변화, 기타 학교나 지역의 이동빈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초기 정착과정까지의 잦은 이동, 교육여건이 미비한 미전도 종족 교회개척 중심의 사역, 재정적인 불안정, 안식년을 어디서 보내는가 등에 따라 MK들의 성장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MK의 일반적인 특성과 한국MK로서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며 다양한 경험과 역사를 지닌 한 개인으로서 MK복지를 소중히 여기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10번 이상 이사를 다니면 자녀들이 재적응하는 데 의욕상실과 좌절로 인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2) 현재 MK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 ① MK 진단

현재 1,000 명에 이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의 대부분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왜 많은 선교사들이 도시에 몰려 있을까?” 를 가감 없이 선교적 차원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본부 파송 선교사들과 MK들이 선교지에서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000명 이상의 MK들이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자라게 될 때 이 MK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과 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와 영적지도자로 자라도록 누가 다 가르치고 도울 것인가?

21C 선교전략은 “전방개척선교시대”라고 한다. 10만명 한국선교사 파송 소식을 전해들은 해외의 어떤 국제선교부에서는 ‘그들 ‘한국MK들’ 을 누가 다 가르칠 것인가?’ 하고 우리보다 한국MK교육에 대하여 먼저 염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MK교육 사역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89년 1월 1일부터 여권자유화로 한국선교사들이 물밀듯 세계 속으로 빠져 나갈 때로서 큰 선교단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한국MK들을 가르칠 한국MK교사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데만 신경을 쓸 때 그들은 선교사자녀교육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오랜 선교역사 속에서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교육문제까지 걱정을 했고 지금도 세계 속에서 국제 선교부에서 세운 MK학교나 국제학교(실은 MK학교이다)에서 한국MK들이 혜택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는 현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와 한국MK학교에 다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이 현 실정이다.

한국선교가 미숙한 채로 출발하였으나 어느 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한국선교사 파송국으로 세계에서 제2위에 속한다고 한다. 이렇듯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선교 제2의 시대를 맞아 경험 부족과 시행착오에 의한 재정, 인력, 시간낭비를 줄이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잃어버린 남은 6000종족의 영혼들을 향하여 마지막 추수꾼의 심정으로 보내는 자나 가는 자가 준비되어 나가야 한다” 고 소리를 높여 외치는 작금에 상기의 지고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선교사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우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국제선교회도 자녀가 선교지에서 부모와 또는 곁에서 (같은 나라에서) 영, 육 간에 잘 자랄 때부터 선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우선 아이들은 어리니까 선교사 지원부터(CARE)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내보낸다면 어느 날 탈락한(낙오) 자녀 때문에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 가족들을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더 큰 부담을 보내는 쪽이 지게 될지도 모른다.

## ② MK교육에 등한시한 사이 가져온 세 가지 문제

첫째, 선교사의 인력을 낭비한 것이 되었다.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전진 배치되지 못하고, 자녀교육이 가능한 도시지역에 머물다 보니 실제로 사역에 헌신키 어려웠고, 선교사의 인력을 낭비한 것이 되었다.

선교사가 대도시에서 거주하게 되면, 정작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관문도시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없다. 선교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본을 보이는 것인데, 거대도시에서 머물면서 가끔 사역지로 정한 지역

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는 사역의 알찬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미래의 인력을 낭비한 것이다. MK는 부모보다 빨리 배운 언어로 현지 아이들과 접촉하여 전도의 매개체가 되며, 부모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요, 한국교회 장래의 유능한 선교 자원인데도,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국적 없는 사람으로 방황하게 했으니, 미래의 인력을 낭비한 것이다.

소중한 MK들을 잘 가르치면 대를 이어 사역할 유능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부모에게 보상이 될 수도 있으며, 국제화 시대의 한국의 첨병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도리어 선교사인 부모의 마음의 부담이요 사역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은 부모가 아닌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들을 미래의 한국선교의 자원, 한국의 미래 역군으로 길러야만 한다.

셋째, 막대한 선교비를 낭비한 것이다. 보내는 선교비를 선교사역에 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녀교육에 투입하도록 방임하였으니, 한국교회는 결국 막대한 선교비를 낭비한 것이다. 국제학교의 교육비는 중고생 1인당 연간 5천불 내외로 들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이면 1년에 공식 비용만 만 불이 넘고 생활비, 용돈을 합하면 월 2천불 정도로 지급되는 선교비의 거의 전부가 교육비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역비 없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그들에게서 과연 선교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가 교사선교사를 이미 세워진 서양MK학교에 파송하기만 하여도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MK문제를 외면하고는 지금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힘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3) 전망하는 MK 교육 정책

#### ① 전체적인 방향

선교사 자녀들이 자국민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국제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며 아울러 차세대 선교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 ② 선교사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금까지 선교사 자녀 교육비에 대한 항목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비에 통합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선교사 부모가 받게 되는 생활비에서 배분하여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각 나라 선교사회별로 자녀 교육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활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자녀 교육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

의 현황과 그 액수도 파악하여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본부 선교국 산하에 MK(선교사 자녀)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선교사 자녀 교육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 까지 지원할 것인가?(유치원부터, 초등,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학비(금액)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 학교에 기준할 것인가(학비+기숙사비포함) 그리고 타 교단 정책과 비슷하게 또는 같게 할 것인가? 혹은 학년 별 차등은 어떻게 둘 것인가? 다음은 학비 지원 대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파송교회가 책임질 것인가? 파송기관(선교단체)이 책임질 것인가? 혹은 학부모가(선교사)가 지원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닌 선교지국으로 대학을 갈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밀하게 규정짓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시급함으로 선교사자녀관리 세칙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에 MK이해와 교육지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

의식과 인식의 변화는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가능하다.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하여 후원교회와 선교단체를 초청하여 MK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지방회와 연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전국 감리교회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도록 홍보해 나가야 한다. 이 운동이 추진 되기 위해서 선교사 자녀교육 및 관리를 위한 선교기금 조성을 위한 1인 1개의 선교저금통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지방회와 연회가 관장하여 본부차원의 정책이 잘 협력되어야 한다.

#### ④ MK를 위한 현지학교 및 기숙사마련(지원)

문화권 혹은 지역별로 선교사자녀학교와 기숙사를 현지에 마련해야 한다. MK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 같은 기숙사를 세계요지마다 설립, 운영되도록 MK 현지학교 및 기숙사 마련을 위한 추진 위원회가 지방회를 통해 연회로의 확산운동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선교사의 전진배치와 MK 정체성 확립을 도울 수 있다.)

#### ⑤ 전문 MK교사 및 기숙사 사역자 발굴, 양성, 훈련, 선교현장으로 파송

기존 선교사 지원자를 위한 선교훈련에 준하는 과정을 채택하되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을 겸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영성훈련을 기초로 하여 기초영어학습, 공동체 훈련, 타문화 적응 등의 훈련을 개설하여 진행하는데 선교훈련정책위원회를 소집하여 MK교사를 발굴, 양성, 훈련하기 위한 세칙을 마련하고 모집 공고를 내서 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방회 중심으로 지역교회에 홍보하여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교사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고 파송을 해야 한다. 국외선교주요정책의 지도력개발과 전문인 평신도선교사 파송 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부득불 현지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MK학교에 한국인 교사선교사를 파송하여 운영에 동참시킴으로 우리 MK들도 동일한 자격으로 공부하

게 하는 세척도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MK들의 자부심과 학비절감에 효과)

#### ⑥ 재택학습(Home School) 추진

선교지에서 자국어 이외의 언어를 매개체로 공식 교육을 받는 경우 재택학습을 통해 본국 교과를 보충하도록 해야 하는데 본부에서 교과서와 기타 교육자료 및 교사를 파송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MK위원회와 선교단체들이 협력되어야 한다.

### III. 결론

SIM 국제 본부 MK 책임자인 도로시 헤일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MK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첫째는 국제학교에 한국선생님들을 보내 달라. 둘째는 한국선교사 가족들(MK포함)이 한국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책들, 잡지 등을 보내 달라. 셋째는 안식년 때 MK들이 특별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지원해 달라. 넷째는 자녀들이 특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달라. 다섯째는 MK선생들과 기숙사 담당자들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과 상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지역교회들의 선교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이루어 MK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MK 사역을 통해 기대되는 열매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미래 한국 감리교회의 세계선교의 제2의 도약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전략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MK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들은 필요한 피선교지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전방개척선교의 열매가 기대되며, MK들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미래의 유능한 지도자, 선교사로 자라날 것이고 지역교회의 선교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낭비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의 진행과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선교를 기피하고 있는 80%의 교회 포함)이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MK 사역 이야 말로 세계선교를 통한 희망프로젝트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MK교육의 문제는 총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기존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선교관계자들의 의식의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MK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은 본부의 정책과 더불어 실제적인 계획수립과 추진 주체인 지방과 연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한 선교단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선교국 국외선교부에서는 선교자원 개발과 지도력을 강화를 주요 선교적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MK교육의 문제는 세계선교 동력화를 이루는 차세대 선교 패러다임이며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교육국



## 총무 인사



총무 김두범 목사

하나님의 은혜가 5천 7백여 감리교회와 150만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 11월 초 제19대 교육국 총무로 취임하여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에 서고 보니 암울한 교육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과거 열악했던 사회 환경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적 희망과 문화적 기쁨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심어주었던 교회교육은 우리 감리교회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급변하는 사회를 교회교육 환경이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차세대에게 진정한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는 자랑스런 역사를 회상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대적 과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2세, 3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907년 한국 교회에 불붙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하여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7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최우선 정책으로 교사들과 젊은이들의 잠자는 영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인 ‘희망 투어’와 발맞춰 교육국 총무가 전국을 골고루 순회하며 교사와 청년들을 위한 사명 각성 무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연회 감독님들의 지도와 지방 감리사님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 사업으로 ‘교사 사명자 대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의 영적 리더십을 강화시키므로 감리교회 교육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다 성경 중심적이며 삶에 적용을 강화시킨 각종 교재 발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병행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감리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울러 재임 기간 수행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로서 퇴색해가는 ‘속회 운영’의 새로운 개선책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속회 살리기를 위한 속 깊은 고민과 진정한 대안을 찾아 교회 내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 시키므로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속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회복하여 감리교 부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국의 인력과 예산을 정책 수립 업무에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현재 주관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은 업무상 한계를 느껴 다른 유관 기관들에게 이관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육국의 역량이 전국 감리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정책 개요

본부 교육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한 모든 교인들, 영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각종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구원과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총체적인 신앙교육에도 주력하여 왔다.

먼저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유치부 교재 4권을 완간하였고, 유아 교회 교육을 위한 그 첫 번째 교재를 발간하였다. 아동부 교재 「짜깁 예수님」 8분기 완간하였으며, 후속 교재로 주기도문 교재도 발간하였다. 아울러 중·고등부 교재 「과워 스톰」 12분기까지의 교재 중 8분기까지 계획대로 발간하였으며, 예전과 같이 여름성경학교 교재와 사순절·강림절 묵상집도 발간하여 개체 교회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별히 노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는 사회 상황과 농촌 교회와 같이 아이들은 없어도 노인 교우들은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올해 노인 교육에 우선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이에 어르신 성경학교 교재 개발 2년차로 「아름다운 사람, 죽음과의 대화」 교재와 프로그램을 심도 깊게 개발하여 여름뿐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노인학교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와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주력하여야 할 일 중에서 차세대 양육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에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시에 세계감리교청년지도자대회를 치루면서 청년 리더들이 값진 경험과 지도력을 키웠으며, 청년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봉사하는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일주일」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시도를 하였다. 청소년 법인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해서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여성 정책으로는 전국적으로 목회자 부인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는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2기와 3기 50여 명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감리교 여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리교회 내의 불평등한 구조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통계화한 「양성 평등 지수 통계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평화 교육 차원에서는 ‘제1회 기독교 생명·평화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생소하고 관념적으로만 느껴 왔던 평화라는 주제를 우리의 신앙, 교회교육의 영역 속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반 평화 단체들과 함께 ‘한일국제평화워크숍’과 ‘요한 갈통 초청 평화워크숍’을 진행하여 일반 사회단체들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중점 실천 목표

- 1) 영적 대각성과 영성회복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
- 2) 차세대 비전 세우기(청소년, 청년) 위한 정책 개발 및 훈련
- 3)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청소년·청년교육 강화
- 4) 감리회 정체성 강화를 위한 속회 정책 쇄신
- 5)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6) 희망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성서교육 및 영성 훈련 강화
- 7) 감리교인 영성회복과 경건생활을 위한 교회력에 따른 교재 개발
- 8) 대 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여성, 평화 교육 강화
- 9) 영남선교대회와 병행하는 젊은이 선교 축제 개최

### 2. 국 위원 및 이사

위원장	이기복 감독		
위원	연회	목사	평신도
	서 울	유창진	박희로
	서울남	오봉근	박효진
	중 부	황관하	고희영
	경 기	김철한	권기호
	중 앙	김종인	조영흠
	동 부	최선길	김복출
	충 북	소화춘	한봉수
	남 부	안승철	김진규
	충 청	유재천	홍원표
	삼 남	김진수	황두진
전문위원			

###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 무	1. 교육국 업무 총괄
교회교육부	1. 교회학교 교육정책 연구 2. 계열학교 교육정책 3. 교회학교 교사교육 정책연구 4. 교육사 정책연구 5. 각종 절기프로그램 개발 연구 6. 교회학교 교육교재 개발 7. 교회교육 월간지 「신앙과 교육」발간
학교교육부	1. 계통학교 교육 정책 2. 학원선교 및 학원선교사 정책 3. 장학 사업 정책과 실무 4. 청년교육 및 청년관 정책 5. 청소년 교육 정책 6. 고등·성직 교육 정책 7. 개체교회 사역자 교육정책 8. 국제 교육 교류 및 유학생 교육정책
제자교육부	1. 일반교인 교육정책 2. 임원교육 정책 3. 속회교육정책 4. 등급사경회 교육정책 5. 성경교육정책과 성경교재 발간 6. 가정신앙교육정책 7. 문화교육정책연구개발 8. 여성교육정책 9. 평화교육정책연구 10. 대안학교 지원 정책 11. 홈페이지 관리 및 영상교육 정책

부서	업무
교재개발실	1. 교육교재 발간 2. 계절학교 및 절기 교육자료 발간 3. 속회공과 발간 4. 목회자료 및 목상집 발간

## 4. 발간 자료

### 2006년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교회학교	작광예수님 1분기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영유아부
2	교회학교	작광예수님 4분기		학생용, 교사용	유치부
3	교회학교	주님의 기도		교사용, 학생용, 설교집	아동부
4	교회학교	작광예수님 시리즈 설교집 발간		설교집, PPT CD	아동부
5	교회학교	2006 여름성경학교  “색동 예수님, 색동 마을”	지도자 메뉴얼	여름성경학교 기획자용 교재	지도자용
6	교회학교		유치부	유치부 교사용 교재	교사용
				설교자료집	설교자용
				유치부 학생용 교재	학생용
7	교회학교		아동부	아동부 교사용 교재	교사용
				아동부 학생용 교재	학생용
8	교회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 교사용 교재	교사용
				중고등부 학생용 교재	학생용
9	교회학교	파워스톱8		파워스톱시리즈Ⅱ 예수와신약 ④	중고등부
10	노년부	아름다운 화해 “죽음과의 화해”		노년부 교사용 교재	교사용
				노년부 학생용 교재	학생용
11	일반교인	신앙을 성숙시키는 믿음의 길(성장편)		기초신앙교육교재 지도안	교사용
				성도들의 기초신앙교육교재	교사용
12	일반교인	사순절 목상집		사순절40일간의 목상집	전교인
13	일반교인	강림절 목상집		강림절기간의 목상집	전교인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4	속회 교육	2006속회공과 주제: 하나님 백성의 삶	속회 인도 시 사용하는 교재	인도자용
			속회 모임 시 사용하는 교재	
15	자료집	파워 스톱 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시 교육자료	참석자 교육용
16	자료집	2006년 여름성경학교 정책 자료집	세미나 시 교육자료	참석자 교육용
17	자료집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예배 순서와 자료	목회자료
18	자료집	청년주일 자료집	청년주일 예배순서와 자료	목회자료
19	자료집	성탄절 자료집	세미나 시 교육 자료	참석자 교육용
20	정 기 간행물	신앙과 교육	교회교육 자료	교회학교 교사

#### 기존 발간 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교회학교	유치부 짝꿍 예수님	짝꿍예수님 시리즈 제1학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2	교회학교	유치부 짝꿍 예수님	짝꿍예수님 시리즈 제2학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3	교회학교	유치부 짝꿍 예수님	짝꿍예수님 시리즈 제3학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4	교회학교	유치부 짝꿍 예수님	짝꿍예수님 시리즈 제4학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5	교회학교	예수님이야기	짝꿍예수님 시리즈 1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6	교회학교	창세기이야기	짝꿍예수님 시리즈 2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7	교회학교	예수님의 비유	짝꿍예수님 시리즈 3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8	교회학교	출애굽이야기	짝꿍예수님 시리즈 4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9	교회학교	성령의 교회	작공예수님 시리즈 5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10	교회학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삶	작공예수님 시리즈 6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11	교회학교	하나님과 함께 회노애락	작공예수님 시리즈 7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12	교회학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작공예수님 시리즈 8분기	각각 교사용 · 학생용
13	계절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재들 (유치부, 아동부, 중 · 고등부, 노년부)	당해 연도 발행	교사용 · 학생용
14	중·고등부	파워스톱1 후엠피아이	파워스톱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①	학생용
15	중·고등부	파워스톱2 사용설명서	파워스톱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②	학생용
16	중·고등부	파워스톱3 문화.com	파워스톱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③	학생용
17	중·고등부	파워스톱4 꿈	파워스톱 시리즈 I 정체성과 비전④	학생용
18	중·고등부	파워스톱5 예수를 만난 사람들	파워스톱 시리즈II 예수와 신약①	학생용
10	중·고등부	파워스톱6 예수를 찾아서	파워스톱 시리즈II 예수와 신약②	학생용
20	중·고등부	파워스톱7 예수코드	파워스톱 시리즈II 예수와 신약③	학생용
21	일반교인	신앙을 성숙시키는 믿음의길(확신판)	성도들의 기초신앙교육교재	학생용, 교사용
22	일반교인 교 육	알고가는 믿음의 길 세례문답집	새신자 교육을 위한 교재 세례 문답할 내용	
		세례문답 해설서	세례자 교육 교재	
23	임원교육	섬기면 봉사하는 집사와 권사	신천 집사 교육용 교재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	신천 장로 교육용 교재	
		장로고시 문제집	신천 장로 고시용 문제집	
		임원 지침	임원에 대한 일반적 교육 교재	
24	성경교육	제자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교재	
25	등급사경회 교육	말씀과 함께(성경연급1-6)		교사용 · 학생용
		말씀과 함께(특별반1-3)	사경회 성경연급후 특별반교재	
		말씀과 함께(전도 특별반 교재)	사경회 전도 특별반 교육교재	
26	속회교육	속회공과	속회 모임 시 사용하는 교재	



## 5. 각 부 정책

### 교회교육부

· 부장 이화식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감리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 속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출애굽의 공동체를 이루어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면, 감리교교육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역동하는 힘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속에 한 알의 겨자씨가 살아 숨을 쉬며, 힘차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감리교교육의 사명이다. 이것은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혁명적인 사건으로 나타 날 것이다.

2007년의 교회교육정책은 새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체제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기본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다. 새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회교육의 내용을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필수적 과제이며, 교육체제의 혁신은 이미 너무 많이 변화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복음과 기독교적 삶이 가장 빠르고 쉽게 체험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교회의 교육적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주는 것으로 간과될 수 없는 교육정책의 과제이다.

감리교회는 그 태생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교육적 교회였고, 오늘 날에도 감리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적 교육체제이다. 최초로 감리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한 대학교 안에서 대안적 지식과 대안적 삶을 학습하며 훈련하기 위하여 모이고 교제하였던 사람들이다. 오늘날에도 모든 감리교인들은 속회의 모임과 흠어짐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복음적 이해와 거기서 도출되는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속회를 중심한 이런 감리교적인 훈련과 삶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감리교적 원리이다.

감리교 원리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과,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통한 학습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교육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감리교교육은 애초부터 지식의 사적 축적을 통한 개인의 신분의 상승기회의 확충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고, 영적각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이며, 성결한 삶을 통하여 사회적 성화와 세상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희망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교육

이었다.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속회와 같은 지역단위 학습 소그룹에서의 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희망 속에 온전히 쓰여 지도록 부르고, 준비하고, 다시 역동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적 교회였다. 오늘의 교회교육정책은 이러한 전통에서 감리교회의 본래적 사명에 보다 더 충실하며, 감리교회의 역동하는 힘을 다시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회적 현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교육적 환경의 무엇이 교회의 사명을 약화 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교회교육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하드웨어로서의 교육체제를 혁신하므로 침체된 교회교육을 다시 살려내고, 세상을 희망으로 이끌어 가는 교회의 역동하는 힘을 다시 넘쳐나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한다.

## 2 현황

연회별 교회학교 통계

연도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영아부	학생	3,854	2,038	3,548	1,551	1,160	954	707	1,383	1,117	361	527	17,200
	교사	384	494	557	252	178	129	102	210	186	71	89	2,652
유치부	학생	6,422	5,289	10,678	6,301	4,372	4,221	2,126	4,004	4,116	1,899	1,692	51,120
	교사	1,071	1,059	1,854	1,027	670	698	320	619	730	306	267	8,621
유년부	학생	8,580	6,364	14,232	8,580	5,892	5,701	2,894	5,444	6,291	3,039	2,446	69,463
	교사	1,065	1,171	2,310	1,295	950	1,060	460	772	985	486	339	10,893
초등부	학생	10,075	6,872	16,214	8,673	6,816	6,001	3,089	6,637	7,299	3,528	2,446	77,650
	교사	1,198	1,181	2,493	1,305	944	1,150	73	981	1,080	510	346	11,261
소년부	학생	6,335	3,347	6,293	3,698	2,720	2,420	1,962	2,175	2,728	1,282	1,289	34,249
	교사	609	509	889	516	364	409	284	339	406	262	174	4,761
소계	학생	35,221	23,910	50,965	28,803	20,960	19,297	10,778	19,643	21,551	10,109	8,400	249,682
	교사	4,327	4,414	8,103	4,395	3,106	3,446	1,239	2,921	3,387	1,635	1,215	38,188
중등부	학생	9,243	6,944	12,694	6,600	4,802	4,704	2,493	5,516	4,731	2,398	1,823	61,948
	교사	891	893	1,438	731	494	672	286	517	476	308	203	6,909
고등부	학생	8,627	5,650	9,865	4,586	3,692	3,315	1,727	4,223	3,241	1,832	1,165	47,923
	교사	851	803	1,204	606	449	519	227	411	382	229	151	5,832
청년부	학생	12,407	11,151	16,923	8,167	5,326	4,565	3,110	7,172	4,201	2,838	2,081	77,941
	교사	566	408	653	404	246	301	151	296	249	169	90	3,533

연도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청장년부	학생	5,261	5,149	10,500	4,495	3,566	4,335	2,936	4,887	3,113	1,904	1,490	47,636
	교사	298	146	409	243	117	234	76	245	219	71	133	2,191
장년부	학생	14,133	14,265	27,094	12,494	9,039	9,554	6,696	13,061	8,499	3,705	3,844	122,384
	교사	497	400	689	398	293	586	181	466	411	187	127	4,235
노년부	학생	2,411	2,113	4,021	1,924	1,385	3,089	1,180	2,789	1,610	880	1,109	22,511
	교사	74	87	128	77	382	127	78	165	119	29	17	1,283

### 3 주요업무

#### 1) 제 4차 감리교교육과정의 개발

##### ① 목적

- 가. 감리교교육의 정체성 정립
- 나. 감리교회의 각 종 교육교재,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과 통일성 제공
- 다. 본격적인 감리교생활실천을 위한 기본, 강화 훈련의 제공

##### ② 2007년 교육과정 개발 업무 기본 메뉴얼

- 가. 제4차 감리교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정리 완성.
- 나. 커리큘럼 디자인을 위한 팀 구성
- 다. 2009년-2014까지 사용될 제 4차 감리교교회 교육과정을 설계.
- 라. 2008년부터는 새로운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한다.

####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① 신나는 분반교실 운영 프로그램

##### 가. 목적

현재 교회학교의 분반 교실은 모임의 시간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형태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현재의 학교형 교실에서 감리교 전통의 속회형의 지역단위 분반교실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의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고, 교사들로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생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하여, 공동체 형의 교육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형 교육체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 나. 기본 방향

· 영아부(1~3세)-유치부(4~5세)-유년부(6~7세)-초등부(8~9세)-소년부(10~11세)  
 현행 감리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교회학교의 부별 조직의 틀 안에서 연령  
 별로 분반을 세분화 하지 않고, 아파트 동이나 단지 별로 묶어서 속회형, 각 부서  
 별로만 구분되는 무학년의 분반교실을 구성 한다 .

다. 교회에서의 분반학습 뿐 아니라, 토요 속회 모임, 지역사회 봉사, 방과 후 학습지도,  
 일촌 맺기 등으로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 자리 잡게  
 한다.

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 속에 하나의 분반 교실을 설립하여, 전도와 교육, 지역사회의 봉  
 사를 실천하여, 분반교실 자체가 하나의 원시 교회와 같은 생명력으로 회복되어 교  
 회를 새롭게 살아나게 한다.

마. 어린이들이 자신의 속한 지역사회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  
 에 깊이 관여 하여, 자신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주체적인 삶을 훈련하  
 게 한다.

## ② 교사교육프로그램

가. 현재 홍보출판국이 보급하고 있는 교사교육 교재는 독습용 교재로서 그 학습 진도  
 와 성적을 통신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의 실제 교사교육은 개  
 체교회나 지방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  
 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과 지방회들의 교사교육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보완  
 하여, 개체교회와 지방회에 권장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할 것이다.

나. 년 간 3-5일 간의 집중교육프로그램과, 독습 자료들을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6년간  
 연속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3년 만에 준 교사, 6년에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  
 하게 하는 방향으로, 평생 교회교육에 헌신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속  
 성 있는 교사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한다.

다. 모범근속교사 수련회는 장기 근속교사들을 격려함을 주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앞  
 으로는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지혜를 모아 후배 교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임. 9월 11~13일.

## 3) 계열학교정책

① 여름성경학교정책설명회를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지도자강습회로 강화하여, 교육국의  
 여름성경학교 정책이 각 지방과 교회에 충분히 소개되고, 동시에 잘 훈련된 충분한 강

사들이 배출 되도록 할 것이다. 9월 3일

② 연회 및 지방 강습회: 5월 말~7월 초

③ 개체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않고, 지방연합 성경학교 캠프를 하는 경우 사용될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 4)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의 개발

① 어린 축구잔치 : 2007년에 제 4회를 맞게 되는 전국 어린이 축구잔치는 개체교회와 지방회의 어린이전도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지방감리사기 어린이 축구 잔치 : 6월초-7월말

연회 감독기 어린이 축구 잔치 : 8월 초-9월 10일

감독회장기 어린이 전국 축구 잔치 : 10월 3일(화요일)

② 주말 전도 프로그램의 개발

본격적 주말 휴무 시대를 맞아, 토요일과 주일을 이어 사회적 체험과 신앙의 체험을 연결시킬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보급한다.

③ 방과 후 교실 운영프로그램

현재 많은 교회들이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전도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회들에 보급한다.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계절학교교육정책	김기택	김순영 김철한 원성웅 김형석 이진희 황문찬	여름성경학교 교육정책연구
교육과정 정책위원회	임영택	여성훈 김홍기 한동구 백은미 신용대 김형석 이성우 하은희 조은하	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현인호	손은영 윤정화 김동주 정연수 추기화 이영미 문지희 박경애 유민정	교회학교각종프로그램 개발연구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유아교육정책	김석순	여성훈 반윤경 이정례 문창숙 김영숙 김숙교 조영신	유아교육정책 연구
농어촌교육정책	이종서	박인환 진광수 이상득 차홍도 한주희 조영훈 이상백 이진용 이효준	농어촌교육정책 연구
영상교육정책	박은국	정혁현 김오성 고창배 문홍일 정기철 김근수 유은식 김현길	영상교육정책 연구
울동위원회	한은실	손은영 안은경 이경희 신영옥 송혜진 지강원 최영희 고영희 이세영	각종울동안무 및 보급
음악위원회	이보철	이천진 김용준 김용화 심명복 최수민 함소영 이은정 안유리	노래와찬양 제작 및 보급
어린이교회정책위원회	손원영	한선이 배준 조은하 김화순 이순애	교회교육 체제 개선 연구
교사교육정책위원회			교사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5 정책소고

### “신나는 분반교실 운영 프로그램”

이화식 목사

#### I. 서론

사람의 몸이 성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세포들이 성장하거나, 또는 세포 분열을 통하여 세포들의 수가 불어나는 결과이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이고, 교회교육의 성장도 마찬가

지일 것이다. 세포들이 활발하게 살아 활동하게 하는 것이 신체 건강과 발달의 요체이듯이, 교회의 작은 그룹들이 활발하게 살아 활동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속회의 부흥과 함께 교회학교 각 부서의 분반교실의 활성화는 오늘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 성장과 성숙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오늘의 교회의 교육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의 하나는 분명히 분반교실의 운영을 혁신하여, 분반교실들이 활성화되고, 세포 분열하듯 더 많은 분반교실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속회와 함께 분반교실은 교회의 핵심적인 조직이다. 더욱이 분반교실은 몸을 지탱하기 위한 체세포와는 달리 지속적인 성장과 번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에 비유될 수 있다. 분반교실을 원래의 교회적 원리와 생존의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은 침체된 교회와 교육적 사명에 생기를 불어 넣어 희망을 주는 교회로 부활하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 II. 본론

### 1) 현실 : 교회교육의 현 주소

#### ① 학교교육 따라 하기

오늘날 교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단연 학교교육 따라하기를 지적할 수 있다. 교회는 근대적 민족국가가 생겨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근대적 국가가 대량의 국민을 국가적 목적에 맞게 교육하기 위하여 대량교육 체제로서 학교교육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교육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의례 교육하면 학교교육을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육하면 교회학교를 연상하게 되었다. 학교는 대량의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에 매우 편리한 체제이며, 대량의 아이들에게 평균적으로 요청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기에는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시행하도록 잘 정비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식과 기술의 자격증을 거래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기능하는 이익집단(Gesellschaft)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올바른 인격교육을 위하여서는 공동체(Gemeinschaft)의 회복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교회가 학교 체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가 교회를 따라야 한다.

#### ② 교실 붕괴 현상

교실 붕괴 현상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학교교육체제를 따르는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학교교육의 현장 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경우는 개교회의 교육적 분위기에 따라서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한 편은 아니다. 개체 교회 현실에 따라 편차가 아주 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학교의 경우 교실이나 교육 보조재료 그리고 교사의 교육준비 상태 등 교육 환경이 일반학교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예배실의 각 모퉁이에서 여러 반이 동시에 분반 공부를 끝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면 교재의 공과 내용을 지식으로 전달하기에 급급하여 함께 공감하는 신앙의 체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실질적인 신앙 교육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분반 공부에 그치기가 쉽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집중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이미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집중시키기란 너무 어렵고 산만한 교실 분위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 2) 대안 : 제자들의 공동체 만들기

- ① 현재 학교의 학년 체계를 따라 연령 별로 구성된 분반교실을 생활 영역으로 구별하여 구성된 속회처럼, 지역단위 분반교실로 편성하는 것이다.
- ② 분반교실의 기능을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단위에서 예배와 친교, 학습과 봉사의 실천 등 공동생활의 나눔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 ③ 아파트나 기타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로 하나의 분반교실을 만들어,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가 지도하며 돌보게 한다.
- ④ 속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분반교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게 하면 더욱 좋다.
- ⑤ 본격적으로 토요일 학교교육 휴무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는 교사나 학생들의 가정에서 모여 성경공부와 지역사회 봉사 등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⑥ 전 교인이 자기가정의 자녀들과 이웃의 자녀들을 하나의 분반교실로 구성하여 돌보며 양육하도록 할 수도 있다.
- ⑦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영아부(1~3세), 유치부(4~5세), 유년부(6~7세), 초등부(8~9세), 소년부(10~11세)로 구성할 수 있으며, 중등부나 고등부를 구성할 수 있다.
- ⑧ 교사는 주일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신의 분반교실 학생들을 인솔하여 함께 교회의 여배에 참석하여 함께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⑨ 교사도 학생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며, 그 은총의 삶에 감사함으로 더 잘 섬기는 교사의 모습을 실천한다.
- ⑩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이웃 사



랑의 정신으로 당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에 분반교실이 참여하며, 학습의 주제로 삼는다.

- ⑪ 분반교실 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예술과 문화 활동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한다.
- ⑫ 마을의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구성원들의 애경사)과 축하할 날들을 분반 교실이 앞장 서서 지역의 속회나 주민 조직과 협력하여 축제로 준비한다. (어린이날 축제, 청소년의 날, 어버이 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잔치 등.)

### 3) 기대되는 효과

- ① 분반 교실이 경쟁적 관계에 있는 또래들의 집단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보완하여 완전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 ② 분반교실 자체가 하나의 원시 교회와 같은 생명력으로 회복되어 교회를 새롭게 살아나게 한다.
- ③ 어린이들이 자신의 속한 지역사회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에 깊이 관여하여, 자신의 학습과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에 찬 삶을 살게 한다.
- ④ 교회는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고 희망 속에 살아 있게 하는 생명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⑤ 전체 교인들이 어린이 목회와 어린이 전도에 참여함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 ⑥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적극 앞장서게 된다.
- ⑦ 교회의 분반교실이 단지 종교적 교육만이 아니라, 삶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예술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신앙을 실천하며, 자신의 재능과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실제적 교육과 준비의 장소가 되게 한다.

## 학교교육부

· 부장 이용윤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7년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정책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다.

첫째 고등성직에 대한 정책 수립 : 현재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걸림돌은 교역자들의 수급 불균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교역자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그 실행을 준비한다. 아울러 3개 신학대학간의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과목 점검 및 학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예비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준비와 정회원 연수 교육의 내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둘째 청소년 교육 : 이 사회와 미래의 희망은 청소년에게 있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하여 [청소년 평화 세상 만들기] 운동 등을 계속해서 적극 전개해 나가며, 2006년 하반기 수탁 예정인 3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며, 3개 수련 시설을 통하여 감리교 이미지 고양에 노력한다. 청소년 인구 감소와 매력을 잃어 가는 교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전환하여 신앙과 문화 사역을 통한 개체교회 청소년부(중·고등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희망찬 감리교회 미래를 지향한다.

셋째 청년 교육 : 다음 세대 감리교회는 청년 선교와 교육에 그 희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 사역을 통한 청년관 활성화, 청년 전문 사역자 양성과 교육, 청년 자체 지도자 양성과 훈련에 역점을 둔다.

넷째 KOMESA 확대 : 미래 평신도 전문 지도력 양성을 위하여 이들이 유학하고 있는 시기부터 영적으로 돌보는 체계인 KOMESA(Korean Methodist Students Association)를 유럽 제3차대회, 미주 지역 지도자대회 등으로 확대해 나감으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희망찬 평신도 전문지도자를 양성한다.

다섯째 학원선교사 제도 보완 :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캠퍼스 선교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학원선교사 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정회원 자원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학교와 지역에 파송하며, 보다 젊은 청년 사역자를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원선교사 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련목회자 등 젊은 사역자들의 학원선교사 파송에 대한 법제화를 연구한다.

## 2 현황

### 1) 계통학교 현황

감리교 계통 중·고등학교와 교목 현황

	학교 수	교목 수
중학교	24	24
고등학교	32	34
계	56	58

## 2) 청년관 현황

지 역	주 소	관 장	전 화
서 울	120-290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1층	김명기	02-734-8501 F)737-5997
경 기	441-84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09-14 동부교회	윤정호	031-233-5642
원 주	220-05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1-12	한석진	033-742-3763 F)033-744-5763
대 전	301-050 대전시 중구 선화2동 85-1 감리교회관 3층	김종민	042-256-4408 F)042-222-2573
부 산	611-07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09 삼남연회 본부	박봉규	051-507-6577
인 천	405-221 인천시 남구 구월1동 1135-12 인천기독교교회관 804호	나선희	032-432-8121 F)432-8128
충 청	330-220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 충청연회 본부	박정민	041-567-0856 F)041-558-9197
경 남	630-819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84-5	최정규	055-252-8229 F)252-8223

## 3) 연회별 교역자 개체교회 사역자 현황(2005.12. 기준)

연회별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전도사	심방전도사	교육사	은퇴회원
서 울	600	96	4	60	218	151	82
서울남	566	81	2	50	210	244	54
중 부	1,093	126	7	85	264	335	79
경 기	686	105	4	54	83	124	40
중 양	519	70	6	31	88	106	34
동 부	616	83	1	38	28	36	58
충 북	318	49	2	23	26	25	16
남 부	540	74	0	42	110	92	34
충 청	590	39	0	32	32	63	39
삼 남	286	48	2	25	25	30	18
호 남	226	33	1	18	20	16	8
합 계	6,040	804	29	458	1,104	1,222	462

4) 연회별 M.Y.F 현황(2005.12. 기준)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중등부회	교사	891	893	1,438	731	494	541	286	517	478	308	203	6,780
	학생	9,003	6,944	12,694	6,600	4,802	4,844	2,493	5,516	4,726	2,398	1,823	61,843
고등부회	교사	851	803	1,204	606	449	409	227	411	382	229	151	5,722
	학생	8,431	5,650	9,865	4,586	3,692	3,418	1,727	4,223	3,240	1,832	1,165	47,829
청년회	교사	566	408	653	404	246	246	151	296	248	169	90	3,477
	학생	11,442	11,151	16,923	8,167	5,326	4,624	3,110	7,172	4,195	2,838	2,081	77,029

5) 연회별 교육사업 현황

(2005.12.31 기준)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유치원	교사	37	32	28	2	35	29	5	17	27	15	0	227
	학생	460	387	406	67	519	486	81	239	456	208	0	3,309
선교원	교사	40	51	37	13	12	4	5	14	5	0	8	189
	학생	542	557	353	235	150	60	93	193	44	0	92	2,319
어린이집	교사	238	112	152	163	113	100	79	57	108	33	40	1,195
	학생	2,269	1,133	1,634	1,795	1,082	1,346	903	683	1,406	438	378	13,067

### 3 주요 업무

#### 1) 감리교계통학교 정책

- ① 학교 운영자 협의 활성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타 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현행 법 상의 합리적인 정관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지켜 나가는 양면 정책을 실시한다.

가. 감리교 계통학교 운영자협의회 전체 회의 2회, 임원회 분기 별로 총 4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 ② 학교장, 교목의 선교 협력 방안 모색: 정부의 종교 교육 제재에 대처하고, 계통학교 교장 및 교목 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모임을 주관한다.

가. 계통학교 총·학장, 교장, 교목 수련회 개최: 1월 25(목)- 26(금)

나. 학교장 연석회의 년 중 1회, 교목회의 년 중 1회, 교목회 임원회 년 중 2회

#### 2) 학원선교 정책

- ① 학원선교사 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정회원 자원자들을 훈련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파송한다.

- ② 젊은 청년 사역자를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련목회자 등 젊은 사역자들의 학원선교사 파송에 대한 법제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장정 개정안을 제출한다.

- ③ 학원선교사가 학교 안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교사들의 협조와 지원이다. 학원 선교 활성화를 위해 평신도 교사를 통한 학원 선교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에 부응하여 기독교인 교사 수련회 개최한다. 2007년 2월 5일(월) - 7일(수)

- ④ 파송된 선교사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한다.

#### 3) 장학사업 정책과 실무

- ① 현재 장학기금 20억으로는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 기금 120억 모금을 위한 '미래 희망 심기'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한다.

##### ② 장학금 지급 예정

가. 2007년 전반기 장학금 지급 예정: 1월 말 공고, 2월 말 지급

- 3개 신학대학교, 교역자 양성 장학금, 감리교 계통대학 장학금,  
감리교 계통고등학교 장학금,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평신도 자녀 장학금 등

나. 2007년 하반기 장학금 지급 예정: 6월 말 공고, 8월말 지급

- 국내 박사과정 장학금, 해외 유학생 장학금(인문, 자연 과학, 예술, 신학 분야)
- 해외 유학생 장기 장학금; 인문 분야(사회 복지 우선) 1명, 자연 과학 분야(생명공학 우선) 1명에게 각각 미화 5,000 달러를 3년간 지급

다. 국내 체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도자 양성 장학금 신설

※ 3월 11일 학원선교 주일을 장학기금 모금 주일로 홍보 및 기금 확보

#### 4) 청년교육

- ① 침체 일로에 있는 개체교회 청년선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청년교회 전문 목회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전체회의, 분야 별 모임 4회, 청년 선교를 위한 포럼 개최한다.
- ② 1999년 제정된 9월 넷째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는 것은 9월 셋째 주 기독교교육진흥주일과 겹쳐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5월 넷째주일로 옮겨 성년식과 입교식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③ 감리교청년회(감청)와 개체교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회와 연회에 감리교 청년 연합회가 조직되고 협력하여 감청 활동이 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④ 청년 자체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5) 청소년 교육 정책

- ① 청소년 사회 안전망과 청소년 자체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소년평화 세상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통해 2006년 가을에 수탁된 청소년 수련 시설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안고 가는 감리교회의 이미지 선교에 주력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청소년 수련관들이 자립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역 교회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 ③ 개체 교회 청소년 교육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체교회에 제공한다.
- ④ 제1회 아시아 청소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리더쉽을 배양하고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 협력을 모색한다. 7월 23일 - 27일
- ⑤ 청년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교육 교재를 개발한다.

#### 6) 청년관 정책

- ①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개체 교회와의 유대 관계 등 청년관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청년관장 수련회 1회, 청년관장 연석회의를 분기

별로 연 4회 실시한다.

- ② 지역 청년관과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지회들이 협력하여 청소년 선교와 아울러 청년 선교 및 지도자 양성을 지향한다.

## 7) 신학교육

- ① 교역자 수급 조절: 신학대학교 총장 및 대학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원 감축에 대한 보상안 연구하여 수급 조절을 위한 장기 계획 및 지원 계획 수립한 후, 장정을 개정하여 교역자 수급의 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연구한다. (10대 실천과제 8항 참조)
- ②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 과정인 「감리교 목회학 박사원」운영을 관리한다.

## 8) 교역자 교육

- ① 예비목회자 연수교육 실시: 현장 목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연수 시설과 연수 피교육자 수급 방안 모색,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여 감리교 예비목회자 연수교육을 준비한다. (10대 실천과제 8항 참조)
- ② 정회원 연수 교육 강화: 현 장정 상 강제 조항으로 규정되어 연수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정회원 연수 과목이 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연구하며 미진한 과목은 특강 등으로 보강한다.
- ③ 전문 목회자 양성: 전문 목회 지도력 회복과 현장 중심의 분야별 전문 목회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9월중)

## 9) 신학원 정책

- ① 부실한 협동회원 예비안수자를 양성하지 않도록 각 연회신학원에 대한 교수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
- ② 협동회원 양성 기관인 「감리교 신학원 목회아카데미」의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

## 10) 유학생 및 국제 교육교류

- ① 미래 평신도 전문 지도력 양성을 위한 KOMESA 지역대회를 개최한다.  
제3회 유럽대회-(스위스 혹은 파리 예정: 2007년 8월 6일- 10일)  
제1회 미주대회 리더쉽 컨퍼런스 개최-6월 중 미 서부 지역 예정
- ② 미 UMC 본부 방문 세미나: 5월 21일(월)- 30일(수), 내쉬빌, 워싱턴D.C., 뉴욕

- ③ 각 국과의 교육 교류: 미 연합감리교회 고등성직국, 교회와 사회국, 공보국 등 관련업무, IAMSC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thodist-Related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관련 업무, 영국 감리교 계통학교 및 신학교 관련 업무.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회장)	위원	비고
감리교계통 설립자 및 이사장 협의회	백문현	이재식 황방남 김득연 김유숙 최애도 박준구 박우승 서 철 외 설립자 및 이사장	
감리교계통학교 협의회	박준구	중등교장회 중등교목회, 대학교 목회, 대학총·학장회 등 협의체	
감리교계통학교 교목회	이종용	중등교목	
감리교계통대학 교목회	장춘식	대학교목	
감리교계통학교 교장회	박준구	중등학교 교장	
학원선교회	김종훈	56개 회원교회 담임목사	
학원선교사 심사위원회		김종훈 이용원 임정덕 강철희 이종용 신중한 이정원	
교역자교육정책위원회	박이섭	조경렬 한인수 문충웅 한도전 정하봉 임영훈 김준형 조남수 김홍수 백 철 김철한	
신학대학원 교육과정 위원회	박노권	이희학 박종천 이후정 한정에 서명석 서영석	
청년관장협의회	한석진	나선호 김명기 윤정호 박봉규 박정민 최정규 김종민	
목회학 박사원 운영위원회	신경하	조영준 박거종 장종철 정용치 박광수 정우현 김영주 신임 교육국 위원 3인	
KOMESA 운영위원회	고신일	권오서 이 철 김완중 김병삼 박상철 박용호 조재진 유기성 김상현 한상호 유영환 김승룡 박명홍 임학순	



## 5 정책소고

##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세우기 실천방안”

이용윤 목사

## I. 서론

2003년 10월 감리교 학원선교사 제도 공청회에서 감리교 청소년 228명을 대상으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감리교 청소년 중 87% 이상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9%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감리교 청소년으로서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인(목사, 전도사, 교사, 학부모) 226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30% 이상이 감리교 청소년이라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내세울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세울만한 것으로는 ‘착하다, 뜨거운 열정이 있다, 끈끈한 정이 있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의 86% 이상은 청소년 없는 교회와 부족한 청소년 사역 전문가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으며, 97%가 청소년 선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98%가 청소년 전문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선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남아 있는 청소년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과 주변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반해 청소년 선교 방식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음악, 영화, 인터넷 등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청소년 사역에 도입해 빠른 시기에 청소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대부분 일시적이고 한계가 많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청소년부의 침체는 청년 그룹의 붕괴로 이어지고, 앞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주5일제 수업제 등 청소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부서의 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바로 세우기는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즉,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바로 세우기는 기존의 청소년 사역의 성과들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들을 보다 청소년 사역의 지향성에 따라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실천계획·전략차원으로 고민되어지고 제기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바로 세우기 실천방안은 청소년 선교의 단편적 쟁점들의 해소보다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청소년 선교의 발전을 교회가 주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지역의 개별교회의 활성화와는 조금 달리 접근할 문제이다. 물론, 청소년 선교의 지향을 지닌 개별교회의 활성화가 지역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나, 실상 이는 가능하지도 그리고 바람직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바로 세우기 실천방안이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교회 등 다수의 공유와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바로 세우기 실천방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실천적 비전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상 그러한 기반 없는 비전 만들기는 또 하나의 그림 그리기에 불과할 수 있다.

## II. 본론

### 1) 청소년 문제 현황과 그 선교의 위기

#### ① 한국 청소년 현황

21세기에 들면서 전 세계는 디지털시대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청소년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교육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국가의 행정수반이 직접 청소년정책을 관할하는 등 청소년 정책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주5일 근무 및 수업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사회전반적인 삶의 틀이 바뀌고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 청소년관련 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10여 년 동안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인프라를 구축,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청소년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왔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을 목표로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으며,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격상까지 했고, 대통령 직속으로 청소년특별회의까지 만들었다. 이렇듯 이 시대의 화두는 청소년과 청년에 있고 그만큼 청소년 선교적 사명은 중요하다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9~24세 인구는 10,858,000명이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2.4%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소년의 수는 2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은 분명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총인구	0~18세	9~24세	구성비	
				0~18세	9~24세
1965	28,705	14,720	9,121	51.3	31.8
1970	32,241	16,419	11,330	50.9	35.1
1980	38,124	16,545	14,015	43.4	36.8
1990	42,869	14,489	13,553	33.8	31.6
2000	47,008	12,904	11,501	27.5	24.5
2004	48,082	11,871	11,218	24.7	23.3
2005	48,294	11,689	11,065	24.2	22.9
2006	48,497	11,521	10,858	23.8	22.4

〈2006년 통계청 청소년 통계〉

## ② 한국 청소년의 위기 유형과 위기청소년의 규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은 빈곤 가족해체 학대 등 가족적 위기상황, 학습부진 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상황, 약물 폭력 가출 범죄 등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개인적 위기상황, 실업 범죄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2004년 기준으로 한국청소년의 위기상황 종합『보건복지부통계연보』

- 가족적 위기 : 93만에서 110만명(중간값 : 101만 5천명)
  - 빈곤 : 93만명(추정), 이혼자녀 : 15만명(확정)
  - 소년소녀가장, 학대아동, 북한탈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 2만명(확정)
- 교육적 위기 : 48만 7천에서 54만 4천명(중간값 : 1만 5천명)
  - 학습부진 : 48만 7천명(추정), 학업중단 : 5만 7천명(확정)
- 사회적위기 : 22만에서 26만명(중간값 : 24만명)
  - 범죄/성범죄피해 : 4만명(확정), 실업 : 22만명(추정)
- 개인적위기 : 14만 9천에서 37만 2천명(중간값 : 26만)

- 범죄 : 10만명(확정), 가출 : 10만명(추정), 성경험 : 10만 4천명(추정)

- 폭력가해 : 19만 3천명(추정), 흡연 : 24만 8천명

나. 2005년 위기청소년추정치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결과』

· 고위기군 청소년 : 42만 8천명

- 복합적 문제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 26만명

\* 다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중복율을 50%로 적용하여 추정함

- 사회적위기군 24만명 중 : 12만명

- 학업중단자 5만 7천명 중 : 2만 8천명

- 학대아동 2만명 중 : 1만명

· 중위기군 청소년 : 125만 8천명

- 가족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101만 5천명

- 학습부진장애(중복률 50%로 적용) : 24만 3천명

## 2) 사회환경의 변화로 본 청소년 선교의 위기

첫째, 날아가는 사회 정보화에 대해 기어가는 청소년 선교 정책은 청소년 선교의 기본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현재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과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존중받던 사람들로부터, 새로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Tofler, 1990). 시·공간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의한 권력의 이동 현상은 기존의 교육적·전문적 권위체계에 심각한 지각변동을 일으켰으나 교회는 아직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교회의 폐쇄성은 청소년 선교의 큰 장애이다.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오히려 그들의 해방구 또는 탈출구로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프로그램이나 조직 운영 면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들의 관심영역에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직접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선택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현재 교회가 직면한 청소년 선교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소신 있는 청소년 사역자가 급격히 준다는 것이다. 청소년 사역자의 부족현상은 교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이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더라도 맞아주고 함께 할 지도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교회의 청소년 지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학교 교사도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미 청소년 지도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5일제 근무 및 수업 시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가 아닌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교회학교 교사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3) 통계로본 청소년 선교의 위기

지난 5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종교인구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의미심장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종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7%에서 53.1%로 증가하여 절대 수치로 237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충격적’인 부분은 종교별 변화 양상이었다. 지난 10년간에 걸친 주요 종교는 증가 불교 3.9%, 개신교 1.6% 감소, 가톨릭 74.4% 증가로 “개신교 감소와 가톨릭 대폭 증가”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결국 가톨릭은 개신교에서 빠져나온 인구와 비종교인에서 종교인으로 변화된 인구의 대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8년 9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 갤럽(Gallup)에 의뢰하여 조사한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비종교인(불신자)들에게 ‘앞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란 질문에 불교(40.3%), 천주교(37.4%), 개신교(22.3%)란 대답이 나와 개신교 신앙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18~29세의 비종교인의 경우에도 불교(36.9%), 천주교(35.4%), 개신교(27.4%)로 크게 다르지 않다. 비종교인 청년가운데 개신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는 0.7%, 가히 충격적이다(2000. 6.26. 국민일보).

### 4) 차세대(청소년, 청년)비전 바로 세우기 실천방안

#### ① 차세대(청소년, 청년)비전 바로 세우기의 필요성

2004년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조사 결과 1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청

년기에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39.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종교인의 신앙입문시기〉

구분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30.9	16.0	24.1	18.0	8.0	3.0
종교인별						
불교인	27.2	14.3	28.3	18.6	8.0	3.6
개신교인	37.3	19.6	19.8	15.1	5.7	2.4
천주교인	27.5	12.8	20.9	20.2	15.8	2.8
성별						
남자	37.5	16.4	20.4	15.3	8.0	2.3
여자	26.4	15.8	26.6	19.8	8.1	3.4

〈2004년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감리교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② 청소년 선교 지원체제의 구축

청소년 선교 지원체제는 교단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 선교 지원체제는 기존의 교회중심의 선교체제에서 벗어나 교회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선교지원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 선교 지원체제는 철저하게 청소년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선교적 에너지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제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상호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선교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략적 운영의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운영이란 교단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획과 실행 평가 등 각 영역에서의 유기적인 설정과 실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선교정책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우선순위 및 실행 가능한 측면을 중심으로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정책과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되 향후 이를 집중 실행·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구를 세워야 한다.

#### ③ 교회를 통한 청소년교육과 지원체제의 실제

가. 현실적응력이 있는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지원

나. 전문적인 교육지도자 양성 및 교회 지원체제 구축(교회학교 교육/지역사회 교육)

다. 청소년 신앙실천 운동의 전개 · 선교와 사회적 책임

(청소년의 자율적 신앙운동, 사회운동으로 확대 · 문화/봉사/윤리운동 등)

라. 주5일제와 연계한 신앙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포함-지역선교 기반사업으로 연계)

④ 학교를 통한 학원선교 활성화

가. 학원선교 시스템의 종합적 개선과 활성화 지원(일반학교 전체 대상)

나. 학원선교 단체 설립과 동아리 지원 확대(일반학교 전체 대상)

다. 계통학교의 우수한 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교과/인성)

라. 계통학교 대상 선교지향 체험학습의 도입과 활성화

⑤ 지역사회를 통한 봉사와 참여이 활성화 지원(교회+학교의 공동 협력 중심)

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학습과 참여 프로그램 지원

(교회, 계통학교의 프로그램화)

나.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전개(교회지원, 청소년의 자율적인 비폭력 평화운동)

다. 지역사회 문화(선교) 복지 서비스 활성화

(청소년문화선교의 지역화, 지역주민으로 확대)

라. 지역단위 방과 후 학교 설립 및 운영체제 구축(교회참여를 통한 사업)

### III. 결론

현대사회는 청소년들의 개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신장되는 가능성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 학교, 지역 공동체의 급속한 해체로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한 사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세대(청소년, 청년) 비전 바로 세우기는 젊은이들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청소년, 청년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차세대(청소년,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먼저 차세대(청소년, 청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차세대(청소년,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에 동참하려는 자세로 차세대(청소년, 청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개체교회의 담임자는 차세대(청소년, 청년)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각오하라. 지금 당장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미래교회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 현재의 차세대(청소년, 청년)은 미래 교회의 기둥들이 될 재목들이다. 차세대(청소년, 청년)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오늘의 차세대(청소년, 청년)들에게 교회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 교회를 위한 훌륭한 자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체교회 목회자와 중직들은 생각의 전환을 감행해야한다.

교육국은 2005년 11월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청소년 법인 '아름다운청소년들'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통해 사회청소년 활동적 대응 및 활동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단차원에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법인을 통하여 교단 내 선교적 의미를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책을 개발하고 개 교회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선교 관련 지침서와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제작, 청소년 선교를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교단과 연회가 지원해야 한다.

교육국 산하 청소년법인 '아름다운청소년들'과 청소년 관련 부서와 협력, 이와 관련한 대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표명하고, 청소년 선교 시범교회를 활성화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무료급식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도움을 주고, 위기발생 시 돕고 치유하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실시(쉼터, 공동생활 가정 프로그램, 대안학교, 위기상담 등)하여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 1 업무 추진 방향

제자교육부의 업무는 행사위주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희망”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 2년간 감리교회의 화두가 될 “희망”을 심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 모두의 영적각성을 통해 든든한 감리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부흥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제자교육부 정책도 수립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여성교육과 평화교육, 목회자부인 교육, 어르신 교육등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아울러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증진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교재의 재 편집과 개발을 통하여 초신자로부터 원입인, 세례인, 임원에 이르기까지 알차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교재를 연구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체교회와 지방, 연회와 특히 미자립교회와 농촌교회, 여성과 노인 등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며 감리교회가 양과 질에 있어서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007년에는 그 첫 단계로서 아래의 3가지 중점정책을 제시한다.

### ① 노인교육정책

이미 우리나라는 10%에 가까운 고령화 사회의 중간쯤에 접어들었다. 교회는 더욱 심각하여 적어도 30%이상이 65세가 넘는 교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많아도 어르신이 없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어르신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할 때이다. 이제 제자교육부는 이점에 중점을 두고 개체 교회 및 지방 연회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특별히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찾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하고자 한다.

### ② 속회 및 사경회 교육정책

속회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기초였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와 사경회는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속회와 사경회의 교재개발을 강화 할 뿐 만 아니라 각 교회 속회와 지방의 사경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특히 속회발전 연구원을 조직하여 속회 본래의 특성중 하나인 “소그룹 운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소그룹을 통해 속회가 부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③ 교재개발 정책

시대와 환경, 교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은 교육국의 당면 과제 일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직무중 하나 일 것이다. 이에 제자교육부는 기존의 교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뿐 만 아니라 교회가 요구하는 각종 교재를 개발하여 여러 계층의 교회학교 및 장년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모든 교재는 교회의 내실을 다지며, 영적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 보급하고자 한다.

## 2 현황

### 1) 연회별 교인, 임원, 속회 현황 통계

(2005. 12. 기준)

연회별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	장로	권사	집사	속회	속장
서 울	39,543	67,342	86,319	1,449	15,542	26,820	5,580	56,139
서울남	99,159	14,420	86,863	1,106	13,878	25,824	7,742	40,140
중 부	110,257	21,681	150,028	1,815	22,011	50,988	15,237	88,692
경 기	18,590	10,041	69,108	993	9,650	23,893	6,355	43,988
중 앙	18,830	6,396	50,544	651	6,424	16,410	4,465	30,073
동 부	24,203	7,010	56,899	903	8,127	18,469	5,365	40,846
충 북	10,989	3,941	25,315	393	3,838	8,393	2,612	21,568
남 부	23,569	8,791	51,774	851	6,827	17,150	4,132	30,456
충 청	17,718	6,853	52,422	870	7,412	19,169	5,147	36,569
삼 남	6,395	6,403	19,335	356	2,527	7,647	1,696	14,608
호 남	4,986	2,651	14,991	187	1,790	5,191	1,186	10,807
합계	374,239	155,529	663,598	9,574	98,026	219,954	59,517	413,886
2004.12	355,248	149,048	662,588	9,400	90,623	215,007	58,735	381,684
증	18,991	6,481	1,010	174	7,403	4,947	782	32,202

## 3 주요업무

### 1) 원입인 교육정책

① 원입인 교육 : 원입인 교육을 위한 세가지 정책,

가. 새신자 교재 “알고가는 믿음의 길” 개편작업-1월중

나. 안내위원 교육자료 제시-1월중

다. 새신자 환영회 및 양육 프로그램개발-1월중

## 2) 세례입교인 교육정책

### ① 세례입교인 교육 :세례인을 위한 두가지 정책

가. 세례문답 해설서 개편작업 -2월중

나. 세례예비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 기본적인 교리 공부, 성경공부, 교회생활공부

## 3) 노인교육 정책연구

### ① 노인교육 목표

고령화 사회에서 교령 사회로 넘어가는 상황속에서 교회도 급속도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숫자는 증가하지만 점점 소외되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관심과 그에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 ② 노인문제 현황

가. 고령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65세+ 인구	991	1,456	2,195	3,395	4,383	5,354	7,821	11,899	15,793
65세+ 구성비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 ③ 노인교육의 정책전략

가. 교회는 노인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 교회는 노인 문제를 전 교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다. 교회는 노인 개개인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노인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

가. 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년중

나. 노인 성경학교 프로그램 연구 - 교재개발(교재개발실) 및 강습회 실시-년중

다. 노인학교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7,8월

라. 노인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5월

#### 4) 교회임원 교육정책

##### ① 교회임원 교육 목표

책임적 신앙인(responsible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true disciple), 선한 청지기(good steward), 성실한 교인(faithful church man), 담임목사 목회협력자(ministry coordinator) 조화롭게 협력하는 임원(cooperative officer), 철저한 감리교인(thorough Methodist)

##### ② 임원 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

- 가. 임원 되기 이전 교육 정책(신천임원)
- 나. 임원 된 이후의 임원 (집사, 권사, 장로) 교육정책
- 다. 모든 임원 교육교재의 개편작업-3월

#### 5) 속회교육정책 연구

##### ① 속회교육의 목표

- 가.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
- 나. 성화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 다. 성경을 공부하는 교육 공동체.
- 라.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도 공동체.
- 마. 돌보고 나누는 사랑 공동체.

##### ② 속회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

- 가. 속회공과 발간 (학생용교재와 지도자용 교재 및 부교재)
- 나. 속회활성화 프로그램개발 - 1월중
- 다. 속회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 7월까지 완료
- 라. 속회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년중 풀가동 - 강사진을 구성하여 각 교회, 지방별, 권역별, 연회별로 속회지도자(속장, 인도자) 강습회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킨다.
- 마. 속회와 셀그룹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상반기

#### 6) 등급사경회 교육 정책

##### ① 등급사경회 교육 목표

사경회를 통하여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사역자 양성, 및 신앙의 정체성 회복을 꾀하고자 한다.

##### ② 등급사경회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

가. 교재 개편 작업 - 1월중까지

나. 등급사경회 프로그램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 상반기

다. 등급사경회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년1회) -11월중

## 7) 성경교육 정책

### ① 제자

성경공부를 통해 그리스도 제자 양육에 목적을 둔 「Disciple:제자」훈련성경공부 프로그램은 1987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개발되어 사용된 후 미국 내 교회에서는 초교파적으로 150만이 넘는 사람이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교회 등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제자훈련 성경공부교재로 정평이 나있다.

가. 제6차, 제7차 제자 지도자 세미나 개최 -5월

나. 제자 교재의 재 편집작업 - 3월

### ②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초신자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널리 보급하여 성도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가. 제3차, 제4차 제자 지도자 세미나 개최 - 4월, 10월

## 8) 여성교육 정책

### ① 여성 교육의 목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감리교회 여성들이 지도력과 실천적 능동성을 회복함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교인의 70%에 이르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지도력(은사)을 개발한다. 또한 여성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교회 문화를 바꾸어 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 ② 여성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

가. 감리교 젊은 여성 지도력 세미나 : 2007년 1월 9일~13일 예정

나. 여성교육 포럼 - 4월

### ③ 목회자 부인을 위한 신학교육원

가. 목적 :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신학 교육을 실시하여 목회의 동반자로서 자부심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내용 : 구약개론, 예배학, 기독교교육, 심리학개론, 신약개론, 조직신학입문, 여성신

학, 세계교회사, 기독교윤리, 영성신학, 선교학, 감리교신학, 한국교회사, 종교사회학, 설교학, 현대신학, 성서해석학, 목회와상담, 목회행정과리더십, 목회와영성

다. 일정 : 2007년 3월26일-29일 · 4월9일-12일 · 5월14일-17일과

9 · 10 · 11월(달마다 3박 4일씩 수업)

#### ④ 아름다운 영성, 아름다운 여성

가. 목적 : 감리교 여성들의 신앙적 감수성을 개발시킴으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한다.

나. 개요 : 영성은 자아 중심, 물질 중심, 성장 중심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을 가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독교 여성들이 21세기의 화두인 영성 개발에 쉽게 접근하거나 접할 수 있는 통로나 장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담임 목회자의 영향에 좌지우지되어 편중되고 일방적인 신앙적 감수성만을 경험하는 교회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감리교 여성들을 위한 영성 수련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 또한 여성 지도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성 이기에 감리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 프로그램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 내용 :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등과 같은 개신교 수도회 단체와 연합하여 영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라. 일정 : 2007년 2월 예정

#### ⑤ 양성평등지수 자료집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천지침 배포

가. 목적 : 교회 여성과 관련한 차별적 문제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양성평등 의식 전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 「양성평등지수 자료집」과 실제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마련한 ‘실천 지침’을 전국 교회에 배포하여 점차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나. 내용 : 설문 조사 작업을 통해 교단의 정책과 사업들, 여성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구조와 요소들을 분야별로 조사해서 발표

다. 일정 : 2007년 1~12월

### 9) 평화교육 정책

#### ① 평화교육의 목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생명을 경외하고 더불어 사는 삶과 평화의 가치를 깨달아, 신앙적 깨달음과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 ② 평화교육 정책 전략

가. 교육자-전문가, 피교육자-비전문가의 도식을 탈피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배우고 돕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평화교육이 되도록 한다.

나.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평화교육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교회학교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가. 목적 : 현대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폭력과 전쟁, 불평등, 불의, 소외, 환경 파괴 등 평화를 파괴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불의에 대항하는 비평적 사고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평화 교육의 주요 과제이다. 이에 건전한 비평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능력을 키우고 다 문화 이해Multi-Cultural understanding와 공존 능력을 키우는 교재를 개발하여 개체 교회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내용 :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장년이 각기 사용할 수 있는 교재와 더불어 어 감리교 계통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로 발행하도록 한다.

다. 일정 : 2007년 상반기 커리큘럼 구성, 하반기 교재 집필

## ④ 교회학교 교사 평화교육 전국 교회로 확대 실시

가. 목적 : 감리교회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전통은 지식과 정보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한국 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 일상을 파고드는 구조적 폭력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갈등을 평화로 바꾸어내는 ‘평화 일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평화 일꾼을 길러내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 본 교육 사업은 교회학교의 교사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평화의 가치, 의미, 방법에 대한 훈련과 체험을 하고 나아가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나. 내용 : 교회학교 교사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교회와의 상담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출장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방법은 참여형 교육 기법을 활용한 강연 및 워크숍으로 진행한다.

교육영역	강의 제목	교육시간
내면	(영성 수련)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 단기 강좌 : 90분 × 2회
관계	(MBTI 성격 유형 워크숍) “내 안의 ‘나’ 발견하기”	
	(에니어그램) “나를 깨우는 9가지 빛깔과 에너지”	

교육영역	강의 제목	교육시간
공동체	(리더십) “사랑받는 교사를 위한 7가지 습관”	· 심화 강좌 : 90분 × 4회
	(참 대화법)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	
	(갈등 해결 교육)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	

다. 일정 : 2007년 1~12월

#### 10) 몽골후레 대학교

몽골의 연세대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2002년 4월에 울란바토르에 설립된 후레대학교를 감리교단이 그 운영권을 넘겨받아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본부 교육국이 그 실무를 맡아 전반적인 사항을 후원하고 지원한다. 2007년에는 개교5주년을 맞이하여 교수90명, 학부 학생 1030명, 대학원생 30명으로서 몽골내 5위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회장)	위원	비고
일반교인 정책위원회	오세종	강일남 권종호 박선호 안정균 이혜심 전병식 최승태 최중호	
여성교육 정책위원회		홍보연 안영희 배월수 김혜경 윤현숙 유순상 김재명 유춘자 김신아	
가정신앙교육 정책위원회	김외식	김선오 임준택 김수인 방두석 김현수 김병훈 현종남 유은숙 고순호	
평화교육 정책위원회	김기석	이후천 유경동 박성룡 김영대 오성주 김종구 김홍선 서호석 이광섭 이종명	
제자위원회	허원배	남강현 공기현 김철 남기동	
어르신교육 정책위원회	권영규	지성래 우미리 고창석	



위원회	위원장(회장)	위원	비고
양성평등 위원회	김순영 김고광	전은호 성봉희 이명화 이재희 이기순 최은영 김종복 김철한 민영진 박거종 이정배 장영철	

## 5 정책소고

### “어르신 성경학교”-임종체험

유희용 목사

#### 1) 개요

교회내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게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임종체험을 하게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삶의 한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2) 기간: 년중 아무 때나 2일간 코스.

3) 주최: 개체교회 및 지방교육부, 또는 권역별 연합 가능.

4) 강습회: 교육국에서 주관하여 실시.(교회 및 지방에서 요청할때는 언제든지)

#### 5) 기본 일정표

첫째날		둘째날	
09:30-10:00	등록	09:50	찬양
10:00-11:30	찬양 개회예배	10:00-10:30	예배
11:30-12:20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10:30-12:00	분반모임
12:20-1:20	점심시간	12:00-1:00	점심식사
1:30-3:00	임종체험	1:00-2:30	웃음치료
3:00-3:30	간식	2:30-	귀가
3:30-	귀가		

임종체험 시간은 수의 입고 관속에 들어가기, 기도회, 세족식,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기 순으로 진행한다.

## 6) 세부 계획표

### ① 첫째 날

시간	프로그램	세부사항	담당	장소	준비물
09:30-10:00	등록	본당 로비에 안내대를 마련하여 등록을 받고 명찰을 나누어 준다.		로비	책상, 이름표, 매직, 조별명단
10:00~11:30	찬양 개회예배			본당	예배, 찬양ppt
11:30-12:20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조별로 모여 조별 디자인으로 티셔츠에 그림을 그린다 (미리 세팅 할 것)		분반실	티셔츠100벌, 물감, 스펀지, 파레트, 신문지, 도안지
12:20-1:20	점심시간	삼계탕 (조별로 이동하여 식당으로 인도)		식당	식당데코
1:30-3:00	전체모임 (25분)	임종체험설명 및 관련동영상 관람 유언장작성후 5명1조로 임종체험 이동			영상, 음향, 유언장재료 (종이, 펜, 봉투)
	임종체험 (80분)	진행 도우미, 이동 도우미			음향, 관, 광목, 십자가, CD player, 양초
	기도회 (10분)	임종체험 후 기도회실로 모여서 기도 진행 도우미, 이동 도우미			음향
	세족식 (10분)	세족 섬김이, 세족 도우미, 이동 도우미			음향, 수건, 대야, 바가지, 다라 2개, 방석, 십자가 목걸이
	전체모임 (0분)	세족을 마친 후 4층으로 돌아와서 미완성 유언장 작성			음향
3:00-3:30	간식	간식을 예쁘게 Deco하여 1인당 1접시 서로 먹여주기		친교실	
3:30-	귀가	필요인원 차량운행			

## ② 둘째 날

시간	프로그램	세부사항	담당	장소	준비물
09:50	찬양				ppt
10:00-10:30	예배				
10:30-12:00	분반모임	조별로 양초 만들기			그릇, 심지, 칼라스톤, 나무젓가락, 종이컵, 파라핀
		간식 - 분반별로 배식			
		글 없는 책 만들기(설명-조장)			시트지
12:00-1:00	점심식사	비빔밥			
1:00-2:30	웃음치료		강사		
2:30	귀가	필요인원 차량 운행			

## 7) 제언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교회도 노인목회 혹은 노인선교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문제는 시대의 요청이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목회를 통하여 교회는 노인들을 다른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또 이 일을 통해 사회봉사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선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교육국 제자교육부에서는 노인교육 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수립하여 노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한다.

## 1 업무추진 방향

교재는 감리교 개개인의 교인에게 직접 다가가 감리교를 알리고,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재개발실은 좋은 교재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동안 교재개발실은 유아에서 중·고등 학생부의 교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였었다. 이제 부족한 교재는 청년과 장년을 위한 교재이다. 좋은 교재는 교인들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이다. 특별히 교재개발실은 감리교회가 추구하는 ‘희망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 교인들의 영적 각성을 돕는 교재를 만드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교재개발실은 2007년 한 해 동안 감리교회가 추진하는 ‘희망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첫째, 교회력 보급화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교회력은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교재개발실은 교회력을 교인들의 삶속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간한다. 첫 번째 자료는 속회공과이다. 교회력의 보급을 위해 속회공과의 내용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력을 중심으로 집필한 계획이다. 두 번째, 절기 자료집을 발간한다. 사순절과 강림절을 위한 묵상집을 발간함으로써 교회력중에서 중요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절기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도록 한다. 셋째,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 교회력의 중요성을 알린다.

둘째, 양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개발한다.

교재개발실은 교인들을 웨슬리 영성을 지닌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발간한다. 첫째, 영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도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기도집은 교인들에게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줌으로 참된 기도의 방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둘째, 목회자를 위해 특별한 시간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기도회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장년부 교재를 위한 집필자를 양성한다.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쓸 수 있는 집필자를 발굴하는 일이다. 그동안 교재개

발실은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많은 집필자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은 청년과 장년을 위한 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2007년도에는 장년을 위한 교재를 집필할 목회자를 발굴하고 훈련할 것이다.

넷째, 좋은 교재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교재는 우선 좋은 원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좋은 원고를 집필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다. 그러나 좋은 교재는 원고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출판과정에서의 도움 없이는 좋은 교재가 불가능하다. 2007년도는 출판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상할 것이다.

2007년에는 교육국의 3차년도 주제인 “아름다운 자연”을 다루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재를 만든다. 교재개발실은 이러한 주제를 성경학교 교재를 통해 예 담을 계획이다. 창조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재개발실은 2007년 한해 동안 감리교회의 ‘희망프로젝트’가 지향하고 있는 웨슬리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들을 개발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 2 현황 (2006년 교재발간 현황)

134 ~ 136쪽 참조

### 3 주요 업무

#### ① 교재발간

	부서	주제	준비-발간	비고
여 름 성 경 학 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노년부	아름다운 자연	2006년 9월 준비 시작 2007년 2월 원고 완성 2007년 4월 중 책 발간	교회의 어린이들이 줄어들면서 많은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캠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재의 방향도 캠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할 것이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아동부의 교재를 유년부와 초등부로 분리할 계획. 중고등부도 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전환함.
성 경 공 부	유아부 (제2권)	신앙의 기초 교육	2006년 1권 준비, 발행 2007년 1월 준비 시작 2007년 5월 원고 완성	교회마다 영유아부 반을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재의 요구가 있었고, 2006년에 제 1권을 집필하였고, 2007년 제 2권을 집필할 계획
	아동부	사도신경	2006년 준비, 2007년 발행	교회에서 항상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이해함
	아동부	십계명	2007년 1월 준비 시작 2007년 5월 발행	십계명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도움
	중·고등부	파워스톱 9, 10권	2007년 1월 준비 시작 2007년 5월 10월 발행	구약을 내용으로 집필
	청·장년부	사도신경	2006년 준비, 2007년 발행	사도신경의 배경과 의미를 파악함
		십계명	2007년 준비 2007년 발행	십계명의 현대적의미를 파악함
기 도 집	청·장년부	기도집	2007년 1월 집필자 모집 2007년 준비 2008년 발행	교인들의 참된 영성회복을 위해 자신의 기도집을 가지고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함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줌

	부서	주제	준비-발간	비고
새 벽 기 도	장년부	특별 새벽기도를 위한 자료집	2007년 준비 2008년 발행	교인의 양육을 위해 특별새벽기도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한 교재를 발간
절 기 목 상	아동부	강림절	강림절 한달전 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영성 을 회복할 수 있는 자료제공
	청·장년부	사순절 강림절	매년 사순절과 강림절 한달전에 발간	
속 회 공 과	장년부	속회원용	매년 3월에 시작하여 9월에 마침	속회원들이 삶속에서 하나님의 달력인 교회력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인도자용		
		지도자용		
새 신 자	장년부	새신자를 위한 교재	2007년 3월 시작 2007년 12월 발행	『믿음의 길』과 같은 장년부 교재를 사 용하기 전에 믿음의 초보를 알게 하는 교재

## ② 세미나 및 기타

제목	내용	대상	일시
성서일과 모임	성서일과에 따라 성서를 연구하는 모임	목회자	매주목요일 7:30
여름성경학교 교재 설명회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소개함 (교회학교부 협조)	지방, 연회 지도자	4/30-5/1(월-화)
노인성경학교 교재 설명회	교재 설명회	노인대학 교사	6/5(화)
파워스툼 교재 설명회	교재 자료 소개 및 교사훈련	지도자 교사	1/29-30(월-화)
성탄절 강습회	성탄절 준비를 위한 음악극, 장식, 율동 성탄절 자료 (목상집)	교사	10/23(화)
믿음의 길 교재설명회	교재의 집필의도와 사용법 강의 (제자교육부 협조)	목회자	2월, 8월
속회공과 교재설명회	속회공과 사용의 확산과 교재의 집필의도를 설명함(제자교육부 협조)	평신도, 목회자	12월, 1월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재개발실 운영위원회	정관수	권중호 김승룡 김진홍 김형석 김철한 남근형 오근중 원종휘 임준택 현인호 최상용

#### 5 정책소고

### “좋은 교재를 발행하기 위한 방안”

최임선

#### I. 서론

교재는 교단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교재를 만나면 교회는 교단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교재개발실이 존재하게 됨으로 감리교 교재는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의 평가는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출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보다는 더 낫은 교재가 개체교회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구조에서 변경되어야 될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책을 제시할 것이다.

#### II. 본론

##### 1) 현존하는 문제들

##### ① 이원화된 시스템



교재를 만드는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재가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하는 일이다. 그리고 연구 검토한 결과,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교재개발 실은 교재의 커리큘럼을 디자인하게 된다. 커리큘럼이 디자인되면 그에 합당한 집필자를 모아 교육하고, 교육받는 집필자들이 교재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교재의 집필이 끝나면 집필에 내용에 알맞은 일러스트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일체를 교재개발실이 주관하게 된다. 교재를 디자인 한 사람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집필된 교재는 내용원고와 그림원고는 교정과 출판 디자인과 인쇄를 위해 홍보출판국으로 넘겨진다. 넘겨진 원고는 입찰에 의해 인쇄소가 결정되고 인쇄소의 디자이너에 의해 교재의 모양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의 시스템에서 인쇄를 위한 디자인의 부분에서 교재개발실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홍보출판국은 교재의 디자인 및 인쇄를 자신들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틀리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홍보출판국이 교재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디자인을 해 줄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재의 의도와 다르게 디자인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두 국 사이의 마찰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마찰이 교재를 낼 때마다 끊이지 않았으며, 마찰이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기 보다는 두 국의 감정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국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육국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충분히 투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홍보출판국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국이 교육적인 의도로 기획한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처럼 두 국 입장이 다름에서 오는 마찰은 좋은 교재를 만드는 일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 ② 예산상의 문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판매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동부 교재를 예를 들어 보겠다. 아동부 교재는 내용이 집필된 후에 일러스트를 불러 교재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내용을 집필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헌신하면서도 교단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단 밖에 있는 전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초보수준의 일러스트는 저임금으로도 일을 맡는다.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좋은 그림을 원한다면 우리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감리교단의 교재는 13과 52쪽을 집필하면 일러스트비용으로 100-120만원이 지불된다. 그러나 일반 교육교재에서 한 페이지 마다 지불하는 비용은 10-20만원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에 일반 교육에서 발행되는 것과 같은 양질의 교재를 감리교 교단에서 펴내는 일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홍보출판국의 시스템에서도 좋은 교재를 발간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최저가 입찰이라는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최저가 입찰의 단점은 단순히 저렴한 제작비만 보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작업의 질을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종이 질을 낮추고 B급 디자인을 쓰면 단가는 낮출 수 있지만 처음에 기획했던 교육적인 의도는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는 홍보출판국에서도 ‘교육국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졌는지 알지만, 최저가 입찰이기에 도와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교재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교재의 제작도 교육적인 의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저렴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다. 때로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배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최저입찰제’라는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에 갇혀 좋은 기획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의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 교재 시장의 흐름

오늘날은 교재의 선택은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교재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교재시장은 경쟁관계로 돌입하였다. 감리교회일지라도 교사들에 의해서 교재가 선택될 때 초교파적으로 판매되는 ‘파이디온’이나 ‘전도협회’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교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교재의 내용은 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한 예로 2006년 여름성경학교의 교재 중에서 파이디온에서 발간된 교재가 많은 부수가 팔려나갔다고 한다. 파이디온에 관계된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판매 전략을 들을 수 있었다. 올해 파이디온에서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책과 부교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책을 소개하기 위해 따로 브리핑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책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장식을 하고 성경학교 샘플자료들을 모두 무료로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 파이디온은 성공적인 판매가 가능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양질의 교재를 만들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경쟁력 있는 교재를 낳고 경쟁력 있는 교재는 다시 그에 버금가는 판매부수로 이어진다.

우리는 교재 시장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수익성의 문제를 떠나서 교재를 많이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을 교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리교신앙을 전달한다는 선교의 차원에서 이제는 교재 시장의 요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좋은 교재를 발간하기 위한 방안

### ① 미 감리교 출판국의 구조

나는 2006년 2월 미 감리교 출판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곳에서의 배움은 나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에 비해 교인수가 많기에 출판국의 규모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이곳에서 원달준 목사님의 배려로 출판국에서 책임자들만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회의는 책을 발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책의 출판 여부를 결정하고, 디자인과 책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는 영업을 책임진 사람, 출판사의 주요업무를 맡은 사람 등 10여명이 모여 있었다. 그 날은 2007년 여름성경학교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회의는 이전에도 모인 것 같았다. 이 회의는 표지 디자인에 관한 회의였다. 준비해 온 것을 함께 이야기하자 영업을 맡은 사람은 경쟁력 있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것 몇 가지를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다원화된 민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최종 교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는 중요한 책일수록, 예를 들면 판매 부수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여름성경학교 교재, 더욱 많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 ② 새로운 협조체제를 향하여

현재 교육국과 홍보 출판국은 한 교재가 출판되기 전 책임자들이 함께 만나 의논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러했기에 어떠한 의견 조율도 가능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구조가 필요하다.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의 구조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 감리교회의 출판국과 같은 규모로 회의 체제를 갖출 수 없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문 집단을 구성하고, 이 집단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구조로 현재의 분리된 모습을 전환하여야 한다. 사무국과 교육국, 홍보 출판국에서 전문인 집단을 만들어 좋은 교재의 발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구조를 통하여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III. 결론

교재는 교단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다. 또 교재는 감리교인의 신앙을 형성시켜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이제 교단적인 차원에서 교재를 만드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교재가 발간됨으로 많은 감리교인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사회평신도국



## 총무 인사



총무 엄마리 장로

자랑스러운 감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전국의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무 임기 4년을 마치고 재임의 소명을 다시 받고 정책을 세우려니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4년은 줄기차게 마라톤을 하듯 쉽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교제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평신도국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정책 기조 위에 개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담아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세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특히 감리회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으로 전국 개신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영적 대각성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사회평신도국의 주제를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로 정한 것도 새롭게 부흥되는 감리회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감리회의 기둥으로 다시 복음 전파 운동에 앞서게 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두 부서 사회봉사부와 평신도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사회봉사부는 그동안 많은 정책사업을 했지만 특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도와 물질을 돕는 일을 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해와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매년 평균 10억을 웃돌았는데 2006년만 실적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바라기는 감리회의 이름으로 돕는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 감리회가 종교 단체 중에서는 이웃을 돕는 실적이 가장 많아 사람들에게 웨슬리의 후예답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신도부는 평신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 질 높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평신도 단체를 포함한 평신도들이 능력있는 교회의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개체 교회와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특히 제 27차 총회에서 결의하고 시행하기로 한 감리회 희망 프로젝트 중에 사회평신도국이 제정하여 결의한 감리교인 생활 실천 수칙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감리회에 자원봉사자대회가 열리도록 사회봉사단 규칙을 초안하여 입법 총회에 내어 놓을 계획인데 자원봉사자 전국대회를 통하여 국내, 국외,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단원을 파송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전국 교회와 교인의 절대적인 협조 속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다함께 “신실한 감리교인”으로 우뚝 세워져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1. 정책 개요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의 신앙실천운동과 평신도운동의 활성화, 평신도단체 간의 협력, 평신도단체와 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감리교회들이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도록 돕고 있으며, 평신도들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5월에는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평신도대학을 2년 과정으로 개강하였다. 평신도대학은 학문적인 신학체계와 복음을 통한 실천적인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공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리회 엘리트 지도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40명의 평신도들이 1기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수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07년 9월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 평신도단체들의 연합과 협력에 많은 성과가 있어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WMC 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에 남·여·청장년선교회, 장로회, 여장로회, 원로장로회, 교회학교 연합회, 실업인선교회 등 모든 평신도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였고, WMC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2006년 10월 평신도단체연합 가정세미나를 통해 평신도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대각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사회봉사부는 청장년선교회와 협력하여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미자립 교회 등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난 3년 동안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선교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령사회를 맞아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해 감리교 노인대학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강사훈련 세미나를 2006년 2월과 9월에 반기마다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을 감리교 홈페이지에 올려 개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크고 작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국내에는 양양산불, 태풍과 수해, 폭설 피해가 있었고, 해외에는 미국의 카트리나 홍수, 파키스탄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이재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받았지만, 감리교회와 평신도단체,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들이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감리교회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한 곳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재해를 지원하는 것은 현지의 피해복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복구가 지연되는 등 해외 지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2007년에도 사회평신도국은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라는 주제 아래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적대각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2007년에는 희망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표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연회마다 ‘감리교 사회봉사단’이 조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1 주제

- ① 총 주제 : 화평의 복음을 지키고 행하는 평신도
- ② 2007년 주제 :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  
(2008년 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평신도)

## 2 주제 성구

- ① 총 주제 성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나 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6-38)
- ② 연도별 주제 성구(2007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 3 주제 해설

#### 가. 서론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해 11월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압적으로 선포하였다. 서울에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듬해 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으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식민화를 구체화하였다. 1907년에는 정미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어 한국의 경찰과 군대를 해산하고 사실상 국권을 장악하여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이렇게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 되면서 국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낙심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 밖에 없었다. 이때 우리 감리교회는 영적 각성을 위한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 나. 대부흥운동의 동기

부흥운동의 계기를 살펴보면 1903년 함경남도 원산 지방에서 선교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원산의 창전(倉前)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집회를 열어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다. 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된 것은 기도회에 참석한 남감리회 소속의 하디(R. A. Hardie) 목사의 통회자복하는 회개기도였다. 그는 수년간 선교활동을 하였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한 무력감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양심의 찢림을 받았다(행2:37). 성령이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곳에 모인 선교사들은 하디의 성령 체험을 목도하게 되자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서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1907년의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은 감리교 선교사들의 성령체험과 회개운동,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자 교회는 대부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다. 대부흥운동의 내용

##### ① 기독교 진리를 알게 되었다.

대부흥운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하였으며, 기독교 진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영적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회개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는 삶, 즉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 기독교 이천년 역사에서 명백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33세의 청년 예수를 향하여 그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예수가 의롭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요, 승천이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이다.

##### ②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언더우드에 의해 제시된 대부흥운동 기간 중의 성장통계자료를 보면 장로교인 수는 54,987명에서 1907년에 73,844 명으로 늘어 3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인 수는 18,107명에서 1907년에 39,613 명으로 무려 118%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907년도 대부흥운동은 감리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교파를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었다.

### ③ 교육기관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영적 각성을 통한 대부흥운동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설립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06년 6월에 208개의 학교가 이듬해 같은 달에 344개로 136개나 늘었으며, 학생 수도 3,456명이 7,504명으로 늘어났다. 훗날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3·1 독립운동이 촉발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④ 새로운 형태의 기도방법이 확립되었다.

한국교회는 대부흥운동으로 새로운 신앙형태인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었다.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한국의 목회자들과 일반교인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으며, 영적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기도였다. 동시에 이 기간 중에 시작된 철야기도 역시 새로운 형태의 기도였다.

## 라. 대부흥운동의 결과

1907년의 부흥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성령 운동이었다. 동시에 한국 교회가 비로소 민족 교회로 자리매김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부흥운동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착되기 시작하여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가정의 소중함과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미신을 타파하는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 마. 결론

대부흥운동을 통한 성령 체험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 1904년 하디 선교사가 시작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대각성운동은 1907년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에 한 획을 긋는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성령은 우리를 지탱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예수의 제자로 증인되는 평신도상을 확립해야 한다.

최근 여러 통계자료와 목회현장,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들을 볼 때 한국교회의 성장에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한국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시대와 사회적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 일에 평신도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증거들이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 있는 평신도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각성을 하고,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흥하는

감리회의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일에 모든 평신도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이 희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7년에도 여러 정책과 사업으로 감리교회의 부흥을 향한 평신도들의 열정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 4 중점 실천 목표

- 1)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는 평신도
- 2) 영적 각성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평신도
- 3)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모범을 보이는 평신도
- 4)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되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

## 2. 국위원 및 이사

위원장	박영준 감독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양총재	장석구
	서울남	이종진	이학구
	중 부	정옥성	김진열
	경 기	정명기	현명자
	중 앙	김정권	안명구
	동 부	원종국	심인섭
	충 북	김종문	김형순
	남 부	허복수	설동무
	충 청	최운석	서충효
	삼 남	임성수	박아청
전문위원			

### 3. 업무구분

부서	업무
총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평신도국 정책 개발</li> <li>2. 지방 총무 지도력 개발</li> <li>3. 평신도단체 유기성 극대화</li> <li>4. 임직원 전문 교육훈련</li> <li>5. 평신도단체 기능확대</li> <li>6. 국위원회</li> <li>7. 정책자문위원회</li> <li>8. 사회봉사대책위원회</li> <li>9. 컨설팅 위원회</li> </ol>
평신도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신도주일 성수</li> <li>2. 평신도단체 활성화 정책 개발</li> <li>3. 평신도단체 임원 연합 연수</li> <li>4. 차세대 지도자 양성</li> <li>5. 평신도단체 지방활성화</li> <li>6. 평신도 프로그램 연구</li> <li>7. 평신도부 업무 실무</li> </ol>
사회봉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봉사 특별프로그램</li> <li>2. 사회봉사 및 복지정책</li> <li>3.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홍보</li> <li>4. 보건의주일</li> <li>5. 초교과 연합 사회복지정책 협의</li> <li>6.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의연금 모금</li> <li>7. 사회봉사부 업무 실무</li> </ol>

## 4. 발간자료

### 1) 2006년도 발간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공과	평신도 월례회공과	<p>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평신도국 연도별 주제에 맞춰서 공과를 발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제목 :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li> <li>· 2006년 제목 :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li> <li>· 2005년 제목 : “웨슬리의 후예, 평신도”</li> <li>· 2004년 제목 : “빛이 되는 사람들”</li> <li>· 2003년 제목 : “믿음은 이렇게”</li> </ul>	매년
2	자료집	평신도 주일 자료집	전국 각 교회 및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들에게 평신도 주일 성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양식들을 제공하여 평신도주간과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돕는다.	매년

### 2) 기존 발간자료

번호	구분	제목	비고
1	자료집	감리교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안내서	1996
2	단행본	21세기를 향한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1997
3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	1999
4		감리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 지침	1999
5	자료집	사회복지편람	2001
		사회복지시설안내서	2005

## 5. 각 부 정책

### 평신도부

· 부장 엄주선 권사

#### 1 업무추진방향

사회평신도국 2007년 주제가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이고 영적대각성을 통한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신도들이 희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의 영적 훈련으로 감리교회의 부흥을 향한 평신도들의 열정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그리고 2006년 5월 개강한 제1기 평신도대학이 지도력을 겸비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단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신도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운영할 것이다. 또한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 2 현 황

##### 1) 평신도단체 및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조직 현황

(2006년 11월 현재)

연 회	지방수	조직				미조직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사회평신도부총무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사회평신도부총무
서 울	13	13	13	13	13	-	-	-	-
서울남	14	14	14	12	14	-	-	2	-
중 부	29	29	29	21	29	-	-	8	-
경 기	23	23	23	17	23	-	-	6	-
중 양	19	19	19	14	19	-	-	5	-
동 부	22	22	22	17	22	-	-	5	-
충 북	13	13	13	7	13	-	-	6	-
남 부	19	19	19	9	19	-	-	10	-
충 청	21	21	21	18	21	-	-	3	-
삼 남	21	21	21	13	21	-	-	8	-
계	194	194	194	141	194			53	

### 3 주요업무

#### 1) 평신도 주일 지키기

평신도 주일 지키기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 행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어 평신도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는 신앙실천운동으로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의 한 주간을 평신도 주간으로 지키고 그 주간이 끝난 2007년 6월 3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킨다.

#### 2) 평신도 교육 교재 발간

남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가 월례회나 모임을 가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주제별로 공과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도 공과는 영적각성 실천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해 ①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과 부흥운동사 ②한국 감리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③영성생활의 실제 ④영성생활의 사회화라는 내용으로 영적 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엮고 있다.

#### 3) 평신도대학 설립 운영

감리교회의 부흥 및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목회자와 더불어 평신도의 신학을 정립하고 선교 역량 및 봉사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평신도대학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평생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인 신학체계와 복음을 통한 실천적인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공부하며,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감리회 엘리트 지도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2006년 5월 제1기 평신도대학이 개강하여 2007년 까지 2년 과정을 수업 중이며, 세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1 교시 (13:00~13:50)	2 교시 (14:00~14:50)	3 교시 (15:00~15:50)	4 교시 (16:00~16:50)
1학기 (2006년 5월)	평신도신학(Ⅰ)	상담학	기독교와 문화	영성신학
2학기 (2006년 9월)	평신도신학(Ⅱ)	이스라엘 역사	평신도지도자론	기독교교육
3학기 (2007년 5월)	가정사역(Ⅰ)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성막론
4학기 (2007년 9월)	가정사역(Ⅱ)	웨슬리신학	환경신학	전도사역

#### 4) 감리교인 생활수칙 제정 및 실천운동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 5) 평신도 지도자 영적대각성을 위한 훈련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평신도지도자들에게 평신도운동이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평신도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면서, 교역자와 평신도간에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눔과 섬김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교회 부흥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 6) 평신도 선교단체 임원 연합 연수

평신도 3개 선교단체인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임원 연합연수를 통하여 전국 단위의 평신도 3개 선교단체가 상호 정보교환 등 유대관계를 새롭게 하여 사회평신도국의 정책 수행에 협력하고 단체간의 사업교류와 협력으로 목적 사업의 효율을 높이게 한다.

#### 7) 평신도 단체장 협의회

본부와 평신도선교단체(남·여·청장년선교회)가 사회평신도국을 중심으로 감리교의 평신도 운동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3개 선교회의 연대사업과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감리교회의 평신도 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장정의 6개 단체장협의회도 필요시 구성하여 친목 및 평신도의 단합을 도모한다.

#### 8)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지도력 개발

사회평신도국이 정책을 개발하고 감리교 평신도들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는 본부인 반면에, 실제로 평신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지방 사회평신도부이다. 이에 본부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 사회평신도부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확보한다.

#### 9) 평신도 차세대 지도자 양성

감리교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를 어떻게 배양하고 사역을 감당하



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별히 세계선교와 세계 감리교회를 이끌어 갈 뿐 아니라 통일시대에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키워 복음 사역을 평신도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10) 평신도 선교단체 지방 활성화 정책 개발

현재 청장년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지방의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조직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연회연합회의 사업도 활성화 시킨다.

#### 11) 바른 사회생활 교육

기독교인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성결된 생활과 높은 도덕적 삶을 이루도록 연단하고 양육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한다.

#### 12) 기독 가정생활의 육성과 교육

가족제도의 붕괴와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폭력, 자녀교육, 부부생활, 노인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기독 가정생활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일에 힘쓴다.

#### 13) 좋은 만남 (결혼중매센터)

결혼 적령기에 있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진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신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 14) [좋은 만남] 후원회 운영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인 중매센터 [좋은 만남]을 돕는 후원회를 결성하여 교회 젊은이들이 건강한 기독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한다.

#### 15) 세계감리교협의회 및 국내·외 평신도 지도력 교류

한국 감리교회는 에큐메니칼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교 평신도들은 국내에 있는 기독교 산하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력을 계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교회를 위하여 공헌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평신도선교단체장협의회		안충수 최은영 신동선	평신도 연합사업 협의
평신도단체장협의회		안충수 최은영 신동선 박경진 성봉희 이필용	

#### 5 정책소고

###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방안”

엄주선 권사

#### I. 서론

우리는 과거 수능부정행위, 황우석교수 사건 등을 접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절감하였다. 이러한 부정직의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신뢰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도 가져오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06년 뇌물공여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83점을 얻어 세계 수출 주도 30개 국가 가운데 21위를 차지해 ‘부패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지수로만 본다면 1999년 3.4점, 2002년 3.9점에 비해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의 산업화 시대와 90년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선진한국’은 경제적 부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닌 정직, 평화, 정의, 나눔 등 인간 보편의 신실한 가치를 실현해 갈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부패에 편승하는 잘못도 많이 저질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사회평신도국에서는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

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감리교인 생활수칙 제정

#### ① 목표

- 가.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킨 감리교회의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 나.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을 사회생활을 위한 수칙으로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 다. 하나님의 축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 ② 내용

감리교인은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이며, 감리교인 생활수칙은 모든 감리교인이 정직, 검소, 절제, 나눔의 모습들을 교회, 가정, 직장,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함으로 경건하고 복되게 살려는 생활운동이다.

이를 위해 크게 교회생활 수칙, 가정생활 수칙, 일반생활 수칙,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의 방향을 세우고, 그 안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생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가. 교회생활 수칙

-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로 한다.
-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

도록 한다.

-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루트이다.
-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를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나. 가정생활 수칙

-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감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 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는 최선을 다 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 다. 일반생활 수칙

-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시킨다.
-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 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 라.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수칙

-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바로메타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마.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묵도하게 한다.
-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약속을 꼭 지킨다.
- 정직이 최선의 방책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의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범교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2)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방안

① 홍보 및 보급 방안

가.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나. 주제를 상징화한 스티커와 생활수칙 리플렛을 제작하여 평신도단체 및 개교회를 통해 보급한다.

다. 평신도 월례회공과 등 사회평신도국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감리교인 생활수칙이나 요약된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보급한다

라. 감리교본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홍보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보급한다.

마. 온라인(감리교 홈페이지)과 오프라인(기독교타임즈)을 이용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바. 본부, 연회, 지방회와 개교회 주관의 행사시마다 이 운동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한다.

사.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단체(남·여·청장년·장로회·여장로회·원로장로회·교

회학교·실업인선교회 등)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수련회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시에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한다.

- 아.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를 통해 이 운동을 지방 사회평신도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자. 평신도주일 행사시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권고하고, 자료집에 관련 자료와 실천 사례 등을 게재한다.
- 차.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수칙과 아이디어 등의 공모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널리 확산되도록 한다.

## ② 확인 및 점검 방안

- 가. 감리교인 생활수칙이 확산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전담 운영팀을 구성한다.
- 나. 평신도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단체별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논하여 시행한다.
- 다.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시에 생활수칙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기독교타임즈와 홈페이지 등에 모범사례로 홍보하여 개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향후 계획

감리교인 생활수칙이 일회성 구호나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감리교인 생활수칙이 확산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감리교인 생활수칙이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 III. 결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웨슬리의 영성과 모범을 실천하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사회에 희망을 주는 신실

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또한 그것은 커다란 구호나 행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감리교인 생활수칙의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진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신실한 감리교인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사회봉사부

· 부장 선철규 권사

### 1 업무추진방향

사회평신도국 사회봉사부는 예수님의 사랑이 웨슬리의 복음열정을 통하여 고아, 과부, 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났듯이,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며 나누고 섬기는 봉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사회봉사 및 복지 정책을 마련하면서 연회와 지방에서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협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회마다 사회봉사단이 조직되어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연회와 협력해 나가며, 연회마다 기술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 지역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인식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 2 현 황

#### 1) 재해 재난, 불우이웃돕기 모금현황

(2005.10~2006.11.7 현재)

구분	모금금액	비고
파키스탄 지진 피해 돕기	91,360,530원	사망 4만명, 이재민 수백만명
호남 폭설피해 돕기	15,905,360원	감리교회 7교회와 감리교인 10가정 폭설 피해
수해피해 돕기	521,694,510원	감리교회 37교회, 감리교인 399가정 수해 피해



구분	모금금액	비고
불우이웃돕기	19,448,000원	북한어린이, 사회복지시설 5개소, 불우환자 4명, 영세민 쌀지원, 불우가정 생활비 지원 등
합계	648,408,400원	

### 3 주요업무

#### 1) 컨설팅 팀 운영

교회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하여 시설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감리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교회의 선교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제반 자료를 감리교 홈페이지에 올려 이용토록 한다.

#### 2) 교회 지도자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는 복음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과제이며 선교적 사명이다. 따라서 교회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의 사회봉사를 통한 감리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사회복지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 3) 자원봉사자 교육

연회와 공동주관하여 연회별 자원봉사자 교육을 함으로 평신도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돕는다.

#### 4) 전국사회봉사단 대회

감리교회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연회마다 사회봉사단을 구성하고 감리회의 이름으로 필요한 곳에 긴급히 봉사자를 파송하여 도움을 주도록 독려한다.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사회봉사단 규칙을 제정하고 제반 사항을 도우며 전국 사회봉사단 협의회를 운영하고 전국 발대식을 시행한다.

#### 5) 자원봉사 꿈나무 영성훈련

감리교 청소년들을 자원봉사 영성훈련으로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청소년들이 21세기 선진화된 국가건설의 주역이 되도록 하며 국제화 시각을 갖는 인재가 되도록 양육한다. 매년 학교 방학 기간 중 청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다.

#### 6) 기술 자원봉사 실시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청장년선교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가옥을 수리해주는 기술자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와 협력해 연회내 불우이웃의 가옥을 수리해주는 기술 봉사활동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함을 권장한다.

#### 7) 교역자 보건주일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교역자를 위하여 사회평신도국이 정책을 세워 관리하고 지방 사회평신도부가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며 2007년 9월 2일을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킨다.

#### 8) 사회문제대책위원회(운영)

천재지변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를 비롯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감리교인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한다.

#### 9) 불우이웃돕기

존 웨슬리의 섬김의 정신으로 전국 감리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개교회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협력하여 감리회의 이름으로 이웃을 도우므로 복음 전파에 기여한다.

지방과 개체교회는 희망의 쌀나누기와 결손가정 결연 및 후원 사업등을 전개한다.

#### 10) 재해지원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옴으로 한순간에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자연재해의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재난재해지역과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금을 모금하고 재해로 피해를 당

한 교회와 가정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11) 노인복지 종합센터 설립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수명 80세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때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도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평신도국은 건축부지가 마련되면 노인복지 종합센터에 대한 중, 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실비요양센터, 원로원 추가건축, 전문요양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다.

#### 12) 노인대학협의회 지원 육성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기관과 교회에 속해있는 노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 교류, 프로그램 등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반기별 강사세미나를 열어 노인대학 실무자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노인대학협의회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 13) 사회봉사 사업 홍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감리교회들의 선한 일들을 알리고 홍보하여 감리교회에 대한 사회복지 인식을 높이고 복음전파에도 기여한다.

#### 14) 초교파 연합 정책 개발

사회복지 초교파 연합기구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연대하여 대처하고, 중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도 상호 교류한다.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사회문제 대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재난돕기 폭설, 태풍 수해, 해외 재해 지원 등</li> <li>· 불우이웃돕기 불우환자, 불우이웃, 사회복지시설, 북한어린이 돕기 등</li> </ul>
컨설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책 사업 협의</li> <li>· 국 발간 자료 집필</li> <li>·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자문 역할 : 위탁서류 양식(감리교 홈페이지)</li> <li>· 노인복지종합센터 설립기획(안)</li> </ul>
노인대학 협의회	소화춘	송민섭 신성부 이성구 김 철 강정혜 임홍만 송석안 이학상 윤화정 강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교회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노인대학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li> <li>- 노인대학협의회 임원회</li> <li>- 노인대학 강사 훈련 세미나</li> <li>- 노인대학 강사 공유 (2006년 9월30일 현재 114개교회)</li> </ul>

#### 5 정책소고

### “감리교회 사회봉사단 조직과 실천방안”

선철규 권사

#### 1. 개요

한국의 많은 종단과 교단들은 경쟁하듯 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며 사회복지의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감리교회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을 세우고 사회복지법인들을 설립해 수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퇴색되고 있어,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인식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리교회 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사회는 각종 장애나 소외, 궁핍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감리교회 성도들이 찾아가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정신적으로 붙들어 주며,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회봉사 운동을 전 감리교회적으로 펼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감리교회에 대한 인식과 신뢰는 올라가고, 사회적으로도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봉사단을 통하여 감리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불우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희망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한국 사회에 감리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목표

- 1) 감리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도록 한다.
- 2) 지방회별 사회봉사단을 조직하고 개체교회가 지방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한다.
- 3) 연회마다 사회봉사단을 조직해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영역을 초월한 재해재난 복구, 사회문화 및 국가적인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감리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나간다.
- 4) 사회봉사의 건전한 방법을 통하여 전도환경을 조성하여 선교의 효과를 거둔다.

## 3. 자원봉사 추진 방침

- 1) 개체교회 담임교역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다.
- 2) 개체교회마다 지방의 사회봉사단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
- 3) 지방마다 지방 사회봉사단을 조직해 지방 사회와 시민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등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지도력을 높여간다.
- 4) 연회마다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발대식을 갖고 지방의 지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한다.

#### 4. 자원봉사 활동 영역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재가봉사	혼자사시는 노인돕기 장애인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모자, 부자세대돕기 임산부도우미 주부일손돕기	생활환경개선활동 (세탁, 청소, 도배, 이불만들기) 식생활 지원활동 (장보기, 반찬만들기, 식사보조) 이·미용서비스 (머리손질, 목욕, 면도) 운동 및 치료 (건강체조, 운동, 물리치료, 간병서비스, 안마) 외출보조 (병원동행, 교통돕기, 산책, 여가생활지원) 대화 활동 (말벗, 문안전화, 육성녹음) 생일상차려주기, 심부름해주기
	무료베이비시터	아기돌봐주기
사회복지 시설봉사	영·유아시설돕기 재활원 시설돕기 양로원, 경로당돕기 아동,여성복지시설돕기 노인무료급식소돕기 장애인 및 기타 시설돕기	생활환경개선활동 (세탁, 청소, 도배, 이불만들기) 식생활 지원활동 (장보기, 반찬만들기, 식사보조, 수유, 이유식 보조)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머리손질, 목욕, 면도) 운동 및 치료(건강체조, 운동, 물리치료, 간병서비스, 안마) 외출보조 (병원동행, 교통돕기, 산책, 여가생활지원) 대화활동 (말벗, 문안전화, 육성녹음) 학습지원활동 (기술교육, 학습지도, 레크레이션)
전문분야 봉사	외국어 지원 돕기	무료로 외국어 통역, 번역, 회화강의
	기술지원 돕기	컴퓨터 관련 돕기, 전자제품 점검·보수, 주택 개·보수, 자동차 점검·수리, 운전대행 돕기
	상담돕기	요보호여성 상담, 청소년상담, 가정법률상담, 가정(성)폭력상담
	생활예절지도	전통예절 지도, 다도
	의료지원	일반의료·한방·치과분야 진료 및 치료, 수지침
	영양식단 관리지원	영양 식단 작성, 영양 관리지원
	신체 및 헌혈 봉사	헌혈, 장기기증
지역사회 봉사	재활용품 수집·선별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 재활용품 교환 판매
	농어촌 일손돕기	벼 심기, 벼·보리 베기, 농산물 수확지원, 어획물 선별·관리지원
	교통 거리질서 계도	교통 계도캠페인, 주차정리, 교통정리, 자가용 함께타기 (카풀운동)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지역사회 봉사	환경보호활동	깨끗한 거리만들기, 골목길 청소하기, 동·식물 보호하기, 공원 및 유원지 환경보호, 수질보존활동, 쓰레기분리수거
	재해대책지원	재난(인명)구조, 복구지원(차량, 장비, 물자지원), 급식봉사(식사, 간식, 식수제공), 구호품전달, 노력봉사
	공동체 행사지원	각종 행사, 캠페인 등 지원
기관, 단체 봉사	우체국 업무지원	우편물 분류, 소인, 발송
	의료기관 지원	환자수속 안내, 진료기록 대서, 거즈접기, 시트 갈기, 청소
	도서관 지원	접수안내, 도서대출, 도서카드 정리, 청소
	관공서 지원	민원안내, 사무보조, 청소, 행사지원
	사회단체 지원	프로그램(레크레이션)지도, 행사안내 및 지원, 사무보조
기타	금품지원	감리회 본부 불우이웃돕기 참여, 저소득 주민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물품지원	저소득 주민 생필품 지원
	범국민적 행사지원	국가적 행사지원, 기타

## 5.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과 대책

### 1) 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교회내 봉사는 강조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먼저 자원봉사에 대한 교역자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어 성도들에게 나눔과 섬김에 대한 말씀 선포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도들이 자원봉사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 2)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의 봉사로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일회성의 교회 행사로 끝나 자원봉사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 3) 구제에 치우친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선과 구제가 주이고, 지역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적이지 못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리교회 이름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 6. 사회봉사단 운용

### 1) 감리회 본부

#### ① 사회봉사단협의회 운영

##### 가. 목 적

감리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사회봉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평신도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내 용

- 연회의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사회평신도국은 전국 사회봉사단협의회를 조직한다.
- 사회봉사단협의회 회장인 전국사회봉사단 총재인 사회평신도국 위원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으로는 각 연회 사회봉사단 단장인 감독과 부단장인 사회평신도부 연회 협동총무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사회평신도국 총무와 사회봉사 부장은 실무 책임자와 담당자로 참여하여 논의된 사업들을 추진한다.

#### ② 사회봉사단 규칙 제정

가. 사회평신도국은 컨설팅 소위원회를 열고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 초안을 작성한다.

나. 사회평신도국은 지속적으로 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을 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임법총회에 상정한다.

#### ③ 사회봉사단 전국 발대식

연회별로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사회평신도국은 전국 사회봉사단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전국대회에는 연회 감독님들을 비롯하여, 교역자, 평신도 지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감리교 사회봉사 축제 마당으로 개최한다.

또한 연회의 사회봉사단 조직과 운영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단 조직과 운영 사례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 2) 연회 사회봉사단

### ① 연회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 가. 조직 및 구성

- 연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에 의거 연회 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 연회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는 연회 감독이 주재하며, 사회평신도부 연회 협동총무, 지방 감리사,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연회 평신도선교단체장으로 구성한다.



## 나. 역할

연회 사회봉사단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지회(지방 사회봉사단)와의 협력 사업, 그리고 지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사항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 참조)

### ② 발대식

가. 연회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연회 사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나. 발대식에는 연회 전·현직 감독과 지방 임원 그리고 연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한다.

다. 사회봉사단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여 지방마다 사회봉사단이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③ 연회 사회봉사 활동

가. 연회는 년 1회 이상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커리큘럼과 교육은 사회평신도국과 협력하여 공동추진 가능)

나. 연회 소속 지방들의 사회봉사단 창단을 지원하고 지방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 연회 소속 지방 및 타 연회에 재해 재난 발생시 지방 자원봉사단과 연대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매스컴을 통한 국민 이미지 개선 및 감리교 홍보효과)

라. 연회 지역내 가난한 이웃들의 집을 수리하고 지어주는 기술봉사 실시를 연회 청장년 선교회(기술자원봉사단)와 협력하여 지역내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을 집수리 기술봉사활동을 전개한다.

## 3) 지방 사회봉사단

### ① 지방 운영위원회

#### 가. 조직 및 구성

· 지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에 의거 지방 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 지방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는 지방 감리사가 주재하며, 사회평신도부 총무 외 지방 임원, 지방 평신도단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역할

지방 사회봉사단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연계 사업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사항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 참조)

### ② 발대식

가. 지방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지방 사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나. 발대식에는 지방내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 참석하도록 하여 지방내 사회봉사의 동기 부여와 개교회로의 확산을 꾀한다.

### ③ 지방 자원봉사 활동

- 지방내 감리교인을 대상으로 년 1회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회의 자원봉사 교육에 참석시킨다.
- 지방의 자원봉사 인력을 등록 관리하여, 지역내 봉사대상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 활동 사항을 점검한다.
- 지방내 하천과 거리 등 환경사업에도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쳐 감리교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영향력을 높여 간다.
- 지방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모색하여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간다.

## 4) 개체교회 사회봉사

### ① 사회봉사 주관

개체교회는 사회봉사부가 주관하여 기존의 사회봉사 사업을 감리교 사회봉사단의 이름으로 추진한다.

### ② 개교회 자원봉사 활동

가. 지방 사회봉사단의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감리교 사회봉사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지역내 감리교회 이미지를 높여 나간다.

나. 지역내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을 파악하고,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선정한다.(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자체 사회복지과 문의)

다. 감리교 사회복지 전문가를 초청해 성도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 자원봉사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일깨워 준다.

라. 개인별 자원봉사도 가능하나 가급적 감리교회 사회봉사단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대상자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한다.

## 7. 맺음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인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길 원하셨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려

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감리교회가 하나되어 지방과 연회에서 사회봉사단을 조직해 발대식을 갖고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을 훈련시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를 보내어 봉사한다면, 감리교회가 이 땅의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사회봉사단 조직을 준비하고 조직해가는 과정과 조직후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시간적, 인적, 물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감리교회가 전국적으로 사회봉사단이 조직되고 활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면, 한국에서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높아져, 전도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감리교회의 성장이라는 결과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안)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지방) 사회봉사단(이하 사회봉사단)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신뢰를 높이며,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소재지)

1. 연회 사회봉사단의 사무실은 해당 연회에 둔다.
2. 연회 사회봉사단은 전국 사회봉사단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3. 사회봉사단은 지방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사회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 교육 및 파견
2. 각종 재해시 구호활동
3. 개체교회와 지방의 사회평신도사업 지원
4. 사회복지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지원
5. 국내외 자원봉사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추진
6. 사회봉사단 활동에 대한 홍보
7. 봉사단원 상호간의 친교와 연대의식 강화
8. 지역개발을 위한 교회의 의식개혁 운동 전개
9. 감리회 본부와 사회봉사단협의회 간의 활동에 대한 협의
10. 기타 사회봉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발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1. 사회봉사단의 회원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성도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로 조직한다.
2.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추대 회원 - 현직 감독, 연회 총무, 현직 감리사, 현직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2) 단체 회원 - 개체교회 및 사회복지 유관단체

(3) 개인 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이

**제6조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에서 파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권리

**제7조 (의무) 본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사회봉사단의 회칙에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정한 규칙과 결의사항을 지켜야할 의무
3.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할 의무

**제8조 (상벌)**

1. 본회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사회봉사단 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사람을 견책하고, 제명할 수 있다.
3. 포상과 징계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장 임 원

**제9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봉사한다.**

1. 총재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국 사회봉사단 총재는 사회평신도국 위원장이 되고, 부총재는 사회평신도국 총무가 된다.
2. 단장 : 연회 사회봉사단장은 현직 감독이, 지방은 감리사가 단장이 된다.
3. 부단장 : 연회의 부단장은 사회평신도부 연회협동총무가, 지방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구성

- (1) 연회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는 연회감독이 주재하며, 사회평신도부 연회 협동총무, 지방 감리사 및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구성한다.
- (2) 지방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는 감리사가 주재하며,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와 지방 임원, 평신도단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 (1)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 (2)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3) 사무국의 설치와 실무 책임 간사와 직원 선임
- (4) 연회 사회봉사단 조직과 임원선출(예, 사무국장, 조직정책국장, 교육복지국장, 재난 구호국장, 후원개발국장 등)
- (5) 감사 선출

(6)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7) 기타 중요 사업 심의

## 제4장 조 직

### 제11조 (사무국)

1. 사회봉사단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홍보를 위해 사무국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팀, 홍보팀 등 기타 필요한 직무 책임자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제12조 (조직정책국)

1. 사회봉사단은 정책의 연구와 실행을 위해 조직정책국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2. 조직정책국에는 연구조사팀, 정책개발팀, 조직운영팀 등 필요한 팀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제13조 (교육복지국)

1. 사회봉사단은 교육사업 및 복지 분야별 사업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국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2. 교육복지국에는 봉사학교팀, 지원사업팀 등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제14조 (재난구호국)

1. 사회봉사단은 재난구호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재난구호국을 둘 수 있다.
2. 재난구호국에는 의료구호팀, 전자수리팀, 물품수송팀, 기술봉사팀, 영상홍보팀 등을 둘 수 있다.

### 제15조 (후원개발국)

1. 사회봉사단은 후원 회원 확보를 위해 후원개발국을 둘 수 있다.
2. 후원개발국에는 기도후원, 재정후원, 기업체 후원팀 등을 둘 수 있다.

### 제16조 (감사)

1. 사회봉사단은 사업과 재정의 감독과 감사를 위해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5장 재 정

### 제17조 (재정)

1. 사회봉사단의 재정은 연회 지원금, 지방 지원금, 교회와 개인 후원금과 기타 사업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18조 (회계년도)

1. 사회봉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 (효력)

1. 본회의 규칙은 입법총회에서 제정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규칙개정은 사회평신도국 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총회에 개정안을 제출 하여 입법총회에서 개정한다.

사무국



## 총무 인사



총무 김영동 목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감독회장님과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10개 연회 감독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과 온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교제가 다시 사무국 총무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보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무국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감리회의 정책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본부 각 국은 희망을 기초로 하여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절망과 아픔이 가득 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제27회 총회에서는 “희망 프로젝트”를 결의하였고, 지난 11월에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횡성에서 모여 정책대회를 갖고 희망정책 추진을 위해 다짐을 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과 같이 정책을 뚜렷히 내걸고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그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책을 연구하는 총회 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본부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해마다 정책협의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원과 온 직원들이 기도하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정책은 재산증식 및 관리와 행정이 주된 과업이며, 정책국이 총회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리회관 및 본부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각 부서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민원업무처리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는 감리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각 종민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민원인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것이며, 낡은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은급사업은 지속적인 개선안을 통해 이미 은퇴교역자들의 희망이 되었고, 장학사업과 복지업무는 미래 감리교회의 희망의 사업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무국은 따뜻한 가슴으로 5,700교회, 150만 감리회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관심과 편달을 바랍니다.



## 1. 업무 개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이다” 사무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행정과 재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각 국의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임직원들의 근무와 교육과 복지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있으며,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힘써 일하는 사무국의 각 부서별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는 감리교회의 정책이 교회와 사회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본부 행정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율적인 직제와 재무, 행정관리의 개선으로 본부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뢰받고 친절하고 섬기는 본부가 되도록 직원들에게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들이 영성생활을 기본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건주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각종 행정서류와 문서 등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하고 있다.

재산관리부와 민원부는 개체교회의 재산편입, 담보제공, 건축 등 민원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상 발생하는 법률, 세무, 등기 문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새해에는 망실재산 및 잠재적 재산 찾기, 미편입재산 조사 파악과 종합부동산세, 기반시설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는 은급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성격을 병합한 제도적 보완으로 은급사업의 항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21세기는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사회복지재단은 2006년 9월 현재 68개 시설로 발전했으며 2006년 중에 편입된 재산은 대지와 종교용지 1,532.6㎡, 건물 126.7㎡ 에 838,606,000원이 증가되었다. 호남분사무소를 부안복지센터에 설치했다. 3개 복지시설(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 신생장애인복지관, 샬롬원)을 건축했으며 3개 복지시설(만수노인전문요양원, 신생실비노인전문요양원, 마니노인요양원)을 건축 중이다. 원로원에는 38세대에 53분의 원로목사가 생활하고 있다.

## 2. 국 위원 및 이사

### 1) 유지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감독회장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윤연수	장현수
	서울남	김충식	방재결
	중 부	서명섭	최한오
	경 기	백문현	김영길
	중 앙	전용재	이기영
	동 부	김명기	조남호
	충 북	이돈하	심태우
	남 부	곽성영	임재봉
	충 청	현상규	이기선
	삼 남	장동주	강완용

### 2)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일고 감독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김영현	정남규
	서울남	권영남	민명식
	중 부	신기식	최종만
	경 기	안희선	김봉중
	중 앙	권상덕	김상래
	동 부	김영원	박용하
	충 북	박희권	윤옥계
	남 부	이원준	정찬완
	충 청	박진원	전 윤
	삼 남	이종일	최기용

## 3) 은급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감독회장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황광민	김창년
	서울남	심재호	조인호
	중 부	박인환	오철환
	경 기	최승균	한상수
	중 앙	이광석	최영수
	동 부	임홍만	서권호
	충 북	최경환	이현택
	남 부	김용우	정윤재
	충 청	유완기	김동환
	삼 남	박종호	김광성

## 4)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감독회장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윤병조	홍성호
	서울남	김산복	최은영
	중 부	천무엽	강희춘
	경 기	이승우	최이성
	중 앙	노수우	김임술
	동 부	이상운	한주석
	충 북	전찬식	이춘우
	남 부	고창수	박병희
	충 청	전광석	박영련
	삼 남	신완철	강영희

5) 장학재단 이사회

이사장	신경하 감독회장		
이사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김종순	
	서울남		김진한
	중 부	전명구	
	경 기		홍현풍
	중 앙	정승희	
	동 부		안상현
	충 북	한영제	
	남 부		문경자
	충 청	봉명중	
	삼 남		김 춘자

6)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복규 목사		
위원	연회	교역자	평신도
	서 울	이현덕	
	서울남		신성부
	중 부	이진수	
	경 기	권오준	
	중 앙		송기영
	동 부	이복규	
	충 북		정하모
	남 부		최동한
	충 청		심기택
	삼 남	이광호	

###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총무	사무국 사무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총괄, 직원의 지휘 통솔
행정부	1. 본부 각 국 및 연회와의 행정업무 2. 본부 임직원 인사,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본부 행사의 기획과 운영 업무 4. 대외문서 수발, 배부, 보관 및 통제의 업무 5. 각종 증명서 및 감독회장 추천서 발급 업무 6. 기독교대한감리회 직인 및 감독회장 직인 관리 업무 7. 본부 회의실 관리 업무 8. 본부 감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9. 본부 내규 보관 및 개정에 관한 업무 10. 본부 물품구매 및 연회보고서 발행 업무
회계부	1. 회계 및 세무업무 총괄. 예산편성 및 결산 2. 유지재단 회계총괄. 세무업무. 결산(수익사업). 홍보출판 회계 3. 유지재단(비영리, 유스호스텔, 교육원) 회계 4. 유지재단(감리회관, 정우빌딩, 회현상가)회계 5. 본부 회계 6. 홍보출판국 회계
민원부	1. 건축물 신축 및 멸실 관련서류 발급과 약식명령(건축)관계 2.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형질변경등 관련 업무 3. 전기사용 관련업무. 자동차 관련서류 발급 4. 보육,사회복지 및 유치원 관련업무. 소유권 및 기타등기 5. 세금과오납 및 환급관계 지방세 감면서류 발급 제증명발급 6. 유지재단 공문관리 및 우편물 접수발송 7. 사무운영비 출납관리 8. 업무보조 및 제반서류 관리 9. 감독회장 차량 및 업무차량 운행 관리

부서	업무
재산관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재산편입, 공공용지협의처분 및 법인세계산업무</li> <li>2. 기본재산처분전환, 담보제공업무</li> <li>3. 기본재산기부채납, 관리권명의변경, 예치금사용관련업무</li> <li>4. 기본재산전산관리, 등기권리증관리</li> <li>5. 재산편입증명서발급, 재산세 교회별안분계산업무</li> <li>6. 기본재산관련 각종 세금관련업무</li> <li>7.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업무</li> <li>8. 각종 소송, 청원, 질의, 법률자문의뢰, 이의신청 업무</li> <li>9. 대 관청업무, 이사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업무</li> </ol>
회관관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대업무 및 설비시설관리업무 총괄</li> <li>2. 회관의 시설(전기, 기계, 방재, 자동제어등)전반의 관리</li> <li>3. 주차관리 및 용역회사 관리</li> <li>4. 임대사무 및 임대료 청구업무(감리회관, 정우빌딩, 회현상가)</li> <li>5. 공과금 관리 및 각종 문서 수발, 관리업무</li> </ol>
은급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 관청업무, 이사회,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li> <li>2. 기금관리 및 예산편성 집행</li> <li>3. 사업정책 수립 및 제 법규 제정과 개정(정관, 시행규칙)</li> <li>4. 교역자 목회관리(현직, 은퇴, 별세, 목회연한 산정 등)</li> <li>5. 원로목사회 지원업무</li> <li>6. 수익사업업무</li> <li>7. 재단회계 및 세무회계 업무(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li> <li>8. 출납업무 및 재산(자산)관리. 하나로. 광화문빌딩 임대관리</li> <li>9. 교회은급 부담금 청구 및 수납업무</li> <li>10. 각종 회의 및 자료 준비</li> <li>11. 교역자(허입자/수혜자)은급부담금 청구 및 수납업무</li> <li>12. 교역자관리(허입자, 은퇴자, 퇴회자, 별세자, 교회이동 등)</li> <li>13. 은급금 지급 및 위로금 지급</li> <li>14. 문서 품의, 수발 및 각종 문서관리</li> <li>15. 은급금 수령자 관리(주소, 서류관리)</li> <li>16. 교역자 및 교회이동 관리</li> </ol>

부서	업무
복지법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 행정기관 업무(보건복지부, 서울시)</li> <li>2. 위탁시설 수탁신청 및 상담 업무</li> <li>3. 재산출연 및 상담 업무</li> <li>4. 법인회계 및 각종 문서관리</li> <li>5. 산하시설 관리지도 및 행정, 회계, 결산업무</li> <li>6. 이사회 관련업무</li> <li>7. 원로원 관리</li> <li>8. 장학재단 업무관리</li> <li>9. 봉사인증센터 운영관리</li> </ol>
유스호스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전반적 운영 총괄</li> <li>2. 문화관광부, 도, 시, 유스호스텔연맹관계업무</li> <li>3. 지출 회계담당 및 예약운영관리 주관</li> <li>4. 차량운행관리</li> <li>5. 시설 재산의 전반적인 기획 운영 관리</li> <li>6. 수입 회계담당 및 문서수발 업무</li> <li>7. 예약 업무 담당</li> <li>8. 청소 등 관리업무</li> <li>9. 컴퓨터 시스템 운영관리</li> <li>10. 식당관리 및 식단표 작성</li> <li>11. 물품 구입검수, 주방인력 지도</li> <li>12. 시설관리 책임(기계실, 전기통신)</li> <li>13. 각종 장비관리 책임, 검수, 소각기 관리</li> <li>14. 보일러 운전 및 기계설비 유지 관리</li> <li>15. 전기, 통신설비 관리, 방송실 및 엘리베이터 관리</li> </ol>
입석교육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 전반적인 관리</li> <li>2. 문서수발 및 제반 행정업무</li> <li>3. 회계 업무</li> </ol>

## 4. 발간 자료

## 5. 각부 업무

### 행정부

· 부장 손인선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감리회 본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총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중심이기에, 본부 행정부 업무의 두 주류는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에 대한 지원이요, 본부 행정과 임직원들의 인사, 복지행정에 대한 관리업무이다.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회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전체 감리교회 내의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현황

감리회본부의 조직은 행정수반 감독회장을 비롯하여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홍보출판국 등 5개 국이 있고, 감독회의 비서실과 교육훈련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감리회 본부의 임원은 감독회장을 비롯하여 각 국의 총무, 비서실장, 교육훈련원장 등 8명이며, 직원은 부장 18명, 과장 3명, 서기 25명, 사무원 7명, 기능사 5명으로 총 임직원은 66명(2006.11.30현재)이며, 계약직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부의 업무는 본부의 행정, 본부와 연회와의 행정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본부 임직원들의 영성생활 및 인사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독회장 신경하		
선교국	총무 이원재	1. 국내선교부 : 태동화(부장) 금혜경 2. 국외선교부 : 김영주(부장) 한미령(과장) 3. 사회선교부 : 신복현(부장) 이상숙 웨슬리전도학교 : 권정학* 300만전도운동 : 이상지*
교육국	총무 김두범	1. 교회교육부 : 이화식(부장) 조윤정 2. 학교교육부 : 이용윤(부장) 이승미 3. 제자교육부 : 박혜경 4. 교재개발실 : 최임선* 이소현*
사회평신도국	총무 엄마리	1. 평 신 도 부 : 엄주선(부장) 박은애 한수연* 2. 사회봉사부 : 선철규(부장)
사무국	총무 김영동	1. 행 정 부 : 손인선(부장) 정 진 2. 회 계 부 : 권홍식(부장) 이희명(과장) 서우영 이윤남 김미영 3. 민 원 부 : 안지홍 김재옥 김에스터 4. 재산관리부 : 강만득(부장) 이남희 조은희 김진경 송소진* 5. 회관관리부 : 조병추(부장) 정 선 6. 은 급 부 : 김영주(부장) 조윤숙 김경미 7. 복지법인부 : 김일환(부장) 박현희 이사은* 8. 교 육 원 : 강명옥 신혜경* 9. 유스호스텔 : 조진수(과장) 김재인 서은미 유창현 조주환 김현진 이순옥* 강처임* 오종례* 장경숙*
홍보출판국	총무 김광덕	1. 기독교세계 : 임명주 김혜진 2. 출 판 부 : 장홍식(부장) 박영신 김은희 성민혜 민명희 한보현 김홍준 윤옥숙* 이은숙* 강성윤*
교육훈련원	원장 정용치	1. 연수원 : 김용택*(부장대우) 오수미 2. 교육원 : 이은재(부장) 박복주* 정금주* 차은혜*
비서실	실장 유희용	1. 총회행정부 : 함영석(부장) 이선미 박선행 2. 기획홍보부 : 송병구(부장) 국은진* 3. 역사전산부 : 조병철(부장) 송신일*

\*표는 계약직원임

직책	남	여	계
감독회장	1		1
총 무	4	1	5
실장·원장	2		2
부 장	18		18
과 장	2	1	3
서 기	2	23	25
사무원	1	6	7
가능사	4	1	5
합 계	34	32	66
계약직	6	15	27

### 3 주요 업무

#### 1) 직원교육 및 신앙강화업무

본부의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본부 임직원들의 영성생활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부는 본부 임직원들이 바른 신앙관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영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① 임직원교육 및 연수회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양강좌 및 직원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제반업무교육,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며, 기초와 중급 영어반을 운용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준비하는 직원으로 양육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연 1회 연수회를 통해 전 임직원의 친목과 화합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직원들의 육성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기 위해 안식년 제도를 두어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영국 장학프로그램(Scholarship Programe)과 연계하여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차적으로 참여케 함으로 자기발전과 개발의 기회로 삼아 우수한 직원을 양성한다.

##### ② 영성훈련

교육훈련원에서 실시하는 Walk to Emmaus 프로그램에 본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 본부 업무의 궁극적 목표인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 ③ 아침기도회와 신년기도회

아침기도회는 본부 업무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일과의 하나다. 기도과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본부 임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매일 자각하며 감리교회를 위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아침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신선한 독창성을 지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유도고 있으며, 연초에는 한 주간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하여 한 해의 업무시작으로 삼는다.

### ④ 본부 행사의 기획

사무예배, 중무예배, 이취임식, 현판식 등 본부 내의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하디 선교사를 기념하는 영적각성운동 기념비 제막식을 비서실과 연계하여 기획하였다.

## 2) 정직하고 효율적인 행정

행정이란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과정의 모든 절차다. 그러므로 행정이 바로 정직하면 감리교회가 신뢰를 받는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본부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게 되어 변화하며 희망을 주는 본부가 된다.

### ① 민원행정업무

본부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민원업무는 각종 신분증명서, 소속증명서, 추천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 가. 감리교회 표장등록 출원

2006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위해 감리회 로고와 함께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하였다. 심사기간은 1년 정도이며, 등록결정이 되면 감리회 로고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이름을 감리회 소속의 교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선교지역에 교단을 알 수 없는 감리교회란 이름의 교회가 난립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참고로 장로회(통합)의 경우, 교단 로고만 표장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 나. 외국인 선교사 종교비자 발급업무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개체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선교와 교육을 위해 자국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어, 종교비자 발급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② 본부행정 업무

임직원들의 근무상황 점검, 임직원들의 건강검진,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독회장 직인 관리와 본부 문서 수발 및 통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외에 본부 예산위원회 및 예산감수위원회와 연회보고서 출판 업무를 맡고 있다.

#### 가. 감사위원회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되는 본부 감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나. 정책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본부 정책수립을 위해 연1회 개최되는 본부 임원 부장 정책협의회와 연회-본부 행정협의회를 기획하고 있다.

#### 다. 내규 관리와 개정

제3차, 4차 총회실행부위원회를 통해 내규개정을 하였다. 개정안은 교육국의 교재개발실 신설, 비서실의 조직개편, 부장과 기능사의 직급 개편, 인사위원회 조직 개편, 인선위원회 조직 개편, 여비규정 개편 등이다.

#### 라. 행정제도의 연구와 개선

본부 내규를 장정에 맞게 개정할뿐 아니라, 본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내규를 연구하고 개선한다. 또한 본부와 연회의 행정과 제도에 관해 총회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연구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제도, 교회 통계표 및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 감리사 지도치침서, 연회보고서의 통일화와 지방 및 연회회의록의 형식 통일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감리교회의 행정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다.

#### 마. 사무국 안내서 제작

사무국 각 부서의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보급한다. 여기에는 개체교회에서 본부에 의뢰하는 각종 민원서식 작성요령 및 민원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민원인들이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바. 본부 조직개편

효율적인 본부 구조개편을 위하여 컨설팅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부 구조개편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토록 할 계획이다.

## 4 위원회

## “정책수립 과정의 합리적 행정”

손인선 목사

### I. 서론

한국 개신교회 교인수가 지난 10년 동안 14만 4천 명이 줄었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개신교회 내부에서는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쇠퇴의 원인은,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다. 전도방법이 지나쳐 혐오감을 준다.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진리 추구보다 교세확장에 집착한다. 도덕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이었다. 천주교회의 급성장이 “천주교회가 신뢰할 만한 종교로 자리매김한 것이 원인”(시사저널, 제887호, p.35ff)이라면 그 사이 개신교는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간 것이 개신교 쇠퇴의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 교회개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교회의 도덕성 회복”이 응답자 중 67%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음이 아무리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 복음전달의 효과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전임 감독제가 시작된 이후 본부는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매진해왔다. 매년 8월 본부 임원과 부장들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의 지나간 정책실행에 대해 검토하고 신년도 정책안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모아 본부정책자료집을 2005년과 2006년 발행하여 연회와 개체교회에 배부하였다. 또한 장단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감리회 정책의 신학적 토대와 실천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는 종래 감리회본부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본부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 동안 총회는 본래의 주요한 업무인 정책의 수립보다는 장정개정과 감독선거에 비중을 두었고, 정책을 수립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예가 많았으나, 지난 10월 숭의교회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는 모름지기 정책을 입안하는 총회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진지했다. 정책의 중심인 “희망프로젝트”를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하고 결의하였고, “희망”을 중심으로 한 본부 정책국의 정책계획서를 발간하여 총회원들에

게 배부하였다. 8개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미리 준비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니, 가결된 정책의 실행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본부의 정책이 개체교회까지 원활히 전달되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는 본부에 대한 개체교회로부터의 신뢰다. 정책이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해도 연회와 지방 그리고 개체교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 본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즉,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정책은 신뢰받는 정책이 아니며, 신뢰받지 못하는 본부의 정책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나 잘하세요.’라는 싸늘한 응답만 받을 것이다.

본 소고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의 과정에서 행정이 기여하는 바를 설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수립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점검하고 신뢰받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행정으로 개선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개진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행정의 포괄적 의미

포괄적으로 말하여, 행정이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며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하는가’ 하는 철학과 이념이며, 감리회본부가 지향하고자하는 방향, 이상, 가치 및 정신과 지도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영춘, “교회행정관론”, 서울:기독교문화사, 1997, p.38)

감리회 본부의 방향과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감리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수립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은 개체교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뒷받침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부는 존재하는 것이고(교리와 장정, 제7장 제115조, 제122조), 행정은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전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의 절차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때 감리회의 정책 수립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절차와 과정에 투명성은 감리회 정책의 신뢰성을 얻게 될 것이다.

### 2) 본부 정책수립과정의 이해

본부는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장정 제215단, 제115조) 위해 설치된 총회행정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감리회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장정 제222단, 제122조) 조직되었다.

규정대로라면, 본부는 감리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연회와 지방에 시달하며 집행하는 기구다. 본부의 정책수립은 신설된 비서실의 기획홍보부에 의해 기획되며,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를 통해(장정 제235단, 제135조 ⑤항)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본부 정책수립 과정에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역할은 장정에 명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각 국의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국 총무를 선출하는 것으로 그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장정 제241단, 제141조). 그러므로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책정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의 책정 및 책정된 정책과 사업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역할로 규정할 수 있다.

장정에 의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또 있다. 바로 총회 분과위원회이다. 총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장정 제388단, 제113조)고 되어있다. 즉, 본부에서 기획한 정책안을 연구검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기구인 것이다. 상정된 정책안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비로소 정책으로서의 그 가치와 효력을 지니게 되고, 이는 다시 본부를 통해 연회와 지방으로 시달되고 또한 본부 각 국(실, 원)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다.

그 동안 총회는 정책수립의 많은 부분을 직무유기해 왔다. 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정책분과위원회는 총회 개회 기간에만 모였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총회는 정책을 제대로 세울 틈도 없었으며, 본부는 총회의 정책결의와 상관 없는 독자적인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던 것이다.

### 3) 총회 정책분과위원회의 활성화

이렇게 총회와 본부의 정책이 동일선 상에 있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 수립에 대한 올바른 행정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행정은 모든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며 총회의 방향을 견인해 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 정책분과위원회의 역할은 감리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며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현재 총회 정책위원회는 8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선교사업연구위원회, ②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③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④홍보출판정책연구위원회, ⑤교회재산관리에 대한 연구위원회, ⑥교역자복지후생연구위원회, ⑦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⑧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등이다.

금번 총회에서는 ①과 ⑦은 선교국에서, ②은 교육국에서, ③은 사회평신도국에서, ④은 홍보출판국에서, ⑤과 ⑧은 사무국에서, ⑥은 선교국과 사무국이 공동으로 분과의제를 발제

하였다. 발제된 정책의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총회에 상정되었고, 대부분 결의되어 정책의 시행만 남게 되었다.

위 분과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듯이, 분과위원회의 편성도 보완되어야 한다. 즉 본부의 조직과 그 정책과업에 맞추어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총회 회기 동안에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기 위함이다. 즉 총회 회원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부서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정책수립과정에 동참시켜서 자국의 정책안 수립 과정을 분과위원들로 연구하고 논의하게 하고 총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른 행정을 통해 수립된 정책은 총회원들 뿐 아니라 감리회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며, 정책으로서의 권위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III. 결론

최근 총회정책분과위원회 제8분과인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위원 가운데 한 분이 말하기를, 한국 감리교회 역사 상 총회가 닫힌 후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 동안 본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총회의 역할이 미흡했지만,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감리회 정책 수립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얻은 셈이다. 본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정책을 연회와 지방과 개체교회에 전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는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본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는 한 회기가 지난 다음 총회에서 총회원들로부터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로 이어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정이라 할 것이다. 과정이 합리적인 행정이 될 때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며, 신뢰받는 행정을 통한 정책은 모든 이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 1 업무 추진 방향

감리교 자체 목적사업의 연례적 규모의 증가로 인해 본부회계의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바 장정개정시 본부부담금의 연회사업지원비 및 교역자양성비 지출 비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연회별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본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며 부담금의 본부 직접 수납을 추진하여 웹상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납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예정이다. 부담금 순위가 앞서 있는 대형교회부터 정직한 통계표로 책정된 정직한 부담금 내기운동을 통해 처음 사랑, 처음열정을 회복하여 희망이 되는 감리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소원한다.

## 2 현황

현재 회계부조직은 본부회계, 본부특별회계, 홍보출판국회계, 유지재단회계, 유스호스텔회계, 입석교육원회계, 은급재단회계, 회복지재단회계, 장학재단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임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대부분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다. 아래표는 2006년도 본부 예산의 구성비 및 본부예산 및 유지재단 전입금의 년도별 증가사항이다.

### 1) 본부예산 및 유지재단전입금 의 년도별 증가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본부수입예산	6,160	6,680	7,300	8,100	8,665
유지재단전입금	915	1,250	1,600	2,100	2,510
점유비	14.90%	18.70%	21.90%	25.90%	29.00%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본부수입예산 중 수익사업체인 유지재단의 전입금이 매년 대폭 증가하여 더 이상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태임으로 장정개정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본부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과목	2006년 예산안	구성비(%)	비고
수입	1. 부담금수입	4,580	52.9	
	2.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3,209	37.0	유지재단 및 기타
	3. 기타수입	206	2.4	이자수입, 등록비수입
	4. 미수금수입	670	7.7	
	<b>수입계</b>	<b>8,665</b>	<b>100.0</b>	
지출	1. 일반관리비	2,727	31.5	
	인건비	1,526	17.6	
	일반경비	1,201	13.9	
	2. 정책연구비	592	6.8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3. 교육훈련비	89	1.0	교육훈련원
	4. 연회사업비	1,860	21.5	10개 연회의
	5. 교역자양성비	430	5.0	교역자수급및 고시위원회
	6. 선교비	2,809	32.4	개척선교비의
	7. 총회경비	100	1.2	행정총회
	8. 비품기기	27	0.3	
	9. 예비비	31	0.4	
	<b>지출계</b>	<b>8,665</b>	<b>100.0</b>	

## 3 주요 업무

- ① 예산편성
- ② 결산업무
- ③ 예산통제
- ④ 세무회계(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원천세)
- ⑤ 4대 보험
- ⑥ 급여계산
- ⑦ 부담금수입
- ⑧ 미수금관리
- ⑨ 자금관리

## 1 업무 추진 방향

개체교회의 재산관련 민원 신청시 유지재단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전송, 우편을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부목사 · 전도사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 교회 건축시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타 교단과 연대하여 모색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2 현황

### 1) 기본재산 편입현황

(2006년 6월 30일 까지)

구분 본부/연회	토지		건물	편입교회수
	면적(m <sup>2</sup> )	필지	면적(m <sup>2</sup> )	
본 부	1,886,625.31	260	94,054.29	
서 울	1,348,394.90	1,354	399,509.89	188
서울남	2,178,049.33	893	316,064.91	171
중 부	2,369,779.00	2,104	475,887.61	459
경 기	666,018.84	1,098	265,848.02	312
중 앙	877,146.11	819	151,141.36	265
동 부	2,471,560.93	1,654	221,602.65	467
충 북	684,674.85	742	118,516.32	237
남 부	1,214,398.88	980	193,633.26	279
충 청	986,661.79	1,174	185,297.21	404
삼 남	701,754.56	1,177	169,364.12	409
합 계	15,385,064.5 (4,653,982평)	12,255	2,590,919.64 (783,753평)	3,191

\* 단( )은 평형표시임

### 3 주요 업무

#### 1) 기본재산편입

#####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 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즉석에서 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교회는 유지재단이 작성해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편입등기를 한다.

##### ② 세금 문제

- 편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세(교육세), 취득세(농특세)이며, 편입재산을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교회 경외의 부목사, 전도사 사택은 과세되며, 증여로 편입한 재산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의무도 면제된다.

##### ③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사용용도와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 2) 기본재산처분전환

#####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기본재산처분전환신청서 (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하는데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 ② 처분요건

- 처분대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처분대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변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에 한한다)

### ③ 세금문제

- 재산처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며, 처분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후 3년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 증여로 편입한 재산을 3년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물론 편입당시 면제 또는 비과세 되었던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도 추징된다.

## 3) 기본재산담보제공

###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재산 담보제공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 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는데 필요한 일련 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 ② 담보제공요건

- 대출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 4) 기본재산 관리권 명의변경

- ①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지 않고 감리교회에 처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관리권명의변경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 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이사회회의결을 받아 재산의 관리권을 매수 또는 수증하는 교회명으로 변경한다.

## 5) 이자 소득세 환급

- ① 교회가 재정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교회가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승인을 받아 예금주를 기독교대한감리회00교회로 하여 예금을 해야 한다.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하고 교회규약과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6) 교회건축

- ①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과 설계자, 공사시공자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유지재단은 교회가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건축허가신청서등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일건 서류에 날인하여 교부한다.

#### 7)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 ① 개체교회가 담임자 또는 교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건축주를 유지재단으로 변경해야 등록세,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③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고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8) 보육시설 등 운영 신청

- ①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려면, 보육시설 등 운영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시설장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4 위원회

## “교회재산에 대한 세금 등의 문제와 해결방안”

강만득 장로

### I. 서론

현행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금제도로 인하여 교회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점, 교회가 건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 기존 교회가 재개발사업지구나 재건축사업지구 편입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 II. 본론

####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문제

##### ① 과세 실태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이 비과세되나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유지재단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관청이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개체교회의 재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체교회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 ② 문제점

대법원 판례는 교회재산을 소속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 한 것으로써 명의신탁에 해당(대법원 1991. 5. 29. 90다 8558 판결)하는 것이고, 교단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인 개별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대법원 1980. 12. 9. 80다 2045, 2046 판결)이라는 일괄된 판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서도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를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교회별로 구분 과세해야 마땅한데도 유지재단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 ③ 해결방안

교회별 구분과세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제4항 제14호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u>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u>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제4항 제14호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u>1995년 12월 31일</u> <u>이전부터</u> → 삭제

## 2)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한 과세문제

### ① 과세 실태

담임목사의 주택은 모든 세금이 비과세되지만 부목사나 전도사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 이유는 부목사, 전도사는 종교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② 문제점

과거에는 교회의 규모가 적어 담임목사 1인으로도 종교목적사업수행이 가능했으나 교회가 대형화함에 따라 담임목사 1인만으로는 불가능하여 수명의 부목사와 전도사가 선교, 교육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종교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목사, 전도사가 종교업무에 전업을 하고 있는에도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③ 해결방안

부목사, 전도사도 종교목적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지방세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의 직접을 다음과 같이 삭제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지방세법 제10조,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취득일부터(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u>직접</u>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취득일부터(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u>직접</u> → 삭제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종교,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가 그 사업에 <u>직접</u>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종교,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3) 종교시설 건축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문제

#### ① 부과 실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건축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된다. 300평 건축하는 교회에 대하여 7천여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 ② 문제점

종교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익시설로서 일체의 세금이 비과세 되고 있고 개발 부담금도 면제를 받고 있는데 일반 영리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③ 해결방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대상 건축물에 종교시설이 포함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

### 4)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목사 주택의 이주 대책문제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목사 주택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목사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목사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목사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 III. 결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수년전부터 정부와 해당부처에 수차례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건설교통부는 교회건축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를 추진하다가 한기총의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입법단계에서 폐기시켰다. 따라서 이 문제도 기독교계가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본다.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로 하여금 관련 법률시행령의 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전국의 지역기독교연합회를 동원하여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정부가 개정법률안 제출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 된다.

#### 은급부

· 부장 김영주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은퇴자들의 증가, 그리고 시중 은행 금리의 저하 등의 사회적 현상들로 기인하여, 현행 은급제도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급사업의 항구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 식견과 교역자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며, 은급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 1) 제도 전환 및 보완

- ① 퇴직연금 성격을 도입한 제도로의 전환 연구
- ② 유고시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제도화 연구

##### 2)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대

- ① 은급관리시스템(EPMS System)의 홍보 및 보완

## ② 은급부담금 납부방식 개선 연구

연회를 통하여 수납하던 방식에서 개 교회 혹은 각 지방에서 직접 수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연구

## ③ 자문위원(교역자대표, 전문금융인, e-비즈니스 전공 학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적극 운영

## 3)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 ① 기부 헌납 유도를 위한 통보

### ② 정직한 부담금 납부 유도

### ③ 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적극적 기금 관리

### ④ 수익사업 전개 - 영상전화기 보급사업, 기독교전용 추모관 분양사업 등

## 4) 지출억제를 위한 노력

### ① 탈법적 지출 방지 : 연회와 성직위원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탈법적 지출 방지

### ② 계획성 있는 은급금 지급 : 은급금 인상을 지양하고 연령별, 개인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준 금액 차등 적용하는 방안 연구

## 2 현 황

### 1) 2006년도 은급부담금 수납현황

#### ① 2005년도 교회 은급부담금 수납 상황(2006년 10월말 현재)

: 7,875,498,161원 입금(책정액 8,101,467,940원의 97.2%)

· 2005년 중 입금액 : 739,300,765원

· 2006년 10월 현재 입금액 : 7,136,197,396원

#### ② 2006년도 교회은급부담금 수납상황(2006년 10월말 현재)

: 145,761,190원 입금(책정액 8,303,563,000원의 1.75%)

#### ③ 2004년도 교역자 은급부담금 수납 상황(2006년 10월말 현재)

: 4,803,842,493원 입금(4,370명, 약 78억원의 61.5%)

· 2004년 중 입금액 : 1,272,213,264원

· 2005년 중 입금액 : 3,285,059,071원

· 2006년 10월 현재 입금액 : 246,570,158원

## 2) 2006년도 은급지급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10월 현재인원	월평균지급액	연지급액(예상)	평균목회연한
원로목사	705	535,733,250	6,658,925,000	31.6
협동전도사	1	250,000	3,000,000	10
공상퇴회자	4	2,650,000	31,800,000	26.5
원로목사 미망인	141	56,041,250	671,937,500	31.6
별세교역자 미망인	158	41,530,000	497,920,000	20.9
순교·납치 미망인	1	893,750	9,937,520	40
합 계	1,010	637,098,250	7,873,520,000	

### 3 주요업무

- ① 은급재단 이사회 운영 :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연직 이사장인 감독회장의 관장 하에 각종안건을 다루며 관련 관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② 은급금 지급 : 원로목사, 별세 원로목사 부인, 공상 퇴회 목사, 순교자 부인, 협동회원 은퇴 전도사 등, 946여명(2005. 10월 현재)에게 매월 5억 9천 7백 여만원의 은급비를 지급하고 있다.
- ③ 위로금 지급 : 원로목사와 현직목사,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별세하였을 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 장례에 도움을 주고 있다.
- ④ 기금관리 및 증식 운영 : 현직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정성으로 보낸 현금과 부담금, 기여금을 수납 관리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 부동산 임대수입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여 은급금 지급에 용하고 있다.
- ⑤ 부동산 관리 : 종로 하나로 빌딩 8층과 태평로 광화문 빌딩 12층을 본 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함으로 이를 통해 은급기금 축적에 활용하고 있다.
- ⑥ 수익사업 전개 : 각종 수입사업을 통한 은급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⑦ 상담과 정보제공 : 전·현직 교역자들의 인사기록 관리, 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 여부, 은퇴 안내, 기타 원로 목사와 별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있다.
- ⑧ 입법 및 보고 : 감리회 본부의 감독과 지휘 하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은급사업과 관련한 법 제정 및 개정을 입법의회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으로서 관련 관청에 보고하고 있다.

### 4 위원회

## “은급제도의 현황 및 개선안 고찰”

김영주 목사

### I. 서론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시행 이래 은퇴교역자 및 별세교역자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수익사업과 부동산 투자 등을 시행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와 금융상황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었거나 또는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감리교회 은급제도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II. 본론

#### 1)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되는 데 한국은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에 진입 속도를 산정해 본 결과,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있다.

- ①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때
- ②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일때
- ③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때

그리고 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 ① 사회복지제도(국민연금 등)의 운영의 어려움
- ② 노동인구의 비 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
- ③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 ④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공간의 부족
- 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생활
- ⑥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정년퇴직제한으로 인한 노인실업 증가

등이 있다.

감리교회 역시 은급수령 은퇴교역자는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 2) 금융시장변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사태 이후 금리는 꾸준히 하향조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금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콜금리 기준, 각 년도 평균(출처 : 한국은행)

년도	1991	1993	1995	1997	2000	2002	2004	2006
금리(%)	17.07	12.07	12.44	13.24	5.16	4.21	3.65	4.09

이러한 저금리의 금융환경은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갖게 하며, 10%이상의 금리전망을 가지고 시행하였던 각종 연금제도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 3) 국민연금의 예

국민연금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노령인구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해가 갈수록 악화 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 보험료가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까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연금보험료 변동내역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 급여의 6%
- '98. 1월 총 급여의 9%
- 현재 총 급여의 15.9%로 점차적으로 인상 중

또한 보험금의 지급 역시 초기의 본인 최종급여의 60%~90%와 달리 평균급여의 60%로 조정되었으며 앞으로 평균급여의 50%로 조정될 예정이다.

#### 4) 감리 은급제도의 전망

현재의 은퇴교역자의 증가 폭 및 재정운영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약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은급 운용 예상

(단위 : 억원)

년도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지급액	121	130	250	447	733	886
잔고	199	-31	-630	-2,257	-6,122	-1조 2,773

현재의 은급을 그대로 운용할 경우 2017년 -31억원, 2020년 -630억원, 2030년 -2,2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규모는 현재 은급제도의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운영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 시행될 은급제도는 지금까지의 은급형태를 보완하며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 5) 개선안

##### ① 현재의 은급부담금을 올리는 방안

가.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은급의 손실을 각 교회의 은급부담금을 인상하여 충당하는 방안.

나. 문제점 : 은급재단의 기본재산수입 및 기타수입은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은급부담금은 2004년 대비 2020년에는 4배, 2030년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 현행 제도 유지 시 필요한 년도별 부담금수입 및 교역자부담금 예상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부담금 수입	65	95	212	380	623	753
교역자 부담금	15	28	60	150	280	338
비고 (교역자부담금) 2004년대비		186%	400%	1,000%	1,860%	2,253%

## ② 은급 및 전문 금융업체 감리교전용연금과의 병합을 통한 제도적 보완

가. 현재의 은급재단 잔액을 포함하여 각 교회와 교역자가 일정부분 연금액을 부담하여 감리교회 전용상품을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통해 검증된 금융기관에 의뢰,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

나. 제도적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은급기금의 고갈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 할 수 있다.

다. 문제점 : 고령의 교역자 또는 적립기간이 너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교역자는 기존 은급재단의 연금기금을 이용해야한다.

## III. 결론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원로목사, 별세 원로목사 부인, 별세목사 부인, 공상퇴회 목사, 순교자 부인, 협동회원 은퇴전도사 등에게 매월 은급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로목사 또는 현직목사,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인 배우자들이 별세하였을 때 별세교역자 위로금을 지급해 드림으로 장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조 제도는 대한민국 내 기독교 뿐 아니라 어느 종교단체와 비교하여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노령인구의 증가, 저금리, 평균수명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은급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경우 은급의 재정은 급속히 악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은급제도의 개선에 따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은급운영을 외부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으며, 이때는 대 내외적으로 검증된 금융기관 이어야 하며, 또한 감리교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제도로써 운영가능 하여야 하고, 그 선정과정이나 제도의 개선점은 모든 목회자에게 상세하게 공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현행 은급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인 목회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회관관리부

· 부장 조병추 권사

### 1 업무추진방향

감리회관(광화문빌딩), 정우빌딩, 회현상가의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임대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금촌묘지의 장기적인 개발 및 관리대책을 연구·검토한다.

### 2 현황

#### 1) 감리회관

##### ① 총면적

· 토지 : 4,166.60m<sup>2</sup>(1,260.39평) · 건물 : 49,938.81m<sup>2</sup>(15,104.97평)

##### ② 층별소유

- 지하 1층 : 주식회사 동화면세점
- 1층, 2층 :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3층~11층 :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
- 12층 : (재)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 13층~20층 :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③ 소유자별 면적

구분 소유자	건물면적		토지면적		소유비율(%)
	m2	평	m2	평	
동화투자개발	23,059.42	6,975.47	1,924.12	582.05	46.18
동화면세점	4,321.86	1,307.36	360.63	109.09	8.66
소계	27,381.28	8,282.83	2,284.75	691.14	54.84
감리회유지재단	20,171.84	6,101.98	1,683.17	509.16	40.39
감리회은급재단	2,380.69	720.16	198.65	60.09	4.77
소계	22,552.528	6,822.14	1,881.82	569.25	45.16
합계	49,938.81	15,104.97	4,166.57	1,206.39	

※ 감리회관 임대평수 : 총3,887.3평(16층 본부 및 13층 기관 사용분 제외)

#### 2) 정우빌딩

- 토지 : 264.20평방미터(79.92평)
- 건물 : 1,900.29평방미터(574.83평)
- \* 임대평수는 총657.7평

#### 3) 회현상가

- 토지 : 253.90평방미터(76.8평)
- 건물 : 등기=158.68평방미터(48평), 미등기=116.00평방미터(35평)
- \* 임대평수는 총83평

#### 4) 금촌부동산

- 토지 : 1,151,427.00평방미터(348,306평)
- \* 현재 관리인 숙소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30평)를 파주시에 신청 하였음

### 3 주요 업무

- ① 감리회관(광화문빌딩) 임대 및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징수
- ② 감리회관(광화문빌딩) 용역관리회사 관리 감독
- ③ 감리회관(광화문빌딩) 시설(설비)물 보수 및 유지 관리 감독
- ④ 정우빌딩 11층, 회현상가 임대 및 임대료 징수

### 4 위원회

## “기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회관관리 및 수익 증대 업무)”

조병추 권사

### 1. 목표

기본재산 회관관리를 전문적인 인적 시스템을 잘 구성하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자산의 증가와 지출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희망의 감리교회를 실현할 수 있는 수익 확보에 목표를 둔다

### 2. 내용

- 1) 건물의 시설이나 설비의 노후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성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2) 금촌묘지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3) 본부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3. 과정

- 1) 기본재산 회관관리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검토,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며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임대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며 전문 인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2) 금촌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채용했으며 차후 묘지전반에 대한 향후 관리와 장기적인 개발에 대해 검토한다.
- 3) 장기적인 본부 운영의 방법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독립된 단독본부 건물이 필요하며 단독 본부건물을 세우는 재원 마련은 정우빌딩, 회현상가를 매각한 비용과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감리회관 16층(본부), 13층(연회 및 각 단체) 2개 층을 임대하여 비용을 마련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감리교 시작인 정동 및 교통이 편리한 서울 외곽 지역에 단독 본부 건물을 세워 본부 및 각종 단체, 감리교 박물관, 선교센터 등이 들어선 명실 상부한 감리교 본부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

## 1 업무추진방향

### 1) 민원서비스의 개선

만원인들이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민원절차를 간소화하여 팩스나 이메일, 전화, 서신을 통해서도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

### 2) 복지재단 단독의 팩시밀리 설치

현재 민원 처리용 팩시밀리를 타부서와 공동으로 활용하므로 확인 과정 및 처리과정이 불편하고 민원인의 보안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팩시밀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 3) 후원금 관리의 변화

후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부는 각 법인에 후원되는 후원금에 대해 지자체 단체장의 영수증을 발급토록 법제화하였다.

### 4) 사회복지 정보교류의 활용

지역별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복지재단 단독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므로 신속한 정보교류를 나누게 한다.

### 5)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의 운영

감리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그 인증을 감리교대표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 6)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산하 시설의 지원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행정지원 외에 현재 법인이 산하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없다. 산하 시설은 명목상이라도 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을 위해 산하 시설로 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 7) 철저한 시설 관리를 위해 법인의 감사 확대

시설의 증대로 인해 철저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법인 감사를 확대한다.

### 8) 원로원의 연회 별 증설 방안 연구

원로원증설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연구하여 연회별로 필요한 원로원을 자체적으로 증설해 가도록 추진한다.

### 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군 별 사회복지법인 설립 가능성 연구

지방화 시대와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군별 사회복지 법인이 필요한 시기에 그에 맞는 감리교회의 시·군별 법인설립의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 10) 현 원로원 시설의 보수 수리 방안 마련

원로원의 노후화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그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마련한다.

### 11) 감리교 사회복지 사업발전 연구 및 사회복지 인재양성 및 재 교육 수요 조사

감리회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은 사회복지 인재양성에서 기인하므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를 조사 연구한다.

## 2 현황

### 1) 복지재단 기본재산(2006년 11월 현재)

- 대지 37건 12,437.09㎡
- 건물 32건 15,128.87㎡
- 임야 24건 141,988.62㎡
- 도로 1건 48㎡
- 종교용지 3건 2,709㎡
- 답 4건 1,333㎡
- 전 1건 379㎡
- 현금 44,980,100원

2) 원로원 : 38세대, 53명

3) 장학재단 재산(2006년 11월 현재)

기본재산 500,000,000원

보통재산 1,848,562,092원

### **3 주요 업무**

1) 기본재산관리

기본재산의 편입, 처분, 대체, 담보제공 등을 관리한다.

2) 산하 시설 지도관리

① 산하 시설의 지도관리 및 지원

② 연회가 연회 내 복지재단 산하시설을 적극 지원토록 독려

③ 시설 수: 64개

3) 편입재산 처리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출연재산 처리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4) 사회복지사업 상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복지사업방향과 시설설치방안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상담

5) 위탁사업 참여 및 지원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교회 지원 제공

6) 사회복지재단(정보 나눔) 홈페이지 운영

감리교 사회복지재단 단독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설치운영하므로 정보교류와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극대화한다.

## 7) 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과 인증서 발급

감리교인 자원봉사자 인증서를 발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8) 사회봉사캠프 설치 지원

① 서울시와 기독교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회봉사캠프사업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지속 관리한다.

② 서울시내 68개 교회 설치 권장 및 관리

## 9) 법인 이사회

산하 시설의 사업 및 행정 승인과 감리교사회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이사회 개최

## 10) 시설 운영위원장 회의

시설의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을 통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한다.

## 11) 사회복지에큐메니칼운동 참가

기독교사회봉사회,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기독교청년회,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NCC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선교협의회, 등의 관련 활동 참가

## 12) 원로원 관리

38세대의 관리, 위문 교섭, 원로원증설추진소위원회개최, 원로원입주자 모집

## 13) 시설장협의회

산하 시설의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서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모색한다.

## 14) 분사무소 소장 회의

7개 분사무소를 관리하고 분사무소장 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발전을 도모한다.

## 15) 사회복지사업발전 연구 소위원회 회의

감리회 미래 중장기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적 모색을 위해 소연구 위원회 운영

16) 신규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산하 시설지원

산하시설의 지원을 신규 복지사업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발 지원한다.

17) 산하시설의 정기 감사

감사 강화로 시설의 업무가 정확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한다.

18) 성탄절헌금의 십일조 모으기 운동

① 성탄절을 기해 교회의 성탄절 헌금 중에서 십일조를 모아 감리교 사회복지시설을 돕는 일에 사용토록 모금운동 전개

② 모금목표: 1천만원

19) 법인 안내서 발행

감리교사회복지사업 홍보와 시설 안내를 위해서 안내서를 발행한다.

20) 해외 선진복지시설 견학교육

선진국 사회복지시설을 배워 시설운영위원장, 시설장, 시설 직원, 법인 이사, 감리회사회복지관련 기관장, 등의 전문성 배양과 견식을 넓혀 적용 실행하도록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21) 사회복지교육수요조사

감리회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은 사회복지 인재양성에서 기인하므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를 조사 연구한다.

22) 장학재단 업무

① 이사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장학사업의 발전을 증대한다.

② 장학생 모집과 심사,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연회목회자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 연회 평신도 고등학생자녀, 신학대학생, 대학원생, 감리교계통 대학생 및 고등학생,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 심사,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③ 장학관련 행정 업무

법인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를 한다.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비고
장단기 사회복지발전 정책연구			
원로원 증설 연구			

#### 5 정책소고

### “감리회의 원로원 증설 정책의 방향”

김일환 목사

1) 은퇴 목회자 수 증가와 예상되는 많은 빈곤층 은퇴 교역자와 은퇴 후 생활대책으로 교회 후임자 결정시 자리값 주고 받는 현상 발생

한국감리교회도 은퇴하는 교역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감리교회는 일찍이 은급제도를 수립하여 목사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을 대비해왔다. 은급비가 연당 25,000원으로 70세 정년까지 최대한 45년을 목회한다고 할 때에 1,12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교회들 가운데 은퇴 후 거주할 주택 및 퇴직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대형 교회들 중에서 일부분 만이 실행 가능한 실정이고 40% 이상의 미자립교회 상황을 볼 때에 다수의 은퇴자들은 은급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한다. 자립교회라 해도 많은 자립교회는 은퇴목회자의 주택 및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실정일 것이다. 이럴 경우 이 은급비가 은퇴 후 생활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며 특히나 주택마련에는 턱없이 모자를 것임에 틀림없다. 물려받은 집이 없는 한은 전 월세로, 또는 자녀에게 의존하던지 해야 한다. 이와같은 은퇴 후 불안정한 생활 걱정으로 후임자와 자리값 주고받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 2) 은퇴 목회자 현황

2005년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목사 수는 608명으로 전체 교역자 수의 7.32%이다. (2005년도 교역자 현황:출처 선교국 제공, 감리교 홈페이지) 2006년도 1월 10일 현재 은급비를 받고 있는 원로목사 수는 648명이고 사모만 은급비를 받고 있는 수가 294명이다. 이 현황에서 보면 원로목사 수가 2005년도 608명에서 2006년도에는 648명으로 약 6.6%가 늘어났다.

2003년부터 4개년 동안의 은퇴한 교역자 수 변동 현황을 보면 년 평균 75명이 은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표 2 : 연도별 은퇴목사 현황

(자료출처 : 은급부 제공)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	합계
2003년	10	4	8	6	5	2	4	8	9	5		61
2004년	14	10	18	4	3	5	1	11	10	2	11	89
2005년	9	11	12	10	2	5	3	8	5	5	4	74
2006년	13	8	9	9	3	6	7	4	6	8	3	76
년평균												75

## 3) 은퇴목회자의 원로원 사용현황

현재 원로원의 가구 수는 38세대이며 그 중에서 부부입주세대 수가 25개, 독신자세대가 12개이며, 관리인이 1세대를 사용하고 있다. 독신자 가구 12가구는 부부가 생활하다가 한 명이 작고하여 독신이 된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2006년 5월 말 현재 원로원의 전체 인원은 59명이다. 원로목사 총 수 인 648명 중에서 2006년 6월 말 현재 원로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로목사 비율은 약 5.7%이다.

## 4) 원로원 부동산 현황(인천시 남구 주안5동)

사회복지재단에 편입된 원로원 부동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① 대지 9-1      1,467.1㎡    748,221,000원
- 9-35      351.2㎡      189,648,000원
- 11-5      327.2㎡      166,872,000원
- 11-23      226.1㎡      108,528,000원
- 12-1      1,077.6㎡    517,248,000원    합계 3,449.2㎡(1,045평) 1,730,517,000원
- ② 건물 9-1지상    959.58㎡    952,747,590원



⑥ 원로원의 기능성은 원로목사 전용시설을 원한다. 원로원 기능성은 수련장이나 기도원 성격을 가진 것(28%)이나 양로원을 겸한 것(3%) 보다는 목회자만을 위한 목회자 전용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6%)

원로원 운영 형식은 운영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34%) 보다는 주요 공시설물들에 대한 책임은 본부나 연회가 지고 생활 상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원로원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

## 6) 원로원 증설 추진 방향(안)

### ① 연회별로 원로원을 확보하는 방안

설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방향은 감리회본부가 정책을 제시하고 연회와 협의하여 연회별로 요구되는 수요를 연회가 주도적으로 건설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연회가 원로원 주택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 연회 별로 약 20가구를 소유한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원로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나) 연회별로 토지를 구하여 원로원을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 ② 본부 기본 재산에서 가용 토지를 제공하고 연회가 비용을 들여 건축하는 방안

본부가 기본재산 부지를 제공하고 연회가 그 부지 위에 연회의 원로원을 연회가 건축하는 방법이다.

### ③ 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본부가 주도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가. 현재 원로원을 처분하여 가용 기본재산 위에 건축하는 방법

현재 원로원을 매각하여 본부 기본재산 중 가용한 부지에 현 원로원을 매각한 매각 비용으로 원로원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방안의 과제는 현재 원로원 대지를 매입할 업자를 발굴해야하는것이다.

#### 나. 현재 원로원 대지 안에 있는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증설하는 방안

현 원로원 가용부지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9- 단독주택지 99평

“ 70평

밭이 딸린 연립주택지(구관) 300평

총 469평

#### 다. 현 원로원은 유지하고 본부의 다른 가용한 기본재산을 이용 원로원을 새로 건축하는 방안

가상 건축 규모는 건축 형태는 연립 또는 아파트형으로 1 가구당 15평(전용면적 12

평)을 기본으로 2인실 100가구(부부용 70개, 독신자미망인 용 2인실 30개)를 지을 때에 총 건평이 1,700평으로써 주거동 1,500평 (1동 6층)과 사무동 200평(1동 2층) 문화실(20평), 식당(20평), 사무실(10평), 기계실등(20평) 예배실(130평))이 필요하다.

총 건축경비는 약 69억 5천만원을 가상해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건축비 1,700평에 평당 400만원씩 총 68억원과 시설장비비 1가구당 150만원 씩 100가구에 150,00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라. 건축기금 해결 가상 방안

##### · 비용 전체를 모금에 의존하는 방안

이 방안은 원로원확충 비용을 위한 모금을 총회의 결의를 받아서 비용 전체를 교회에서 모금하는 방안이다.

##### · 일시 부담금제도를 2년간(년경상비의 0.5%씩) 임시로 도입하는 방안

이 방안은 총회에서 2년간 일시적으로 원로원 확충을 위해서 교회 경상비의 0.5%나 1% 선에서 일시 부담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 · 사용자 또는 사용자 교회에게 건축실비로 임대하는 방안

건축을 하여 사용자에게, 또는 은퇴할 목회자를 둔 교회가 은퇴 목회자에게 지불할 주택 마련비로 본 원로원을 임대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1가구에 건축면적을 15평(전용 12평: 2인 가족 기준) 이라 할 때 1가구당 임대료로 6,000~ 7,500만원선을 가상해볼 수 있다.

임대 후에 부부가 생활하다가 한 쪽이 독신이 되는 경우에는 룸메이트 1명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는 반액으로 하고 나머지 반액은 본인 또는 임대교회에게 환급한다. 룸메이트가 뗄어지지 않을 경우는 하던대로 한다. 임대료를 사용자가 부담할 때는 15년 까지 생활하다 퇴원 또는 사망하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가족에게 100% 환급, 15년 이상은 50% 환급, 사용자가 사망 후 임대료를 사망자나 그 가족이 복지재단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망 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대료는 복지재단 원로원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할 수 있다.

임대료를 사용자의 교회가 부담할 때는 5년 이하 생활하다 퇴원 또는 사망하면 교회에 100% 환급, 5년-8년 생활 후 퇴원 또는 사망하면 50% 환급, 8년이상-10년까지 생활 후는 30%환급, 11년 째는 그 임대료를 복지재단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홍보출판국



## 총무 인사



총무 김광덕 목사

“〈희망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하는 홍보출판국!”

영성과 선교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고 세계 교회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한국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웨슬리의 전통과 신앙 유산이 가장 성서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아직은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을 통하여 점화된 〈희망 프로젝트〉인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세계로 나가는 감리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한 알의 썩어진 밀알처럼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스타가 아니라 어시스트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홍보출판국 직원 일동은 다짐하는 바이다.

특별히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급한 마음이나 성취욕을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위로는 감독회장과 홍보출판국위원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5,700 교회 8,400 목회자와 150만 성도들의 청지기 요셉의 삶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일을 함으로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교훈삼아 짧은 시간에 장단기 〈희망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실무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홍보출판국의 사역을 보고한다.

### 1) 당면 과제

기본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홍보출판국이 하는 사업 중 중요한 일은 출판물을 기획하고 출판하여 영업함으로 세금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이익을 남기어 〈희망 프로젝트〉를 위하여 선교비를 후원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운영구조다. 그러나 신뢰가 손상되고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 「신앙과 교육」)에 천문학적인 미수금이 쌓이고 단행본과 달력에서도 미수금(2억)이 쌓이므로 인쇄업체에 인쇄물을 맡기고 결재를 빨리 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체에 일을 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받을 것은 많으나 쓸 돈이 없는 상황이 홍보출판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정직성과 협동정신을 믿기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1,000원 한 장 빈틈없이 투명하게 관리함을 증명함으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홍보출판국, 5,700 교회, 150만 성도가 믿고 협력하고 이용하는 홍보출판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짐하고 거의 날마다 청계천 맑은 물 따라 걷고 뛰면서 다짐하는 바이다.

## 2) 해결과제

① 미수금 현황(2006.10.31 현재) : 10억 3,600만원

·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 「신앙과 교육」) 365,417,740원

· 단행본 201,511,630원

· 달력(2004~2006년) 123,770,520원

· 「기독교세계」 영인본 5,400,000원

· 기타 340,000,000원

② 창고에 있는 재고 도서 (폐기도서 포함) : 562,917,790원

③ 미지급금 : 1,746,673,770원(오성인채소 외 ...)

④ 당기 순 손실액 : 279,000,000원

⑤ 정기간행물 (「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 「신앙과 교육」)은 물 먹는 하마와 같고 뜨거운 감자와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 1933년부터 한국 교회와 함께 걸어온 월간 「기독교세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리교회 유일할 교단지다. 또한 「강단과 목회」는 8400명 목회자를 돕는 유익하고도 필요한 필독서다, 「신앙과 교육」은 다 아는 대로 감리교회 미래의 주인공이요 세계구원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사용 전문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암담하기만 하다. 활로를 찾아야 하고 독자가 즐겨찾을 뿐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경쟁력 있는 탁월한 잡지를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시간을 끈다고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도하고 중지를 모아 길을 찾고 문을 열어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⑥ 광고수주에 충력을 다 해야 한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기독교잡지, 그리고 세상 전문잡지의 형이하학적인 볼거리, 그리고 인터넷 문화 속에서 교단이 운영하는 정기간행물로는 적자일 수밖에 없다. 광고비를 선교비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월 1,000만원 × 12개월=1억2천만원)

⑦ 최고 수준의 양질의 도서를 만들어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인력 부족 : 「기독교세계」를 1인이 편집하고, 영업부장 한 명이 430개 서점을 관리하고 있다.

· 장비 부족 : 차량 등

· 1년제 계약직(3명)과 10년 넘게 근무해도 승진이 없는 구조에서 신바람경영에 문제가 있다.

· 투명성과 정직성을 통하여 신뢰받는 홍보출판국으로 소문이 나게 해서 5,700교회 8,400 목회자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 1. 업무개요

홍보출판국은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출판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나눔의 행사를 통한 희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홍보출판국은 문서를 통하여 감리회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감리회를 널리 알리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2006년도 홍보출판국은 “희망”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기획, 출판, 출판행정, 영업을 해왔다. 사순절 절기에는 사순절 묵상집을 60,000부 발간, 그중 규모가 작은 교회를 위한 배려로 약 42,613부를 무상 지원하였다. 또한 미자립 403교회에 달력 12,090부(39,879,000원)를 무상 지원하였다. 이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정책 이었다. 희망과 주제가 일치하는 「다시 희망의 땅을 밝아가자」를 발간하였고,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을 발간하여 유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발간된 다량의 도서들은 희망과 무관하지 않다.

국외의 출판문화와 도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존더반 등 외국계 출판사 이트를 썬핑하고, 또한 국내도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감리회출판문화의 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실제 적으로 단행본의 경우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단행본 매출액 2005년 1~10월 :109,540,391원 / 2006년 1~10월 : 191,888,250원으로 75.3% 증가)

감리회의 영업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영업부 직원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 기다리는 소극적인 마케팅이 아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변화를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다.

2006년 8월에 이 땅에는 아주 큰 일이 있었다. 그것은 WMC 서울대회였다. 홍보출판국은 이때 한국 감리회의 출판문화와 도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위하여 출판 부스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참가한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Wonderful’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세계의 십자가展’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십자가를 전시하였다. 많은 외국인들이 전시물을 보고 감탄 하였고 국내인들도 십자가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부러 상경하기도 하였다.

홍보출판국은 작은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1호점 홍천에 이어 2호점으로 합천 초계중앙교회에 어린이 희망의 도서관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놓여준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 2. 국 위원회

위원장	김기택 감독		
위원	연회	목사	평신도
	서 울	김동걸	김재민
	서울남	안성옥	유용준
	중 부	신용대	한재룡
	경 기	이세원	이익주
	중 앙	최재화	김원석
	동 부	김한구	김정수
	충 북	문성대	최길원
	남 부	강정일	박병재
	충 청	진재복	문용찬
	삼 남	안영명	장경출
전문위원			

## 3. 업무구분

부서	업무
총무	출판, 경영, 인사 및 관리 총괄
정기 간행부	1. 월간 「기독교세계」 출간 2. 격월간 「강단과 목회」 출간 3. 연간 「하늘양식」 출간 4. 홍보영상물 제작 5. 집필자 학교
출판부	1. 출판물 기획, 편집, 출판 2. 단행본 교정교열, 편집 기획 3. 각종 교재 출간 4. 행정 사무 5. 서점관리 및 영업 6. 구독자 관리, 사무, 전산업무 7. KMC 서적 판매 및 발송 8. 어린이 희망의 도서관 설립 지원

#### 4. 발간자료

신간도서 및 교재 발행 (2006.1-11)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여름성경학교교재	여름성경학교교재	유치부 공과 외 9종	
2	유치 교육 교재	짜깁예수님	유치부 교사용 외 11종	
3	아동 교육 교재	짜깁예수님	유년부 교사용 외 55종	
4		주님의 기도	학생용 외 2종	교리교재 시리즈 1
5	청소년 교육 교재	파워스톱	후엠아이 외 6종	
6	일반 교육 교재 (사경회 포함)	속회공과	성인 교육 교재	
7	묵상 자료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기 묵상 자료	전국 개체 교회에 100부씩 무료배포
8	정기간행물	기독교 세계	목회정보 및 감리교 소식	
		강단과 목회	목회자료(설교, 예화 등)	
		신앙과 교육	교육국 기획·편집	
9	단행본(신간)	교육목회세우기 (교육목회자용)	교양 및 교회교육 훈련서	
		교육목회세우기 (학습자용)	“	
		교육목회실천	“	
		위대한 영성가들	영성가들의 생애, 신앙	
		웨슬리영성수련프로그램	실제적 영성프로그램	
		스트레스 뒤에도 삶이 있을까?	교양	
		예수님의 사람(1)	성경교재식 단행본	
		예수님의 사람(2)	“	
		포도나무가지	묵상시집	
		더언을것도누릴것도없는 삶	전생수 목사 유고집	
		웨슬리의 뿌리	웨슬리 선조들의 삶과 신앙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존 웨슬리의 삶과 신앙	
		사진으로 따라가는 존 웨슬리	웨슬리의 삶과 유적지 순례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9	단행본(신간)	다시 희망의 땅을 밟아가자	설교집	
		크리스천 에센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해설서	
		19차 WMC대회 화보집	8천부 제작 발행	
10	가정예배서	하늘양식	57,000부 발행 (선교용기증 포함)	
11	기타 홍보물	전도지 6종	감리회 홍보영상물	
		감리회 홍보 CD	무료배포	
12	서식 및 증서류	세례증서 외 11종	각종 증서 및 케이스	
13	교리와 장정(수정판)	역사와 교리, 감리회 법		
14	달력	2007 탁상달력(십자가)	4천부 발행	
		2007 신앙화달력(믿음의 길)	1만부	
		2007 숫자달력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2만부	
15	목회수첩	2007 목회다이어리	5,500부 발행	

## 5. 각 부 정책

### 기독교 세계부

· 부장

#### 1 업무 추진 방향

홍보출판국은 각종 문서의 출판 보급으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도서 발간을 통해 교회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회지도력의 성숙, 교인의 신앙 향상과 기독교적 인격 도야 등을 돕는 것이 목표다. 또한 도서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학문과 문화를 익혀 기독교 문화 창달에 힘써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든든한 일원이 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세계부는 월간「기독교세계」, 격월간「강단과 목회」, 월간「신앙과 교육」, 그리고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등 각종 정기간행물 발간을 주 업무로 하여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을 통해 감리교회의 각종 정책 및 활동을 내외에 알리고, 신학과 신앙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교회가 선교과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게 돕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게 격려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신앙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감리교회의 주체성과 일체감을 다져갈 수 있도록 희망 발전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 2 현황

## 3 주요 업무

### 1) 월간 「기독교세계」

#### ① 2007년 편집방향

「기독교세계」는 감리교회의 정책과 신학 동향, 개체교회의 활동, 감리교인들의 신앙생활 등의 정보를 대 내외에 알리면서, 감리교회의 역사를 간직하고 담아내며 미래를 열어가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07년 편집 방향을 잡고자 한다.

가. 감리교회의 정책 홍보와 교회 선교현장 소개

나. 신학과 현장과의 대화

다.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심층 진단과 기독교 문화 창달

라. 교회 밖(타교파, 사회, 세계)을 향한 창구 역할

마. 기독교적 생활양식 추구

바. 사회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단초 제공

사.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장 마련

아. 기독교적 공동체의식 배양과 신앙생활 나눔

자. 교회의 움직임 소개와 공고

#### ② 업무계획

가. 월간「기독교세계」는 매월 1일에 발행하여 년 11회 발행한다.

나. 소예산 교회들의 무료 공급을 위한 농, 어촌교회 「기독교세계」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 1교회 1부 이상 정기구독자 증대

라. 광고 수주활동을 강화하여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 적자를 줄여나간다.

## 2) 격월간 「강단과 목회」

### ① 편집방향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강단과 목회」는 감리교 목회자들의 목회에 도움을 주는 전문잡지로 신학사상,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및 설교, 수요성서강해, 목회자료 등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메시지를 담는다.

### ② 업무계획

가. 격월간 「강단과 목회」 년 6회 발행

나. 다양한 집필진 발굴

다. 정기 구독자 수 증대

## 3) 가정예배서 「하늘양식」

### ① 편집방향

년1회 발행되는 가정예배서「하늘양식」은 기독교세계 및 기독교 타임즈에 「하늘양식」의 원고를 공모해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원고를 모집하여 11월중에 발행한다. 감리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매일의 일과를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도록 복음 중심의 가정예배서를 만든다.

가. 집필진 - 감독회장, 10개 연회 감독, 전직감독, 현상공모한 집필진.

### ② 업무계획

가. 2008년도 가정예배서 「하늘양식」기획 제작 및 판매

나. 교계 신문,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다. 교회에서 가정예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회사진, 담임자 인사, 예배안내 등이 들어간 표지를 개교회별로 제작해 준다.

## 4) 제 2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신앙수기 공모

① 목적 : 신앙수기 공모를 통해 비기독교 장애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감격을 간접 경험하게 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독교 장애인과 가족들 간에는 신앙생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더불어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그들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자리이다.

② 대상 : 장애인, 장애인 가족

③ 일시 : 장애인 선교주일이 있는 4월 중에 실시

④ 방법 : 월간 「기독교세계」를 통해 신앙수기 결과 발표

#### 5) 제11회 “집필자 글쓰기강습회”

- ① 목적 : 문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다 성숙된 위치에서 집필할 수 있도록 집필능력을 북돋우고, 감리교회 내 유능한 문필가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 ② 대상 : 글쓰기에 관심 있는 교역자
- ③ 내용 : 작가와의 만남, 신앙이 담긴 글쓰기, 문장다듬기 및 글쓰기 워크숍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기독교세계편집		
신앙과교육편집		
하늘양식편집		
홍보영상		

### 5 정책소고

#### 출판부

· 부장 장홍식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홍보출판국은 출판과 교단 홍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에도 분명한 추진 방향이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위해 〈희망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할 것이다. 그러므로 출판도 웨슬리의 영성을 뜨겁게 하는 도서들과 평신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서들을 발간할 것이다. 출판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홍보출판국의 살림을 운영해 나가며, 운영하고 남은 이득금은 희망을 나누는 사업에 투자하며, 2007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려 더 많이 희망을 주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 2 현황



### 3 주요 업무

#### 1) 단행본(도서출판 KMC)

2007년은 교회부흥과 세계선교에 이바지하고, 존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제자화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기획하여 발행한다.

- ① 기획도서 제작 : 감리교회의 희망에 관계된 도서들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필자를 발굴하여 양질의 도서를 기획한다. 희망을 전파하는 교회를 발굴하여 그 활동 상황을 알리는 실천사례집 「희망」을 비롯하여 다수의 책을 발행한다.
- ② 목회 및 신학도서 : 목회학, 예배서, 목회자료집, 성서강해서, 지도력 향상 도서와 존 웨슬리의 영성을 주제로 한 신학도서를 발행
- ③ 전도지 개발 보급, 시리즈물 개발 : 자연명상물 시리즈와 영남선교대회와 교회부흥에 일조하는 다양한 전도지 개발.

#### 2) 교재

- ① 교회학교 교재(짜깁 예수님 8권 완간, 유치부교재 4권, 파워스툼 시리즈 완간):교회학교 아동부와 학생부에서 사용하는 교재다.
- ② 여름성경학교 교재 (발간도서목록 참조) : 양질의 교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2007년 4월까지 완성
- ③ 새신자 교재, 교리교재(주님의기도, 사도신경 )
- ④ 사경회 교재 등

#### 3) 절기 상품

- ① 「속회공과」 년1회 발행 (인도자용 70,000부, 학생용45,000부, 인도자 가이드북 4,000부)
- ② 「하늘 양식」 년 1회 발행  
가. 일반교회용 : 30,000부  
나. 교회특별판 : 27,000부
- ③ 수첩류  
가. 목회수첩 1회 (5,500부)
- ④ 카렌다(3종) (34,000부)

#### 4) 홍보물 및 전도상품 제작

- ① 홍보물: 전도지(만남, 믿음, 약속, 행복), 감리회안내 홍보물, WMC 화보집
- ② 상 품: 목회용품, 십자가, 새신자 선물, 음반CD

#### 5) 출판 수익금의 나눔 정책

- ①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 도서 지원(속회공과, 하늘양식, 교재 도서 등을 확대)
- ② 해외선교지에 도서보내기
- ③ 전도지 미자립교회지원운동
- ④ 「하늘양식」 선교지, 교도소, 학교 무상지원 5,000부
- ⑤ 「속회공과」(학원선교, 교정선교를 확대해 나갈 것임)
- ⑥ 교회어린이 희망의 도서관 설립지원운동 : 홍천 1호점을 개관하고, 합천 2호점을 개관을 지원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선교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불씨가 되었다.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목회와 신학도서 개발		
평신도도서 개발		
NIB 번역		
명상도서 개발		
어린이희망의 도서관		

### 5 정책소고

##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2007년 실천방안

장홍식 목사

#### 1. 영업 홍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원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점 : 가장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판매 방식이다. 각 거래 서점에 KMC 도서 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증진 및 홍보를 도모하겠다.

2) 온라인 쇼핑몰(www.kmcmall.co.kr) :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미비로 유명무실하였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이므로 외상거래를 원하는 교회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도록 외상거래를 최소화하겠다.

3) 홍보 : 현재의 도서시장은 공급이 넘쳐나기에 적절한 상품 정보의 제공과 홍보 없이는 판매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거기에는 전문학적인 홍보비가 필요한 형편이므로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교재 및 성인공과(속회공과, 하늘양식)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 2. 도서출판 KMC(단행본)의 〈희망 프로젝트〉

도서출판 KMC는 한국 감리교회의 정체성 확립, 감리교 신학 발전에 이바지, 변화하는 시대에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지표와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까지 지평을 열어 주고 평신도들을 제자화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코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700 감리교회가 감탄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여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감리교회 부흥운동에 동력이 될 것이다.

2) 잡다한 일보다는 가능한 보다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여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국 교회 1,000만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사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할 때다. 세상의 도서는 10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있으나 신앙도서에서는 드물어 특히 KMC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할 때다.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상해 본다.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3) 모델이 없이 세상을 따라 교회까지도 본질을 떠나 소유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는 오늘 의 한국 교회에 모델을 찾아 읽고 배우는 도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델 선교사, 모델 원로목사, 모델 평신도, 모델 교회, 모델 어린이와 청소년...

4) 121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감리교회에 과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패배주의와 경쟁주의로 감리교회의 영웅이 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홍보출판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문서로 큰 나팔 불어 홍보함으로 바위얼굴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다. 기대하시고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3.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강단과 목회」「신앙과 교육」)

가정예배와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재인 하늘양식은 타 교파에서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뜨거운 감자요, 계륜이다. 발간할수록 손해이고 매스컴과 미디어 홍수시대에 미운 오리새끼처럼 희망이 없으니 암담하기만 하다. 특별히 「기독교세계」(1933년 창간) 915호 발간으로 초교파 한국 교회에 제일로 역사가 깊은 월간 잡지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세상의 사업이라면 벌써 망하고 도태되었을 것이다. 홍보출판국에 속한 14명의 직원이 땀 흘려 일한 열매를 쏘아 부어도 모자라는 과제물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상의해도 해답이 백인백색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IMF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2007년 상반기에는 최대공약수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홍보출판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존 웨슬리의 영성과 삶을 회복함으로 감리교회의 〈희망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루터와 칼뱅보다 사랑하고 홍보하며 닦아야 할 신앙과 삶의 모범이 존 웨슬리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700 교회 8,400 목회자 150만 성도가 ‘웨슬리’로 사상화, 생활화, 기도화, 현장화 된다면 감리교회는 한국과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다. 21세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존 웨슬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도서출판, 홍보, 구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웨슬리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8세기 영국을 살리고 19세기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하였고 20세기 미국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처음 감리교도들처럼 한국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5.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희망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홍보출판국의 기본 사역인 홍보와 출판사역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조금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기도하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고 다윗처럼 희생하며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하루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총무와 철인(鐵人)처럼 사역하는 직원들(예: 기독교세계를 한 사람의 직원이 만드는 직장,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장, 토요일이 휴무임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장)이 있기에 홍보출판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문서선교사와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전문성의 향상으로 최고의 도서를 만들어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본부 사역을 후원하는 홍보출판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6. 협력하고 후원하는 홍보출판국

홍보출판국의 사역 자체로는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 하기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십자가(더하기와 희생)의 길이다. 특별히 가장 밀접한 곳은 교육국이다. 그러나 마지막 포커스는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이고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무국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세포와 핏줄 그리고 뼈와 관절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홍보출판국은 섬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장 많은 주인(고객)이 방문하는 본부의 얼굴과 같기에 모든 직원들은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7. 시작하고 계속해야 할 〈희망 프로젝트〉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슬로건 아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희망도서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워진 곳을 리서치하고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므로 장소는 오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완벽한 도서관을 세워 주는 것보다 ‘문 열기’로 해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미 수많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 도서실을 검증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증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홍보함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양육하고 독서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 홍보출판국이 지향하는 문서선교사역이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8. 〈희망 프로젝트〉 “영남선교대회”까지 무엇을 할까?

1) 홍보출판국 총무 사무실에 ‘간이 도서관’을 만들어 본부 직원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섬길 것이다.(ex : 삼성 일렉트릭 사)

2) 스스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청계천 땅 밟기 기도산책”, “광화문 빌딩을 중심으로 여리고 성 함락 전도하기”, “불씨” 기도운동을 전개함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본부가 마가 다락방이 되도록 할 것이다.

3) 150만 독서운동 “책만 읽어도”(가칭) : 책만 읽어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흥한다. 선교사, 미자립교회, 군 선교사 등에게 무료(후원금 및 광고 선교헌금)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운동을 발전시켜 희망의 감리교회를 세우고 미래 고객을 확보토록 한다.

4) 정직한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도 부흥된다. 5,000년 민족의 역사 속에 책에 대한 잘못된 문화가 있다.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삶이다. 그러나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에 흔하디흔한 게 책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 있으면 살 수도 있고 밀린 도서 대금을 갚을 수 있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되듯 밀린 도서 대금을 완납하여야 홍보출판국이 든든히 설 수 있고 희망의 프로젝트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선교비” 차원에서 완납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감리교회의 저력을 믿는다.

5) 지금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다. 평신도 단체와 협력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의 주소(이메일) 입력시키고 모든 교회 목사들을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이루어 통신비를 절감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를 홍보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6) “희망투어”에 가능하다면 KMC 이동서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선정하여 문서 선교 활성화를 위한 1일 부흥회와 특별 문서 선교 헌금도 접수토록 한다.

7)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동력화 되어야 한다. 기도 십자가를 제작, 보급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많은 지도자들의 조언도 듣고 기도하면서 실천 가능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희망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실천해서 세계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는 데 불쏘시개가 될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는 바이다.

교육훈련원



## 원장 인사



원장 정용치 목사

한국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교육훈련원은 타 교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그 존재성을 인정받아 왔다. 설립 당시 그 목적과 취지는 교역자와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신앙과 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 교회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십 수 년 간 교육훈련원의 본래적 사명을 기대만큼 다하지 못한 것을 차제에 깊이 반성하면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26차 총회를 통해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교역자에 대한 재교육 및 평신도의 영성교육을 위하여 교육 훈련원이 그 임무를 관장하도록 명시됨과 동시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 10여년 이상 된 정회원 목회자들에게 의무화된 연장교육의 일환으로서 정회원연수교육이 2006년부터 시행되면서 교육 훈련원의 그 본래적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교육 훈련원의 주요업무로는 정회원연수교육을 통해 현장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일과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의 일환으로 미국 UMC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길”(Walk to Emmus)라는 탁월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도입하여 한국적 교회 토양에 맞는 지도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교육 훈련원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프로젝트에 발맞춰 지역 교회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교육적 기능은 무형의 자산으로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미래를 열어 가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 지도자들의 신앙과 자질을 고양시키지 않으면 희망적인 미래 교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훈련원은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그 본래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1. 업무 개요

본원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며, 감리교회가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교회의 전반적인 과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제26차 총회에서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정회원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연간 500명의 정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충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엠마오 가는 길’(Walk To Emmaus)도 모든 제도와 내용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미국연합감리교회의 공식승인을 얻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 향후 교회지도자들의 영적성장과 지도력 개발에 좋은 도구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2007년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교육훈련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 개신교회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와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비판이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겠다는 의지이며, 일어서고자 하는 이들을 부축하여 함께 그 길을 감으로써 몸으로 희망의 길을 열겠다는 결단의 표현인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가 자임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훈련원에서는 현재의 교회적 위기는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위기이며, 따라서 ‘교회갱신’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고, ‘교회갱신’은 ‘교회지도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집중점을 정하였다.

첫째로, 교회지도자들의 변화를 위한 ‘영성’과 ‘지도력(Leadership)개발’이다.

‘영성’이 생명력이라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영성’ 없는 ‘리더십’은 무기력하고 ‘리더십’ 없는 ‘영성’은 무능할 수 있다. ‘영성’을 개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훈련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은 지탄과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지도자들에게서 ‘영성’과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러

한 긴박한 요구 앞에서, 교회지도자들의 ‘영성’과 ‘지도력’ 계발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과 투자의 일차적인 결실은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십(Partnership)형성’ 일 것이다. 감리교회는 이미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간의 협력과 조화 없이는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된 공동의 신앙고백과 자기의 사명과 은사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제사장적 사명을 고백하는 평신도사역의 시대, 교회가 사회를 부흥시키는 동반적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개체교회의 부흥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로 인한 사회의 부흥을 열매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평신도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신도지도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목회자와 건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감리교 영성훈련체계를 수립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프로젝트’ 시행이다.

그동안 개체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개별교회 각자가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목회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실재하고 있을 만큼 현재의 목회현실은 목회자 한 개인의 역량이나 열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는 교단적으로 목회자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구체적으로 목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미 선진적인 교회개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들의 경우, 목회사관학교를 통해 개척목회자를 준비시키고 개척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 감리교회도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개척과 자립과 부흥을 위한 교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그 출발로 희망목회포럼을 개설하여 각 계의 전문가들과 현장 목회자들로 목회의 패러다임을 연구케 하여 관련 유형별로 모범을 찾고 그 노하우를 공유케 하는 일과 목회컨설팅 시스템을 설치하여 개체교회를 실질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병행하며, 상생목회의 실현으로 감리교회 목회현장에 희망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 2. 국 위원 및 이사

운영위원장	최승일 감독
-------	--------

### 3. 업무구분

부서	업무
원장	1. 교육훈련원 대표 2. 교육훈련원 제반업무 총괄 3. 유스호스텔 제반업무 협력 관장
연수원 (일영)	1. 정회원 연수교육 운영 2. 영성훈련 Walk to Emmaus 운영 3. 사역자, 평신도 연수교육 운영 4. 기타 위임 및 협력 차원의 연수교육 운영 5. 감리교 영성훈련체계 수립 6. 희망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연구
교육원 (입석)	1. 산돌학교 운영 2. 교육원 사무 행정 3. 목회자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관장 4. 영성훈련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연대 프로그램 운영 6. 건강교실 운영

### 4. 발간자료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자료 집	2006년도 정회원연수교육 자료집(A)	Belt-A 과정 자료집 전도학, 예배학, 설교학	
2		2006년도 정회원연수교육 자료집(B)	Belt-B 과정 자료집 목회행정, 기독교윤리, 교회사	
3		새신자 정착과 치유 목회 상담	심방전도사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 다임의 사역 이해를 위한 세미나용 자료 모음집	
4		웨슬리 전통과 포스트 모던교회의 설교	목회자들에게 포스트 모던에 설교 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용 자료집	

번호	구분	제목	내용	비고
5	자료 집	하나님의 목회	영성목회, 성장과 교육목회, 실천 목회 등을 통하여 목회현장에서 생각해야 할 목회의 본질을 지적인 감리회 목회자 전문교육 시리즈	
6		어두움에 빛을 세상에 생명을	정회원연수교육 및 목회대학원자료	
7		수련목회자 영성 수련회 자료집	수련목회자들을 위한 영성수련회 자료집	
8		폭력 극복과 에큐메니컬 운동	폭력극복 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료집	
9		가정회복과 심방사역	가정회복과 심방사역에 대한 심방 전도사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한 심방전도사 세미나 자료집	
10		교육 목회 세미나	교회학교 성장을 통해 교회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교육목회 세미나 자료집	
11		복지사회와 새 목회 패러다임	정회원 연수 교육과 목회 대학원 연구 자료집	
12		현장 목회의 길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은 현장 목회 측면에서 재조명한 강의집.	
13		제3회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자료집	수련목회자를 위한 영성수련회 자료집	
14		전문 목회 세미나	바른 예배를 위한 성만찬 예배의 의미와 새로운 모색을 수록	
15		청년을 새롭게	기독교청년 교육 훈련 지침을 위한 연구 자료집	
16		양육과 치유사역의 새 패러다임	심방전도사 사역 세미나용 자료집	
17		노인 복지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복지 목회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18		변혁기의 목회 정체성	변혁기에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정체성을 재고하게 하는 정회원 연수 과정과 목회대학원 자료집	

## 5. 각부 업무

연수원(일영)

· 부장(대우) 김용택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2006년도 교육훈련원의 사업방향은 본부 차원의 성격에 걸맞는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회원연수교육과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엠마오 가는 길’을 정착시켜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2007년에는 2006년도 사업의 기반 위에 교단적인 과제인 ‘희망프로젝트’를 적용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목회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방향을 가지고 일하고자 한다.

첫째는 감리교 영성훈련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현재의 위기를 영적각성의 기회로 삼아, 전체 감리교 안에 웨슬리의 실천적 영성을 체화시킬 수 있는 ‘영성훈련’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훈련의 성격과 형태, 대상과 적용방식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훈련을 개발하여 웨슬리 영성의 풍성함을 회복해 갈 것이다.

둘째는 목회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다.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된 정회원연수교육을 내실 있게 꾸려서 목회자들의 목회전문성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선정과목 뿐 아니라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목회자 자신들의 현장에 대한 분석과 적용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강의를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목자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목자로서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영적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셋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리더십 개발이다.

영성훈련인 ‘엠마오 가는 길’(Walk To Emmaus)은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성과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개체교회를 강화하고 평신도지도자들을 목회협력자로 세워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넷째는 ‘희망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연구하는 일이다.

감리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포럼을 만들어 모델을 찾아내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생의 고리들을 연결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해서 실질적인 희망을 만

들어 가기를 연구할 것이다.

## 2 현황

### 1) 정회원 연수교육 이수자 현황

년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174	104	122	100	129	135	159	108	201
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19	159	219	149	98	113	94	68	148	91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0월 현재)				
						1차	2차	3차	4차	계
	74	92	60	51	23	82	88	94	80	344

### 2) 엠마오 가는 길(Seoul - Walk To Emmaus) 경험자 현황

구분	인원	참여 교회	직분별					
			목회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성도
1기(남자)	74	41	40	/	18	8	5	3
2기(여자)	78	32	2	12	1	34	28	1
3기(남자)	34	19	14	/	2	8	5	5
4기(여자)	46	19	2	3	1	13	22	5
5기(남자)	29	18	9	/	5	9	5	1
계	261	/	67	15	27	72	65	15

## 3 주요 업무

### 1) 감리교 영성훈련체계 수립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단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웨슬리신학자, 영성훈련관계 전문가,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감리교 영성수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가칭 감리교영성운동개발위원회를 결성하여 영성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동시에 이미 검증된 모범적인 영성훈련을 대표적으로 시행하여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웨슬리영성운동의 전형을 만들고 이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일영연수원을 표본적인 영성운동의 요람으로 세워가고자 한다.

## 2) 정회원연수교육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목회현장에서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계 발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목회자에게 학습과 교제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양적인 봉사도 필요하지만 보다 양질의 봉사가 중요한 시대임을 인정할 때, 목회자가 자기성찰과 학습의 기회를 갖고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목회자가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노동과 기도훈련을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련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판단된다.

구분	내용	일시	장소	대상	인원	비고
특별	A+B 통합특별과정	1/15~19	덕산 스파캐슬	지방감리사, 총무 대상자	500명	
1차	Belt - A	2/26~3/1	일영연수원	정1~5, 지방총무	80명	
2차	Belt - B	4/23~26	“	정6~10, 감리사	“	
3차	Belt - A	5/28~5/31	“	정1~5, 지방총무	“	
4차	Belt - B	7/9~12	“	정6~10, 감리사	“	
5차	Belt - A	9/17~20	“	정1~5, 지방총무	“	
6차	Belt - B	10/15~18	“	정6~10, 감리사	“	
7차	Belt - C	11/26~29	“	정11~15	“	

## 3) ‘엠마오 가는 길’(Walk To Emmaus)

이 프로그램은 지역교회 평신도지도자 들을 훈련시켜 개체교회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들의 영성과 지도력을 계발하여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한 헌신과 겸손한 봉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발굴과 양육의 정신, 또한 매사에 균형과 협력을 이루는 건강한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간에 건전한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때에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교회에 끼치게 될 것이다.

구분	일시	장소	대상	인원	비고
엠마오 가는 길 (8기)	3/6~9	일영연수원	여자	36+50	
“ (9기)	3/20~23	“	남자	“	
“ (10기)	8/21~24	“	여자	“	
“ (강서)	9/4~7	“	여자	“	
“ (11기)	10/9~12	“	남자	“	
“ (12기)	10/23~26	“	여자	“	
“ (13기)	12/18~21	“	남자	“	

#### 4) 목자학교

이 프로그램은 교역자(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매주 2일(월, 화)씩 6주간의 강의와 1주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학교로 전, 후반기(2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용은 먼저,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으로 소명의 내적 확신을 새롭게 하고 둘째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목자의 마음을 되찾게 함으로써, ‘목자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구분	일시	장소	대상	인원	비고
목자학교 (1기)	1/29~3/6(매주 월, 화)	일영연수원	목회자, 사모	50명	
“ (2기)	11/5~12/11( “ )	“		“	

#### 5) 청소년 선교비전 Trip

감리교 청소년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모범적으로 선 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해외선교현장을 탐방케 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비전)이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비전을 찾게 하고, 선교의 사명을 일깨움으로써 선교의 역군들을 발굴하며, 단기선교의 모범을 경험케 하여 개체 교회에서도 건강한 선교여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간 2회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실시)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정회원연수교육 운영	조경열	강연희 목사 고신일 목사 김영선 교수 김의중 목사 김종복 목사 김한구 목사 김홍기 교수 박노권 교수 안승철 목사 여성훈 교수 이선균 목사 이성우 목사 이용윤 목사 함영석 목사
엠마오 가는 길(S-WE) 운영	한정석	김종수 목사 김영선 교수 김홍기 교수 이용윤 목사 권영규 목사 김동준 목사 송규의 목사 김정호 목사 김래현 목사

## 5 정책소고

### “웨슬리 영성훈련의 요람(搖籃)을 건설하기 위한 실천방안”

김용택 목사

#### I. 서론

지난 7월 27일부터 UMC 제자국의 실무자들과 미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미국감리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지도력 개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1980년대에 UMC가 교회적 위기를 감지하면서 1990년도부터 10여 년 동안 범교단적으로 ‘조직개편과 운영합리화’에 노력을 경주한 연후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교회적 위기의 해결책을 제도와 방식을 고치는데서 찾으려 했던 그들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결국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변화는 영성의 회복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관심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은 고쳐가야 한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구태의연한 사고와 가치관 속에 얽매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람의 변화가 우선된 과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이제 UMC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감리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지도력개발에 관심을 모으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영적 물적 기반을 구축해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의 희망이 타인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 II. 본론

그동안에도 필요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영성훈련에 관심해 왔고 그 나름의 성과를 얻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해야하는 것은 영성훈련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나 정보를 얻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영성수련체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성훈련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의 담당자들과 웨슬리 신학자들 그리고 교단 관계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수렴하여 정리해 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영성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원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하여 실행구조를 마련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영성훈련체계 수립에 관하여

#### ① 내용

우선 우리감리교회의 자랑스런 유산인 ‘웨슬리의 실천적 영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거룩함과 사회적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개인과 더불어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영성을 말한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현실도피적인 수도원운동의 한계를 넘어서, 18C의 영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켜나갔던 초기 감리교운동의 경험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동시에 영성수련을 통한 영적성장과 인격적 성화를 등한시해 온 종교개혁 신학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방법

웨슬리의 영성수련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교회사 속에 허락하신 다양한 영성훈련의 체계와 방법들을 참고하여 만들어가되 신앙발달단계, 연령, 성별, 직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성훈련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수행하는 영성수련과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생활운동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소감리교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영성운동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훈련체계 - 단계와 과목

#### 가. 목회자 훈련

- 신학생훈련
- 수련목훈련
- 사역자훈련
- 선교사훈련
- 목회자 연차훈련

#### \* 훈련과목(예)

: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복음학교, 제자훈련학교(DTS), 상담학교, 리더십훈련학교, 세계관학교, 선교관학교, 목자학교, 성경연구학교, 웨슬리영성수련학교

#### 나. 평신도훈련

- 새가족훈련: 개체교회가 담당
- 세례입교자훈련: “
- 직분자훈련(집사, 권사, 장로)
- 청년지도자훈련
- 속회지도자훈련

#### \* 훈련과목(예)

: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복음학교, DTS, 전도학교, 가정상담학교, 리더십학교, 세계관학교, 중보기도학교, 웨슬리영성수련학교

#### 다. 청소년훈련

- 청소년 ‘엠마오 가는 길’ (Chrysalis)
- 청소년 선교비전 트립
- 청소년 DTS
- 청소년 웨슬리영성수련학교

라. 영성수련회 - 단계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수도원에서 영성수련의 기회를 갖는 것

### ④ 시행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단적인 논의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하여, 영성수련과정을 담당할 기관들(신학교, 영성프로그램 담당기관들, 교육훈련원 등)과 생활영성운동을 계도할 주체들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교회대표 등)이 함께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검증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성훈련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심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가능한 대로 연회 단위까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해 간다.

## 2) 영성훈련 실행을 위한 구조에 대하여

### ① 조직

가. 먼저 영성수련과정을 담당하는 각급 신학교와 교육국, 교육훈련원, 그리고 기존의 영성프로그램 수행기관과 영성수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감리교 영성운동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성훈련의 체계와 방법들에 대한 연구개발(연구부)과 영성훈련의 집행(수련부)을 담당케 한다.

나. 감리교 영성운동 개발위원회(가칭) 조직을 연회 단위까지 점차로 확대하여 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한다.

다. 영성훈련의 전파와 관리는 기존의 본부조직과 연회, 지방회를 통해서 하게 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한다.

### ② 시설

가. 감리교 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영적 물적 기반이 요구되므로 감리교 계통의 기도원, 수련시설들을 연회 단위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 다양한 형태의 영성훈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훈련형태에 걸맞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 - 웨슬리수도원 : 기도와 묵상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수련회 담당

- 훈련원 : 집회(강의)와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각종 단기영성프로그램과 훈련 학교들을 주로 담당

- 회관 : 집회(강의)와 소그룹세미나가 가능한 시설로 숙박이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

다. 일영연수원(샬롬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제안

상술한 것들을 근거로 생각할 때, 일영연수원은 감리교 영성훈련의 요람으로서 모범적인 자기변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향후 진행될 감리교 영성운동에서 가장 실제적인 모델을 세워야 할 책임이 일영연수원에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부여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 현재 교육 훈련원과 유스호스텔을 분리 운영해야 할 이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원화된 구조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본래적인 교육 훈련원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운영권을 교육 훈련원에 위임한다.
- 교육 훈련원 원장은 감독회장의 직속 하에 두고, 그 직무를 훈련 프로그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시설운영 및 관리책임까지 부여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일영연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8만4천평)의 규모나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설에다 ‘수도원’ 시설을 확충하여 두 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감리교 영성운동의 요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시설(150명 숙식 가능)로는 ‘훈련원’의 기능을 하게하고, 또 다른 부분에 ‘수도원’을 시설하여 복합기능을 가진 영성수련센터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 신설될 ‘수도원’은 영성수련 뿐 아니라, 공동생활의 기반을 갖추어 선교사들의 안식년 귀국생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현행 근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어 효율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에게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여 능력과 사명감을 갖추도록 한다.
- 교육 훈련원과 유스호스텔 시설은 타 교단이 부러워할 만큼 입지적인 여건이나, 경관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런 기관이다. 주어진 대지(8만 4천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전문위원회를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여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III. 결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첫째로, 감사함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감리교회는 영성에 관해 무관심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성주의적 태도와 인본주의적 경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실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영성의 세계에 대해 등을 돌리게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영성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리교회적인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둘째로는 놀라움이다.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에 심어 놓으신 영성의 뿌리는 매우 건전하고 실제적인 것이다. 전통과 현실, 이론과 실제, 신학과 신앙, 신앙과 윤리, 개인과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균형잡힌 대단히 실천적인 영성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21C는 웨슬리의 영성을 지닌 웨슬리의 후예들의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해 목말라 하고 있다. 성경적 영성을 지닌 예언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동안의 영적 무지와 안일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희망의 전령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자. 변화된 감리교회를 들어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 교육원(입석)

· 부장 이은재 목사

### 1 업무추진방향

2007년도 입석 교육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설 보수이다. 30년이 지난 노후시설과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특별예산을 신청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수해 갈 것이다.

산돌학교는 교육원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07년도부터 고등과정이 시작되며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기숙사 등 시설 확보가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이다.

교육및 영성프로그램은 임락경 건강교실, 몸비우기 영성수련회, 산돌학교 국토순례, 교사수련회, 그리고 공동주관 프로그램으로 감리교 평화생명수련회(고난함께), 청년평화캠프(MYF), 함께배움터(논촌선교훈련원), 나눔선교회 청소년연합수련회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 2 현황

교육원	산돌학교			
부장 1인(교육국소속/사무국업무 겸직) 과장 1인(사무국소속) 회계 1인(계약직) 영영사 1인(계약직) 식당조리사 2인(계약직) 청소용역 1인(계약직)	학생	1학년	23명	계 62명
		2학년	21명	
		3학년	18명	
	교사	정교사	12명	계 20명
		강사	8명	

### 3 주요업무

#### 1) 시설보수

숲 속에 있는 캐빈 3동은 그대로 방치하면 사라져 없어져버릴 만큼 낡았다. 숲과 어울리는 목조주택으로 보수해 소그룹을 위한 세미나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년이 지난 웨슬레관의 배관시설은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할 만큼 노후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영장은 철거하고 복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관 지하의 하수처리 시설과 지붕의 석면은 건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지만 많은 예산을 요한다. 전체 예산을 세워 연차적으로 접근하겠다.

#### 2) 산돌학교

① 산돌학교는 교육원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1년 중 비수기 8개월 동안 교육원 시설의 대부분을 산돌학교가 사용하면서 공실율을 최소화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교육원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산돌학교 2006년 예산은 4억6천만원이 넘는다. 교육원의 예산을 훨씬 웃돈다. 학생수는 62명이며 교사는 정교사 12명, 강사 6명이다. 재정, 교육과정, 학부모회 등 모든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② 2007년 산돌학교의 핵심과제는 매년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문제이다. 특히 기숙사시설의 확보는 산돌학교의 존립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산돌학교는 자체 모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일체의 등기권을 재단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기숙사및 강의실 건축계획서를 유지재단이사회에 제출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감리교재산 망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부당했다. 부득불 교육원 밖에서 기숙시설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감리교단이 운영하는 좋은 학교라는 학부모들의 믿음과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교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숙시설을 확보하는 일에 산돌학교의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될 상황이다.

③ 2007년도 산돌학교는 중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고등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고등과정은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주는 과정으로 집약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발견, 인턴과정(1학기), 교환학생(1학기/외국), 실습과정을 거친 후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따라 직장이든 대학이든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고등과정은 10~15명의 작은 교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 3) 교육 및 영성프로그램

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다. 다만, 에니어그램 영성 수련회는 강사와의 시간 조절이 필요하여 당분간 쉬게 될 것이다.

② 2006년 정책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일일세미나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큐메니칼 성서연구모임을 가지려 한다. 기존에 모임이 있던 공동체성서연구연대 활동을 견인, 지원하여 성서연구 교재를 발간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생활과 말씀 나눔을 통해 고백된 내용들을 모아 자료화한다면 매우 좋은 성서교재나 신앙 간증서가 될 것이다.

③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위해 지역 YMCA 간사들을 위한 성서연구모임을 제공하였다. 이를 확대하여 교육원 인근에 사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연구모임을 확대 시행하고자 한다. 성서연구모임을 통해 소명감과 공동체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원 사업이 영성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마음을 모을 것이다.

#### 4) 종합개발프로젝트 추진

이미 유지재단이사회에서 보고되어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종합개발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의 대략적 개념은 2006년 정책자료집에 보고된 바와 같다.

### 4 위원회

#### 1) 산돌학교 이사회

구분	이름	소속/직위	임원	구분	이름	소속/직위	임원
당연직 이사	신경하	감독회장	이사장	선출직 이사	김영동	연희교회	
	이기복	교육위원장	부이사장		박명순	수동교회	
	김두범	교육국총무	총무이사		송순재	감신대	
	김영동	사무국총무	재무이사		안지호	봉일천교회	
	이은재	입석교육원장			우병설	광명중앙교회	
	안성균	대표교사			원성웅	옥토교회	
	윤여균	농촌목회자협의회장			이종용	이화여고	
선출직 이사 (가나다순)	권오준	한빛교회	서기이사		최대용	서부중앙교회	감사
	김고광	수표교교회	감사		최대원	교문교회	
	김병삼	만나교회		계 19 명			



## “교육의 희망을 열어가는 산돌학교”

이은재 목사

### I. 서론 : 왜 대안학교인가?

2007학년도 산돌학교 신입생 모집에 서류를 제출한 학생·부모들이 말하는 지원 동기는 다음과 같았다: “자연과 함께 공부하는 학교, 놀면서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학생1), “개인의 능력이 간과되어 소질과 개성이 어른의 잣대로 결정되는 획일화된 기성 교육의 틀 속에서 약자는 항상 소외된다”(학부모1), “아빠를 통해 들었는데 나의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가기로 하였다”(학생2),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며, ... 공부에 짓눌려 쓰러져가는 아이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학부모2), “학교 공부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학생3) “지식습득이 아닌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자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이 산돌학교의 교육철학과 맞다고 생각해서”(학부모3) 등이다.

또한 산돌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들은 기존의 공교육에 대해 한결같은 평가를 내린다. 1) 각 개인의 특성이 완전히 무시된 교육, 2)주입식이며 비인격적인 교육, 3)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가치 창출의 기회가 박탈된 교육, 4)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지식 습득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교육이라고 한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살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절박한 이유는 참된 교육, 본래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의 공교육은 입시를 위한 점수 따는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전락했고, 그나마 그 역할도 학원에 빼앗기고 있어서 학교의 존재이유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이런 의문에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형편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안학교는 그 근본적인 대안을 실재화한 학교이다. 진정 그렇게 되어야 할 공교육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대안학교 중에서 산돌학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왜 감리교단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려 하는가? 그것은 교육의 핵심은 영성교육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그의 저서 <전인건강>에서 영적인 건강이 전인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산돌학교도 이런 교육철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런 온전함의 영성과 전인건강은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삶을 경축하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 안에 머물고,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스스로를 모든 가능성 앞에 개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양육된 학생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학생들은 산돌학교의 특징을 ‘자유’라고 말한다. 이 자유는 방임이 아닌 교사, 친구들, 부모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자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농후하게 내포한 그런 자유이다. 이런 자유 속에서 산돌학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룩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띄며 유기체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동성을 지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힘은 더욱 큰 물결을 이루어 갈 것이다.

## II. 본론: 산돌학교의 교육내용(철학)과 향후 전망

### 1) 산돌학교의 교육내용(철학)

① 산돌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작은 예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적 용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참 인간이 될 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인간다운 인간, 진정한 인간, 참 인간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산돌학교는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교학상장 敎學相長)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 사는 도리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것을 온 정성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예배, 아침 산행과 묵상, 몸 마음 다루기, 묵학,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온전함의 영성에 바탕을 둔 참 인간이 되는 수련을 하고 있다.

② 산돌학교는 앎(지식)과 열(깨달음)과 삶(실천)이 하나가 되는 실천을 위한 교육을 한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인다. 농사, 풍물, 전통무예, 몸 마음 다루기, 재량활동(웃만들기, 뜨개질, 빵만들기, 집짓기 등),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삶에 바탕을 두는 삶을 위한 공부를 한다. 스스로 텃밭을 일구어 먹을 것을 구한다. 닭을 기르고 자기가 기른 닭을 잡아먹기도 한다. 창업 프로젝트를 만들어 자금을 지원받아 실제로 준비-생산-판매-수익창출-회계 등의 활동을 하는 사장님이 되어본다. 7박8일의 국토순례를 통해 우리 땅을 발로 걸어

보고, 중국이동수업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 장애인이나 농촌의 작은 신앙인들이 중심이 된 생산공동체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한 학생들이 그 또래의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떻게 세계관이 같겠는가?

③ 대안교육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안교육학자이자 교사인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er Getto)는 <바보만들기>라는 저서에서 공교육 시스템의 대부분이 150년전 군사국가인 프러시아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목적은 국민을 ‘관리’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관리하기 쉬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교육은 개인의 특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표준적(?)인 인간, 곧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태어난 가능성, 즉 신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최대한 계발하고 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학교가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산돌학교는 ‘작은 구도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도록 돕는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자율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율수업 시간을 늘려간다.

④ 21세기의 경쟁력은 대학졸업장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될수록 증대된다. 천재 골프소녀 미셸 위는 대학을 포기하고 프로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걱정하지 않는다. 만일 그녀가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정규과정을 다 이수해야 한다면, 그녀의 천재성은 빛을 잃을 수도 있다. 천재는 99%의 노력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공교육은 점수 따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100%를 쏟게 만든다. 각자가 갖고 있는 천재성을 살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는가? 대안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갖고 태어난 가능성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고하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도록 돕는다.

⑤ 산돌학교는 5년 과정의 교과과정을 마치면 학생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의 일(직업)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이 일단 자기의 길을 찾으면, 그 길을 가는데 대학이 필요하면 스스로 대학에 진학할 것이요, 대학이 필요치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대학은 자신의 전문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 가치는 아닐 것이다. 다행스럽게 대안학교 학생들을 수시 특례입학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학 진학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는 기존의 대안학교들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 2) 향후전망

① 산돌학교는 현재 3학년까지 총 6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등과정이 시작된다. 5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전체적인 교과과정이 확정되어 교육과정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안정될 것이다. 특히 고등과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간의 해외이동수업과 도제수업형태로 진행될 직업현장체험들의 교과과정은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제공해 줄 것이다.

② 산돌학교가 지닌 취약점은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즉, 산돌학교의 졸업생이 없어서 감리교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봉사하고, 공헌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3학년들이 졸업하고 사회 혹은 대학에 적응하는 향후 5~6년의 시점에 이르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나올 것이다. 현재는 다른 대안학교의 모델에서 가능성을 보며, 학생들의 발달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③ 산돌학생들은 5년의 교육과정에서 일반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두 차례의 해외이동수업(아시아와 미국 혹은 유럽), 직업선택을 위한 도제수업이나 인턴경험, 교차적인 교사의 지도와 멘토링, 다양한 주제수업과 생활수업,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예술교육, 절기에 따른 수업들, 학생동아리 활동, 지속적인 영성수련, 노동수련, 국토순례 등등. 이런 경험들 속에서 학생들은 자율성·창의성·책임감을 배운다. 다양한 관계 형성과 외연확대를 통해 성숙한 지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④ 현재 3학년까지 학생이 모집된 상황에서 재정은 일정부분 자립을 이루고 있다. 물론 교사의 인건비가 공교육의 교사들에 비할 수 없지만, 학생이 5학년까지 충원되면 재정적으로 더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대안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대통령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산돌학교도 인가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지원과 재정확보를 이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 III. 결론: 대사회적 영향 및 과제

현재 한국의 대안학교는 전체 학교의 0.2%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훨씬 높다. 현존하는 대안학교를 무시할 수 없기에 대안학교법을 만들었다. 또한 재정지원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더 만들려는 입장이다. 대학들도 대안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특례입학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대안학교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준다. 소위 말하는 '학원중독'에 걸린 학부모와 학생들을 치유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에 새로운 모델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대안학교들을

통해 보는 것이다.

특별히 산돌학교는 다른 대안학교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성교육이다. 매주 정기적인 예배와 매일의 경건의 시간들, 산행과 묵학 등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 앞으로, 또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다. 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닌 인간 자체에 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인간,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이 핵심에 영성교육이 있다.

두 번째, 산돌학교의 특징은 100% 가까운 유기농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질, 곧 영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또한 이익에 눈 먼 광기어린 방식으로 성장하고 도살당한 먹거리들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바른 음식을 먹고 자란 학생들은 그 자체로 평화의 에너지를 세상에 드러낸다. 특별히 산돌학교는 감리교 생활협동조합인 농도생협과 계약을 맺고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산돌학교와 농촌교회와의 상생관계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산돌학교는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주1회 지역의 노인·장애인 단체·병원 등에 봉사활동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축제와 작은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 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지역 사람들의 저변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례로 교육원에 이웃해 있는 수동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산돌학교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산돌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모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산돌학교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1)교과내용, 재정, 학교운영시스템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개선, 확보될 것이다. (2)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교육원의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종합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3)산돌학교는 교단 안에서보다는 교단 밖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감리교인으로서 산돌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교단 내에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2007학년도 신입생 20명을 모집하는데 정원을 훨씬 상회하는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특히 재학생의 동생들이 지원한 경우가 7가정이나 되었다. 이것은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증거가 된다. 대안학교 연대에 속한 100여개의 학교 중에서도 산돌학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학교로 평가받는다. 감리교단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여러 가지 간섭과 제재가 많을 것으로 예단했는데, 오히려 발전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특히 감리교교육원의 탁월한 교육환경은 모든 대안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평가와 증거들은 산돌학교를 통해 감리교회의 위상이 점차 높아질 것임을 시

사해 준다. 대안학교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를 통해 감리교회가 교육의 희망을 열어간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비서실



## 실장 인사



실장 유희용 목사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동역자여러분,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께 먼저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지난 11월14일에 감독회장님의 명을 받아 비서실장에 임명된 유희용 목사입니다. 우선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본부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감독회장의 임기 후반을 보좌해야 하는 일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본부 생활 10년의 경험을 잘 살려서 감독회장과 10개연회 감독을 보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일들이 교회의 요구와 필요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짧은 임기동안 감독회장을 잘 보좌하는 일과 독창성과 효율저성을 가지고 생산적인 업무를 창출해 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있어 비서실이크게 두드러져서도 안되지만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각오도 새롭게 하고있지만 때론 단호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2년은 감독회장의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어떻게 결실을 거두게 될것인가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희망프로젝트”를 얼마나 효과있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비서실장으로서 집중할 계획은 주로 “희망투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안팎으로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와 이웃들을 직접 심방하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감리교회의 영성을 회복해 가고, 교회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통합하며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뿐만아니라 비서실의 업무가 최근들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총회와 입법의회 행정업무를 필두로 총회산하 각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기획업무와 역사자료수집및 정보전산 업무등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장정개정안이 감리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감리교회로 발전해가는 장정이 되도록 개정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순교자 기념사업, 역사박물관 건립, 각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일들과 병행하여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교회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광화문과 전국의 교회들이 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부 임원들의 화합과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수행해 나감에 있어 비서실은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일하면서, 감독회장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업무개요

본부 비서실은 감독회장의 비서 업무와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총회 및 산하 위원회들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 업무, 본부 각국의 업무 조정과 기획, 역사자료 수집과 보존, 전산 및 홈 페이지 관리,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대 언론 홍보와 같은 여러 다양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제 19차 세계감리교대회와 준비와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고, 나아가 아시아 감독회의와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 실행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위상을 높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또한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기념비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제막하도록 기획하였으며, 순교자 기념 세미나와 순교자 기념주일 제정을 통해 신앙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는 일에 앞장 서 일 하였다.

한편, 그 동안 감리교 장단기 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감리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을 수립해 나가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향후 2 년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이제 총회 결의를 거쳐 범 감리회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비전을 구체화 할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영적 각성 실천 운동’, ‘희망 목회 운동’, ‘세계선교와 나눔 운동’ 이라는 3대 과제를 따라 실천되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단기 발전 위원회에서는 감리교회가 장기적으로 다루고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 과제들을 선별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내년 중에 정책 백서를 발간하는 일도 준비하고 있다.

2007년은 감독회장님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해이고, 새롭게 선출된 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모두 힘을 합하여 영적 대 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감리교회의 부흥과 선교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비서실에서는 더욱 최선을 다해 감독회장님과 감독회의를 보좌할 것이다. 그리고 본부 각 국 및 연회들 간에 효율적인 협력 체계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연락과 조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고자 한다. 2007년 10월 말에 열릴 입법의회를 잘 준비하고, 장정개정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하여, 이번 입법의회가 감리교회 발전에 길이 남을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감리교회의 희망 프로젝트와 백서 발간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실무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본부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비서실의 업무를 위해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 2. 국 위원 및 이사

### 1 감독회의

의 장	신경하 감독회장
위 원	김기택 한정석 김승현 최승일 박영준 김남철 김일고 이기복 강환호 피정식

### 2 제27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

위원장	신경하 감독회장			
위원	연 회	직권상(감독)	선출직	
			교역자	평신도
	서 울	김기택	김진호 이승호	신수복 이태영
	서울남	한정석	고수철 김국도	한준길 이정행
	중 부	김승현	이종복 서명섭	변종칠 안충수
	경 기	최승일	최호순 한정호	박수남 이규화
	중 앙	박영준	배정길 권혁구	한일동 박용국
	동 부	김남철	박상혁 박거종	김광용 안준일
	충 북	김일고	김기웅 심현익	김형태 권영석
	남 부	이기복	이찬복 박영태	이일호 김상수
	충 청	강환호	김영철 김용술	이근영 안봉기
	삼 남	피정식	구동태 최타권	박 건 김태수
	미주특별		한기형 조동삼	최종혁 정용복
	총회 정·부서기		김중훈	김진열
언권위원	감사		이현덕 이진수 권오준 이복규 이광호	신성부 송기영 정하모 최동환 심기택
	단체장	안충수 최은영 신동선 표석은 안현아		

### 3. 업무 구분

부서	업무
실장	1. 비서실 업무 총괄 2. 감독회장 비서업무 총괄 3. 감독회의
총회행정부	1. 감독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입법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실행부위원회 업무 4. 총회 및 입법회의 분과위원회(장정유권해석, 총회 회의록 검사, 장정개정) 업무 5. 총회 특별위원회(행정조정, 선거관리,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 업무 6. 감독회장 직속 특별위원회(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교역자수급 및 고시) 업무 7. 비서(행정 보좌) 업무
기획홍보부	1. 본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2. 각국 정책 업무의 조율 3. 홍보 및 대 언론 업무 4. 감리회본부 특별위원회(장단기발전) 업무 5. 총회 특별위원회(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 업무 6. 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업무 7. 비서(의전 및 문서 보좌) 업무
역사전산부	1.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정보 관리, 서버운영(도메인, 서버, 네트워크, 홈페이지관리) 업무 2.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역사자료실 관리 업무 3. 감리회본부 특별위원회(성직) 업무 4. 총회 행정분과 위원회(정보전산) 업무 5. 각 위원회(역사위원회-역사자료, 기념사업, 순교순직자사업) 업무 6. 비서(정보 및 자료 보좌) 업무

#### 4. 발간 자료

##### 2006년 자료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자료집	2006 본부 정책자료집		전국교회 배포 2005. 11
2	단행본	교리와 장정(2005년판)	교리와 장정	관대용 2006. 1. 10
3	영상자료	WMC 특별기도주일 영상물		전국교회 배포 2006. 3
4	단행본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	이단문제	전국교회 배포 2006. 4. 25
5	자료집	교회 재판법 세미나	장정의 재판법 강의록	연회, 총회심사, 재판위원 2006. 5
6	소책자	이준열사 순국 99주년 기념주일	예배 자료집	2006. 6
7	소책자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영문 홍보책자(80쪽)	WMC 대회용 2006. 7
8	소책자	제27회 총회 감독 선거공보	후보소개	선거권자 배포 2006. 9
9	자료집	제26회 입법의회 회의록	회의록	입법의회 회원 배포 2006. 10
10	자료집	제27회 총회 회의 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6. 10. 26
11	자료집	제27회 총회 정책 계획서	‘희망프로젝트’ 외	총회대표 배포 2006. 10. 26
12	자료집	정책대회 자료집	‘희망프로젝트’ 외	참가자 배포 2006. 11. 23
13	단행본	성경문제집	신·구약 문제 (개역 개정판)	교역자수급 및 고시 위원회

##### 기존자료 (2001년~2005년)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	자료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을 위한 감리회 임원대회	회의자료	전국 지방 임원 배포 2001. 4. 2

	구분	제목	내용	비고
2	자료집	위대한 감리교회 대표	회의자료	참석자 배포 2001. 6. 4
3	자료집	제24회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입법의회 회원배포 2001. 10
4	회의록	제24회 총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1. 12
5	단행본	교리와 장정(2001년판)	장정	판매용 2002. 3
6	회의자료	수련목회자 지도지침	교육자료	지도목사 배포 2002. 5
7	자료집	2002 Asian Methodist Council	소개자료	AMC 참가자 배포 2002. 6
8	팸플렛	제25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공보	후보소개	총회대표 배포 2002. 9. 18
9	자료집	제25회 총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2. 10. 25
10	단행본	한국감리교인물사전	인물사전	전국교회 배포 2002. 10
11	팸플렛	한국감리교회사(영문)	역사	비치용 2002. 10
12	자료집	제25회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3. 10
13	회의록	제25회 총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3. 12
14	회의록	제25회 입법의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4. 2
15	단행본	교리와장정(2003년판)	장정	판매용 2004. 3
16	팸플렛	제26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공보	후보소개	총회대표 배포 2004. 8. 9
17	자료집	제26회 총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총회대표 배포 2004. 10. 26
18	포스터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이미지, 3대 목표, 10대 우선사업	전국교회 보급

	구분	제목	내용	비고
19	영상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임원대회 영상물	
20	팸플렛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감리교 소개 팸플렛 (영문)	비치용
21	자료집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자료집	회의자료	입법의회 회원 배포 2005. 10. 25
22	자료집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	광복 60주년 기념 예배 자료	전국교회 보급
23	영상물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	광복 60주년 기념 예배 자료	전국교회 보급
24	자료집	수련목회자 오리엔테이션	수련목회자 지도	수련목회자 배포 2005. 3. 9
25	자료집	재판법 세미나	장정의 재판법 강의록	연회 총무, 심사, 재판위원 배포 2005. 6. 27
26	회의록	제26회 총회 회의록	회의내용	총회대표 배포 2005. 12

## 5. 각 부 업무

### 총회행정부

· 부장 함영석 목사

#### 1 업무 추진 방향

총회행정부는 장정[235] 제3편 제7장 제3절 제135조(비서실 직무) ①, ②, ③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총회행정부는 감독회장의 교리와 장정과 본부내규 및 행정업무를 보좌하며 감독회의와 총회 산하 위원회를 행정 지원하는 업무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려고 한다.

#### 2 현황

### 1) 제27회 총회 대표 현황

No.	연회	교역자	평신도	계
1	서울	65명	64명	129명
2	서울남	65명	64명	129명
3	중부	121명	123명	244명
4	경기	82명	81명	163명
5	중앙	88명	86명	174명
6	동부	71명	72명	143명
7	충북	40명	38명	78명
8	남부	66명	66명	132명
9	충청	69명	70명	139명
10	삼남	61명	61명	122명
11	미주	36명	44명	80명
계		764명	769명	1,533명

### 2) 제27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현황

No.	연회	교역자	평신도	계
1	서울연회	21	22	43
2	서울남연회	22	21	43
3	중부연회	40	41	81
4	경기연회	27	27	54
5	중앙연회	23	21	44
6	동부연회	23	24	47
7	충북연회	13	13	26
8	남부연회	21	22	43
9	충청연회	23	23	46
10	삼남연회	21	20	41
11	미주연회	11	8	19
12	직권상	11	-	11
13	임명직	2	2	4
14	언권	-	5	5
계		258	249	507

### 3 주요 업무

1.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입법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3. 총회 실행부위원회 업무
4. 총회 및 입법회의 분과위원회(장정유권해석, 총회회의록, 장정개정) 업무
5. 총회 특별위원회(행정조정, 선거관리,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 업무
6. 감리회본부 특별위원회(신학정책 및 이단대책, 교역자수급 및 고시) 업무
7. 비서(행정보좌) 업무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	평신도
장정유권해석		김재철 정영기 권용각 이경옥 전용춘 장시천 조문행 전계남 주원장 석준모	김광이 박헌덕 김인석 최현범 하상준 류승민 이병찬 최영선 현병국 김관배
총회심사		김준형 전찬영 김창수 유광조 강일남	이창수 안규운 안재엽 이대욱 김정웅
총회재판		이경호 최병희 홍순욱 오세영 석준복	석경환 한종섭 김무진 노정선 지영모
총회특별심사		김종수 임문선 신청웅 김남수 임종구	가재환 김선철 박철수 윤진호 김동학
총회특별재판		권오서 이종현 이규환 황병원	황용배 이기영 송현순 박순희 이호영 이현곤
총회행정재판		김여일 김홍수 함영환 이수배 홍선기	윤태웅 서정인 권용환 진동석 박중석
총회행정조정		강승진 현성은 방효천 기수철 최병남	이해선 정하룡 박달선 윤용실 주춘식



위원회	위원장	위원	
		교역자	평신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윤강모 김태식 김문철 김돈식 박기서 황요한 진인문 김수인 양기모 김종현 한순동 김종홍 장명찬 윤바울 이무영 김용국 송영환 조동희 오용교 박수석	임성이 고용성 박광수 이기조 조갑미 유재성 백준현 이웅재 유용관 최문섭 고병렬 강태성 김태성 장성구 이대우 오종탁 지규근 최경섭 이승만 정혁동
교역자수급 및 고시		이용원 김재철 양총재 임정덕 임홍재 금성호 강천희 김홍수 한인수 진항섭 서정달 송민섭 이정원 전용재 최충남 방인순 박상혁 권오서 이병우 조문행 임재선 이현범 전성성 오민평 강석봉 이선웅 오자홍 원형수 장석재 김민자 심광민	

## 5 정책소고

### “교역자 수급 정상화 실천방안”

함영석 목사

#### 1. 신학대학원 정원 감축 및 통합 운영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신학대학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리회 교역자 수급 정책과는 관계없이 입학정원이 증가되었고 또 이에 따른 교역자 수급제도에 발 빠른 대응이 없었던 것은 감리회나 3개 신학대학교의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신학대학원 정원을 감축하고 점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감리회의 재정지원

3개 신학대학원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학교 운영상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

문에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의 한 부분을 감리회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한시적으로 3년간 (2000년~2002년)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낸 경험이 있다.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장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05년을 기준할 때 결산액 0.5%의 금액이 26억원이 되는데 이는 신학대학원생 500명분의 등록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신학대학원도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학교와 교육과정의 변화

감리회는 매년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3년간 평균인원에 따라 3개 신학대학원에 배정 지원하고 아울러 3개 신학대학원은 감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데 우선 현장 목회에서 필요한 실제 과목들을 증설하고 신학대학교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는 법인이사로 감리회 파송이사를 받아들여 학교, 이사회, 감리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4. 기존 적체 인원의 해결방안

기존의 적체 인원에 대하여 이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첫째, 기관선교 등 다원화된 선교의 장(場)에 파송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둘째, 개체교회는 입교인 200명당 의무적으로 부교역자 1명을 채용하는 제도의 도입과 셋째, 교역자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1 업무 추진 방향

기획홍보부는 감독회장의 문서 및 의전업무를 보좌하며,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장정 235단, 제135조 5항)를 위해 지난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부서이다.

주요한 정책개발업무는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기적인 연구활동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희망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실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3대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장점을 활성화 시키고, 역기능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인식과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이다. 10대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본부 내 모임과 각국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본부 정책 TF는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감리교회 브랜드 평가와 개발을 위한 CI 기초 준비과정, 영상물 제작과 보급, 범 감리교회적 언론 홍보, 문서보좌 등 업무는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타 교단과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한국감리교회의 대외적 이미지와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홍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2 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출입 교계기자 명단

(가나다 순임)

신 문				
국민일보 kmib.co.kr	노희경	150-968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국민일보 편집국	02-7819-416 011-232-3734	F.7819-410 phob2@hanmail.net
교회연합신문	김성수	종교부 5층 110-460 종로구 연건동 195-19 교회연합신문	02-747-1480 017-350-6984	sunysis@naver.com
기독교 신문 gidoknews.co.kr	홍순현	133-869 성동구 행당동 319-36	02-2295-8884 016-342-0709	F.2292-4042 hsh342@naver.com
기독신문(예장합동) kidok.com	박민균	135-283 강남구 대치1007-3 총회회관	02-559-5920 017-742-4314	F.557-9653 min@kidok.co.kr

신 문				
기독교 타임즈 kmctimes.co.kr	곽 인 조민우	100-101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011-9797-6379 010-4393-3984	F.399-4397
기독교연합신문 igoodnews.net	송영락	138-848 서초구 방배 3동 981-13	02-585-2751 011-354-5619	F.585-6683 ysong@igoodnews.net
기독교초교과신문	김희현	140-875 용산구 한강로2가 194-1	02-796-7002 010-2701-0477	F.796-7046 cho-wisdom@hanmail.net
들소리 신문 deulsoritimes.co.kr	양승록	110-460 종로구 연건동 195-21	02-3676-3082 016-219-7231	F.3676-3087 deulsori@chol.com
연합공보 iyeonhap.com	조승원	100-855 중구 장충동2가 186-210 파라다이스 빌딩	02-2263-1843 019-322-1528	F.2263-2370 jsw7215@iyeonhap.com
침례신문 bpnews.co.kr	최치영	152-102 구로구 오류2동 115-1	02-2681-9703 011-9748-1321	F.2681-9706 bpress21@bpnews.co.kr
크리스찬 신문 cpress.net	이재호	110-740 종로구 연지동 136-56 811호	02-3673-0123 016-703-2931	F.3673-0125
크리스찬연합신문 cupress.com	지미숙	110-736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903호	02-765-3022 017-366-2548	F.3675-2965 cupress2@hanmail.net
크리스찬투데이 chtoday.co.kr	류재광	137-865 서초구 서초1동 1431-14 송하빌딩 4층	02-598-4564 011-378-7616	F.6008-4204 jgryoo@chtoday.co.kr
한국기독교공보 (예장통합) kidokongbo.com	장창일	110-740 종로구 연지동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	02-708-4713 017-202-1743	F.708-4720 jangci@kidokongbo.com
한국성결신문 kehnews.co.kr	김광오	135-839 강남구 대치동890-56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	02-501-7091 011-787-7235	F.501-7093 eunko92@hanmail.net

인터넷 신문				
구굿닷컴 googood.com	이동희	150-726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빌딩 4층	02-761-7565 010-3124-0423	F.761-7071 googood@googood.com
뉴스앤조이 newsnjoy.co.kr	이승규	110-850 종로구 효제동 227-1 대광빌딩 203호	02-744-4116 010-4880-7546	F.747-4115 hanseij@newsnjoy.co.kr
당당뉴스 dangdangnews.com	이필완	120-012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4-7 3층	02-393-4002 011-9147-7449	F.362-4081 leewaon3@chol.com
에큐메니안 ecumenian.com	장익성	110-736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08호	02-765-9749 011-9780-1385	F.744-2748 webmaster@ecumenian.com

방 송				
극동방송 febc.net	김용환	121-707 마포구 상수동 89	02-320-0304 011-9055-1566	F.320-0339 hisever@febc.net
기독교 방송 cbs.co.kr	고석표 (TV뉴스부)	158-701 양천구 목동917-1	02-2650-7813 016-288-1585	F.2653-3100 spko@cbs.co.kr
기독교TV cts.tv	양화수	156-052 동작구 노량진 2동 27-2	02-6333-1096 010-7579-2268	F.6333-1107 hsyang@cts.tv
CGN TV	김지연	140-240 용산구 서빙고동 CGN빌딩 별관 보도본부	010-633-5498	koreajoshua@naver.com

비서실 기획홍보부 제공 (2006.11.30 현재)

### 3 주요 업무

#### 1) 정책기획업무

##### ① 기획

- 가.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
- 나. 문서보좌의 심층화를 위해 연구협조체제(도서, 연수, 인력풀 등)를 갖춘다.
- 다. 새로 선임된 감리사 등이 참여하는 임원대회를 기획한다.

##### ② 본부 정책 조율

- 가. 본부 정책 태스크 포스를 정례화(매월 1주 수요일)한다. 이를 통해 ‘희망 프로젝트’의 업무를 공동관리한다.
- 나. 10대 실천과제 점검 및 평가 월례모임(매월 3주 수요일)을 열고 3차년도에 맞는 성과를 도출한다.
- 다. 매년 8월에 본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11월에 본부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 2) 홍보 및 대 언론 업무

##### ① 홍보

- 가. 감리교회의 기본 홍보 전략과 홍보 지침(매뉴얼)을 작성한다.
- 나. 한국감리교회 한글홍보 책자와 KMC 영문 리플렛을 제작한다.
- 다. 본부 내 포스터, 영상물, 자료집 등을 규격화하여 내적 통합기능을 강화한다.
- 라. 감리교회 전체의 이미지 제고, 인물과 특성화된 선교영역 발굴, 다양한 교회와 사

회의 의제를 개발하여 감리교회를 널리 홍보한다.

마. 본부를 비롯한 전체 감리교 기관과 개체교회에 이르기까지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홍보 세미나를 통해 훈련하며, 홍보인력을 네트워크화 한다.

## ② 대 언론 업무

가. 이미지 선교와 대 언론 및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교계 및 일반 언론에 대한 감리교회 차원의 홍보 서비스를 한다.

나. 홍보시스템(기자관리, 행사예고, 보도자료, 사진서비스, 제2차 기자초청세미나, 기획광고 등)을 각국과 연회, 현장과 협력하여 체계화한다.

## 3) 특별위원회 지원 업무

### ① 장단기발전위원회

가. 감독회장 직속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나.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연구작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연구외주를 집행한다.

다.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장기연구과제 5가지를 마무리하여 2007년 안으로 백서를 발간한다.

### ②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가. 해당 부서(국내선교부)와 협력하여 총회 특별위원회 실무를 담당한다.

나. 10대 실천과제 2항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4) 감독회의 지원과 감독회장 비서 업무

### ① 감독회의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 ② 비서업무

가. 감독회장에 대한 의전사항을 관리한다.

나. 감독회장 명의의 대내외 문서작성을 기획한다.

다. 감독회장 저술 및 홍보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 5) 역사기획과 박물관건립 추진 업무

### ① 역사기획

가. 하디 선교사 영적각성운동을 위한 지원업무를 한다.

나.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한다.

### ②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가. 선교 12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유산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갖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 6) 특별기획 업무: 감리교회 이미지통합 (Church Integration) 작업 모색

감리교회의 공동체성 강화와 일체성을 위해 신앙적 상징과 통합적 로고 개발을 추진한다.

### ① 배경

- 가. 회장사업만이 아닌 감리교회의 정체성회복과 통합작업이다.
- 나. 본부가 추진하나, 현장교회와 목회자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 다. 따라서 필요성과 함께 공동의 염려와 관심, 참여를 유도해 내야한다.

### ② 범위

가. 감리회 로고, 외벽용 동판, 각종 응용 디자인, 고유색상 개발, 문자도안, 목회자스툴, 각종 문서 서식과 본부 국별, 연회별 적용, 교회차량, 현수막, 기념품, 상패, 봉투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일정

가. 1단계

- 문제제기 : 〈2006년도 본부 정책자료집〉 정책소고(pp. 238-244)
- 기초위원 구성 후 정지작업
- 이론적 기초 마련

나. 2단계

- CI 연구위원회 조직
- 필요성, 수용성 등 (여론조사, 홈페이지 Poll) 공동 관심사 모색
- 프로젝트 초안 작성
- 홍보와 여론 확보

다. 3단계

- 시안개발 작업과 공모 병행
- 공청회
- 시안 반복적 보완
- 현장의 참여와 동의 후 시안(다수) 확정

라. 4단계

- 실행부위원회
- 회장의 총회 결의

· 회장 및 상표 등록

마. 5단계

· 회장보급 추진위원회

· 회장 실용화

#### 4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연회위원	연구위원	당연위원
장단기발전	권오서	홍은파 윤형노 조경열 김진두 김홍규 고신일 김학중 전용재 최현영 최선길 황대성 전준구 유광조 유영완 정양희	박상철 임영택 김영민 문상욱 조은하 김종훈 박정훈 천무엽 김종복 차홍도 임대종	본부 8인(선교, 교육, 사무, 사회평신도, 홍보출판국, 교육훈련원, 비서실, 기독교타임즈) 연회총무 3인, 평신도단체장 5인 (남·여·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전국 연합회)

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평신도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		여우훈 방규희 최상용 유해영 이오규 방인순 안상준 최승호 김관수 여상호	홍성렬 이윤근 강휘철 최상용 권규연 변장훈 성우제 설동치 유병춘



## “희망 프로젝트’와 감리교회 호감 브랜드”

송병구 목사

### 감리교회, 브랜드 키우기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 한국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해 토론한 일이 있다. 본부 정책협의회 역시 ‘희망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처음에는 현재의 이미지보다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한 ‘Promise Keepers’란 운동이 이미 국내에 잘 알려져 행여 짝퉁 시비를 우려해 채택을 포기하였다.

결국 감리교인에 대한 정체성은 ‘신실한 사람들(faithful members)’로 결정되었다. 신실함은 ‘신앙(信)과 열매(實)’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존 웨슬리의 ‘칭의와 성화’에 대한 압축된 개념이기도 하고, 규칙과 훈련을 중요시한 메도디스트운동의 전형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약자인 ‘fm’은 흔히 정확한 행동규범으로 잘 알려진 “에프 엠 대로”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감리교인의 규칙쟁이로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적절하다. 기독교 교파의 천국인 미국에서 교파의 장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체험적 신앙은 침례교인을 배우라. 교회충성은 루터교인을 배우라. 교인의 긍지는 성공회를 배우라. 단순한 믿음은 웨이커교도를 배우라. 종교를 높이는 태도는 유대교를 배우라. 기도생활은 장로교인을 배우라. 봉사생활은 구세군을 배우라. 교회를 널리 들어냄은 천주교를 배우라. 기쁨에 찬 신앙은 흑인들을 배우라.” 그러면 감리교회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진실한 생활은 감리교인을 배우라”이다.

그럼에도 ‘신실한 사람들’과 감리교인 정체성 사이의 간격은 멀다. 아직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대중적인 슬로건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한국감리교회와 150만 교인들이 앞으로 지향해 나갈 신앙목표로서 신실한 삶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고, 이에 적합한 슬로건을 창안하여 보급한다는 전제를 갖고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고, 현장 프로그램과 사업, 신앙양육과 실천 그리고 생활 문화화 하는 일일 것이다.

## 개신교 일반에 대한 비호감과 반감

2006년 5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주요한 특징은 전체 종교인구가 증가한 사실과 가톨릭교회의 급성장에 비해 개신교회의 쇠퇴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85년 42.6%에 그쳤던 종교 인구는 2005년 53.1%를 기록해 20년 만에 10.5%가 늘었다. 1998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종교를 지닌 사람이 절반(불교 22.8%, 개신교 18.3%, 천주교 10.9%)을 넘어섰다.

사실 개신교 인구의 감소는 현재 개신교회가 당면한 대사회적 이미지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전남 지역에서 1.4%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신자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개신교의 쇠퇴는 대비가 더욱 뚜렷하다. 1985년 6백48만 명에서 1995년 8백76만 명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개신교인 성장통계는 2005년 8백61만6천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14만4천명이 줄어듦으로써 그 충격은 파장이 컸다.

이에 비해 가톨릭의 급성장은 눈부시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종교인구가 2백37만3천명이 늘었는데, 이 기간 가톨릭의 증가는 2백19만5천명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새로 늘어난 종교인구의 대부분을 흡수한 셈이다. 노길명 교수(고려대 사회학과)는 가톨릭교회의 증가이유를 “한국천주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사목에 적극적으로 투신함으로써 일반인들로부터 높은 친화감을 불러왔다는 점과 천주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이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공보기획부 역시 “가톨릭은 신뢰할 만한 종교로 자리매김하였고, 다른 종교에 비해 개방적이며, 사회봉사활동이나 민주화운동에 헌신 했던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고 자평하였다.

## 가톨릭의 호감과 개신교의 반감 사이의 간격

오경환 신부(인천 가톨릭대)는 개종 이유를 각 종교에 대한 ‘호감’과 ‘반감’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고, 결국 종교를 선택할 때 호감도에 따라 입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종교가 지닌 호감도가 없으면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가톨릭의 호감과 개신교의 반감 사이는 그 간격이 매우 넓다. 사람들이 가톨릭에 호감을 갖는 이유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청렴성, 정의와 인권활동, 조상 제사와 장례 예식에 대한 유연한 태도, 타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를 들었다. 이 밖에도 개신교와 달리 신자들의 개인 헌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헌금을 두고 경쟁 시키거나 압박하지 않고, 성당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공개하며, 성직자의 재산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04년 KBS가 방송한 <한국사회를 말한다>,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 했지만 최근 들어 성장 제일주의, 대형화 경쟁으로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이 점차 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59.3%)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결과를 전하면서, 자기교파와 개체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40.3%), 교회의 대형화와 성장제일주의(23.9%),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재정운영(9.5%), 세습(5.8%) 등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이는 개신교가 일반인에게 이기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조성돈 소장(목회사회학연구소)은 “개신교회는 전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데 반해 가톨릭은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쌓아 ‘브랜드화’에 성공하였다”라는 말로 극명하게 대비된 호감과 반감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였다.

#### 반감을 호감으로 바꿀 대책은?

1997년 발족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자료집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에서 “한국 교회가 이미지 전쟁에서 패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미지만의 문제일까?

감리교회 출입 교계기자세미나에서 홍순현 기자(기독교신문)는 감리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세기 후반기가 끝날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일부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실망을 넘어 극단적인 반대의 기운까지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교회 자체의 책임으로 귀착된다. 교회지도자들의 도덕적·윤리적 해이, 일부 대형교회 중심의 퇴폐적 물량주의, 수구적 정치행태 및 집단행동 등은 ‘교회가 교회되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일반인들의 ‘반교회주의’를 자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충고하였다.

현재 개신교회의 위기수준은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과 정체성의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근본적이다. 2004년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란 조사 결과는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한 결과 가장 낮은 종교 호감도를 갖게 되었고, 새 신자가 늘지 않는 등 선교의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바꾸어 내는 일만이 개신교회가 다시 전도의 활력을 얻고 부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귀결된다.

이덕주 교수(감신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직자와 교인들의 영적 해이와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회개’와 ‘개혁’을 외치는 예언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개혁의 요구를 교회 안에서 수용하여 자기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경우엔 교회가 분열 없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아 세계 구원의 기능을 발휘하였지만, 교

회 안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요구를 소수의 불평이나 불만으로 몰아 제도권 밖으로 추방한 경우 교회는 분열되고 기득권층이 지키려 했던 교회의 권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제 2007년에 맞는 영적대각성운동(1903-1907) 100주년은 한국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통해 대외적 이미지를 바꾸어 낼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 해결책은 초대 교회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한 후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 체험(initial experience)이라고 할 수 있다.

### 과연 감리교회에 희망은 있는가?

한국감리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06년에 교회성장연구소는 ‘한국교회 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교단별 평균 경쟁력은 기성이 61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예장합동이 58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교단은 50점을 기록한 장로교 개혁 측이었다. 감리교회는 56점을 기록해 11개 교단 중 6번째이었다.

당장 우리 자신의 자화상은 매우 부정적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감리교회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우리 감리교회가 앓고 있는 질환과 환부를 논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간지(한겨레 11월 30일자)에 실린 ‘... 감리교에 희망있나’(조연현 기자)라는 기사는 우리가 지난 2년간 외쳐온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화자찬에 그친 ‘위대한 감리교회’와 내부동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일조했으나 감리교회를 쇄신하는데는 역부족이었던 ‘300만총력전도운동’이 단기적인 이슈에 그친 것처럼, ‘희망’ 역시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 즉 철저한 회개와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장단기발전위원회가 제27회 총회에 제출한 단기 사업안인 ‘희망프로젝트’의 초안에 따르면 현재 감리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감리교회의 사회적 교회적 영향력이 쇠퇴하였다, 교회는 점점 부해지면서 사유화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회정체의 지속으로 목회자의 열정이 식고 교회는 경직되고 있다, 역사를 ‘앞선 생각’으로 이끌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도 민감하지 못하였다” 등이다. 보다 내부를 향한 눈으로 보면, “감리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비전을 향한 노력들이 통합적이지 못하다, 치열한 감독선거로 지도력이 상처를 받았다, 감리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과 모델이 없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프로젝트’는 감리교회가 지닌 장점과 강점을 통해 가능성과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감리교회가 선교 120년 동안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며 ‘연관적인 교회(connectional system)’를 살려 왔다는 점과 다양한 영성을 포괄하는 웨슬리 성화신학과 홀

를한 신앙 유산과 전통이 있다는 점, 평신도들의 열정적 참여와 감독회장을 정점으로한 중앙 집중적인 리더쉽, 그리고 지방자치행정구조와 동일한 감리교 조직의 특징을 예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전체 감리교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감리교회 전도환경을 확장하기 위한 이미지 선교 전략이다.

### 세상으로부터 ‘호감’ 배우기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최근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고유한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기업브랜드의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상품의 생산이지만, 최근 기업 이미지 개선작업은 기업의 생존전략의 필수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업의 사회공헌도와 관련이 있다. 기업은 사회와의 관계를 더 이상 경제적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교육, 문화, 지역사회, 환경, NGO 활동 등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친밀도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공헌을 위한 비용을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이란 차원으로까지 그 이해가 발전하게 되었다.

기업 이미지를 위한 사회공헌을 함축하는 ‘메세나’(Mecenat)는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지원활동을 뜻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이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전략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자로 나선 최고경영자들, 장애인공동체에서 환자를 수발하는 CEO의 모습은 단순한 기업 홍보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에서 현장 봉사를 강조하고, 일사일촌(一社一村) 돕기, 친환경 경영, 기업의 숲 가꾸기와 하천 살리기, 사랑의 집 짓기, 행복 도시락, 간병 봉사단, 들꽃사랑 캠페인, 환경학교 등은 단순한 이벤트 수준이 아니라 생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변신은 시대적 조류와 시민의식에 따른 질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최근 기업경영의 리더쉽으로 각광을 받는 ‘섬김의 리더쉽’의 사회적 반영이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가 실천해 오던 것이고, 지금도 가시적인 기업의 사회봉사보다 더욱 뿌리 깊은 교회의 사회봉사는 더욱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감리교회의 예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미 559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웃사랑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대단히

의미있는 규모가 될 것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 감리교회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전체 감리교회가 개별적인 사회봉사와 복지사업을 감리교회 전체 성과로 한데 묶어내고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감리교회 봉사운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면 감리교회의 대사회적인 브랜드는 기대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 ‘호감’ 전략으로서 ‘희망프로젝트’

‘희망프로젝트’는 전도환경을 최적화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전도운동의 통전적 모색이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각성하여, 다시 부흥할 능력을 얻으며,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희망 전략’이며 동시에 감리교회의 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세상을 더욱 바르게 섬기기 위한 ‘호감 전략’이다.

지난 2년 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기독교 선교가 힘을 잃은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선언하였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인 ‘희망프로젝트’는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하기 위한 범 감리교회적 대안이다.

그동안 우리 안을 살펴보면 감리교회를 통합할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계층화한 동역의식, 기회의 협소함과 오랜 정체에 따른 패배감, 학연의 갈등과 목회자와 평신도의 신뢰부족에 따라 온전히 한마음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사회적 신뢰는커녕 가장 믿음직스러워야 할 우리 내부 안에서도 불신이 팽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이제 감리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생산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열정을 하나로 묶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웨슬리 영성을 통해 감리교회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자신으로부터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감리교회 브랜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바꿔내고, 권위의식보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안팎으로 전염시켜 세상을 더욱 바르게 섬기기 위한 복음적 방안을 생활화한다면 그것은 희망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부터 먼저 합심하고 협력하여 “신실한 사람들”로 거듭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전체 기독교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민족과 사회를 향해 강력한 희망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 1 업무 추진 방향

비서실의 직무가 세분화됨에 따라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가 역사전산부 업무로 신설되었다. 감리교회의 역사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과 감리회 홈페이지와 본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성직위원회와 정보전산위원회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 2 현황

- 1) 감리회 도메인 관리 : kmc.or.kr/kmcmission.or.kr  
kmc.edu.or.kr/kmcpension.or.kr  
kmc.mall.co.kr
- 2) 서버운영: 리눅스 서버 3대 보유, 2M 전용회선 운영
- 3) 컴퓨터 관리: 70여대 관리 연140건 A/S처리
- 4) 홈페이지 방문: 일 평균 1,500건
- 5) 홈페이지 회원등록: 총 2,300명
- 6) 역사자료관리: 총 44종 7,361건(도서, 자료, 팸플렛, 사진, 영상, 오디오)
- 7) 역사자료 열람 및 대여: 연 110건 이상

## 3 주요 업무

- 1) 역사자료업무 - 역사위원회와 역사정보자료실 관리
  -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발굴
    - 가. 문서자료 발굴 및 보존
    - 나. 영상자료 발굴 및 보존
    - 다. 문헌 및 감리회 표기, 명칭 연구
    - 라. 역사자료 디지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역사위원회 및 기념사업회 지원

- 가. 한서기념사업회, 탁사기념사업회, 아펜젤러기념사업회,
- 나. 순교순직자 선정사업 관련 사업 지원(유적지 관리지원, 유품 발굴)

③ 기타 사업

- 가. 감리교회 역사 세미나 개최
- 나. 감리교회 유적지 순례 행사 및 자료 제공
- 다. 감리교회 역사자료 영인본 및 단행본 출판 지원
- 라. 감리교회 개체 교회사 자료 발굴 지원
- 마. 감리교회 순교자 발굴 및 자료 개발

2) 정보전산업무－도메인, 네트워크, 서버운영과 홈페이지 관리

① 감리교회 행정전산화

- 가. 감리교회 목회자관리 행정 전산화(연회공동망 구축)
- 나. 감리교회 통계표 전산화
- 다. 연회정보화관련 위원회 세미나

② 감리교회 주요 홈페이지의 일원화 및 통합화 작업

- 가. 감리회본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각 국 홈페이지 통합
- 나. 감리교회 허브사이트 운영(kmcweb.or.kr)
- 다. 교역자를 위한 웹하드 제공

③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 방안

- 가. 다양한 언어로 인터넷 선교에 대한 연구
- 나. 홈페이지 리모델링(영,중문)
- 다.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 라. 초기 감리교 자료의 제공
- 마. 초신자를 위한 신앙 가이드

④ 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 총회, 연회, 감독회의 등 주요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 나. 역사자료(사진,영상,음성)의 데이터베이스(역사자료실)
- 다. 기독교세계(감리회보,기독교신문,감리교생활,기독교세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 3) 비서업무

- ① 감독회장의 사진, 자료 보존 및 관리
- ② 감독회장 정보자료 제공과 보좌

## 4 위원회

## 1) 총회산하 및 본부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성직	피정식	백형부 전규현 이송관 우병설 변승근 최병기 정의영 김명구 김종남 정양희
정보전산	박희권	박종철 이민상 강만득 최승균 김일배 박병욱 노정선 안봉기 김진홍

## 2) 역사전산부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역사		이덕주 김홍수 조이제 조경열 김진두 유승훈 서영석 김순영 조영렬 김명현 박봉배 윤춘병 (자문)
순교자기념사업 (탁사 최병헌, 구영연 순교, 아펜젤러 순직, 이준열사, 유관순열사, 한서 남궁역)		유승훈 이덕주 이선균 김학목 한상명 박윤억 현재호 양기모 장인선
역사자료		홍석창 이주익 유은식 김건형 성백결 장춘식 이경수 조선혜 김대구

## 5 정책소고

### “교역자 인사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고찰”

조병철 목사

#### I. 개요

제27회 총회 정보전산위원회에서는 본부에서 연회공동망으로 사용가능한 감리교회 통합 교역자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분과토론을 거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여 행정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감리교회의 행정전산화에도 불구하고 연회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전산망의 미비로 정확한 교역자 관리 및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연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교역자 인사카드와 은급재단에서 관리하는 은급카드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입증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사업추진방향

##### 1) 우선 사업

일차사업으로는 현재 인사카드와 유사한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 입력폼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입력작업을 위해 각 연회에 비치된 교역자 인사카드를 복사하고, 준회원허입서류는 장정에 따라 감리회본부 비서실 역사전산부에 매월 제출하도록 한다. 이 인사카드는 준회원허입시 2부 제출하여 정본은 연회에, 부본은 본부 역사전산부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매월 교역자 인사공고내용을 본부에 통지한다.

##### 2) 관리프로그램 사용

교인자 인사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각 연회에 비밀번호를 할당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인사기록 카드에 내용변동시 변동신청을 하고 역사전산부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수정내용은 매월 변동내역을 연회에서 본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수정한 내용을 인사카드에도 동시에 수기하여 이중으로 보관한다. 보안을 위해 정보관리책임자와 담당직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3) 운영방안

이 운영은 총회 성직위원회가 하며, 총회 정보전산위원회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비용은 각 연회에서 분담하되, 유지관리는 본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담당직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 III. 전망

교역자 관리프로그램을 전산화하여 운여함으로써 감리회 교역자 행정처리의 일체화가 되고, 이는 일종의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과 같은 것으로 교역자의 정확한 실태(준회원 허입부터 준회원 진급, 정회원 허입 및 인사기록, 이임자, 유학생, 별세자 관리)를 파악하고 교역자 수급상황과 은급 연한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전재결제 및 민원 시스템의 구축은 비용 대 효용성의 문제가 낮으므로 구축하지 않고 게시판을 신청과 신청서류의 우편발송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